Decembe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12 vol.288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반갑습니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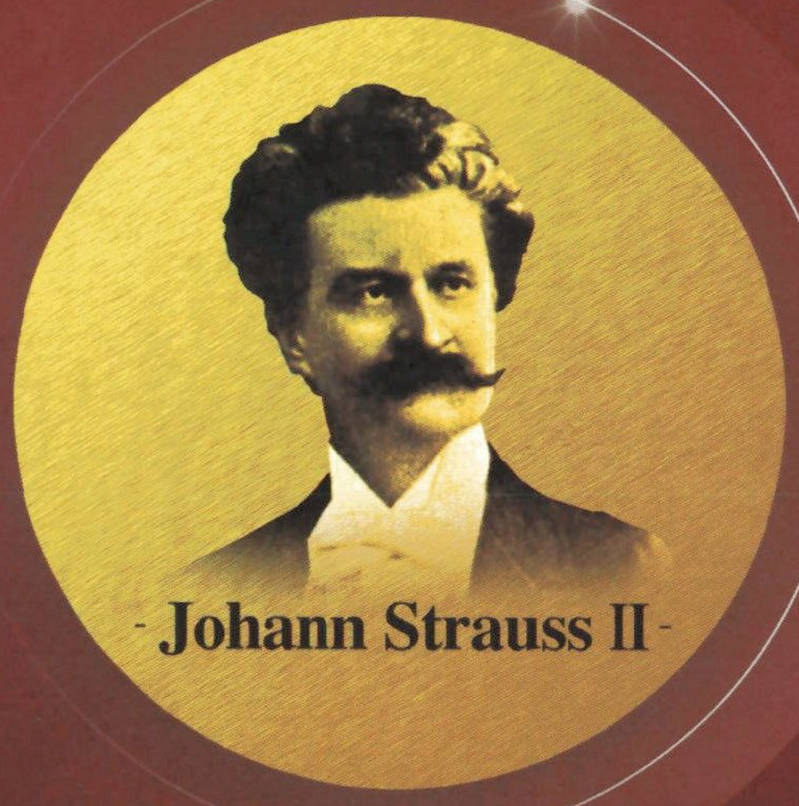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아키-캘리-토닉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강림문화재단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3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2015. 12. 7 (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강림문화재단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협 찬 | 현대해상

| 특 별 후 원 | (주)강림CSP 임수복장학재단 (주)강림오가닉 바이오콤 (주)삼비 강림유치원

| 무료초대권 신청및문의 | KNN 051-850-9333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선착순 마감)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PROGRAM

슈트라우스 | Johann Strauss II

오페레타 '집시 남작' 서곡
Operetta <Der Zigeunerbaron> Overture

오페레타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Mein Herr Marquis> from Operetta 'Die Fledermaus'

'봄의 소리' 왈츠 작품410
'Voices of Spring' Waltz Op.410

'안넨' 폴카 작품117
'Annen' Polka Op.117

外수곡

협연 김성은 소프라노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총감독, 지휘 리 신차오
연출 표현진
합창지휘 전상철
음악코치 손소향
밤의여왕 손가슬
타미노 김병오
파미나 박은주
파파게노 석상근
파파게나 설은경
모노스타토스 문한솔
자라스트로 박상진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은주 무용단

2015.12.4 |금| - 5 |토| 오후7:30 오후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INTERPARK (1544-1555) **문 의** 공연과 607-6065 홍보팀 607-3100

입장권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C석 20,000원 (학생 B, C석에 한해 50% 할인, 정기회원 20% 할인)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예술단이 선택한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 그의 마법의 손길에서 태어난 동화같은 오페라 〈마술피리〉

미지의 세계에서 만나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 안에 숨겨놓은 수수께끼!

밤의 여왕의 아리아로 대표되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모차르트의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한껏 담긴 작품이다.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유쾌한 새잡이꾼 파파게노와 신기한 마술피리, 밤의 여왕과 지혜의 자라스트로가 등장하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안에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는 모차르트의 철학과 심오한 사상은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듣기 쉬운 음악들과 아름다운 아리아,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한 작품 속에 녹여져 있어 다채로운 오페라의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이번 오페라는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독일 오페라 징슈필의 묘미가 잘 드러난 걸작으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Artistic Staff

총감독, 지휘
리 신차오

연출
표현진

합창지휘
전상철

음악코치
손소향

출연진이 추천하는 최고의 오페라 '마술피리'

파미나 **박은주**

첫째. 마술피리는 전세계적으로 제일 사랑받고 제일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둘째. 부산문화회관에서 의욕적으로 제작하는 기획공연으로
셋째. 때묻고, 욕심에 찬 어른들에게 던지는 바르고 정직한 젊은이들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으로
넷째. 특히 모차르트를 잘 부르는 소프라노 박은주가 출연함으로 적극 추천.

타미노 **김병오**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가 죽은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그는 여러 오페라를 작곡하였고 전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중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독일오페라의 최고의 걸작 '마술피리'이다.
독일 오페라의 최고의 걸작, 꼭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라스트로 **박상진**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3대 오페라로 손꼽히는 걸작이며,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징슈필(Singspiel:대화에 음악이 삽입된 이야기 오페라)이기도 하다.
다른 오페라들과 비교해볼 때 레치타티브를 대사로 처리했고 그래서 각 인물들의 아리아는 더욱 빛이 난다.
음악, 무대, 연기, 무용 까지의 종합예술이라 여겨지는 오페라. 오페라 '마술피리'를 통하여 어두움과 환희,
유쾌함과 진지함이 있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감정과 색채를 느끼며 문화생활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를 기대한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The 49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2014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광복 70주년 · 애국가 탄생 80주년 기념

Korea Fantasy

2015.12.10 THU P.M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Carl Orff Carmina Burana 中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의 여신〉
Saint-Saëns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op. 61 〉
임준희 〈 Song of Arirang 〉
안익태 〈 Korea Fantasy 〉

예술감독 | **김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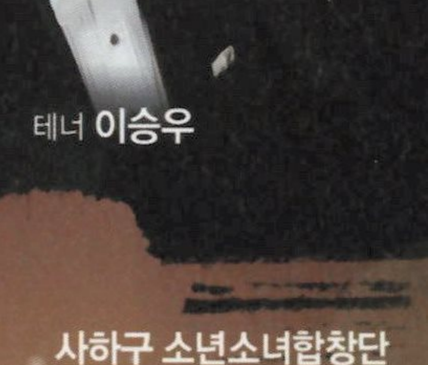
지휘자 **이효상**

바이올린 **김응수**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베이스 **김정대**

소프라노 **윤선기**


테너 **이승우**

김해시립합창단

부산로얄오페라합창단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은하합창단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INTERPARK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남수현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본 공연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varts.or.kr

MUSICAL

LES MISERABLES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 —

2015.12.12 (토)

오후3시, 오후7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N.A.뮤지컬컴퍼니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입장료 | 1만원, 2만원, 3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제182회 정기연주회

송년 음악회

2015. 12. 23 wed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YEAR END CONCERT

PROGRAM

-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 작곡 : 최성환
- 이생강류 대금산조와 관현악 / 편곡 : 이준호 / 대금 : 박환영
- 25현 가야금협주곡 **능소화** / 작곡 : 이준호 / 25현 가야금 : 김선림
- 국악관현악 **비상** / 작곡 : 이준호
-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 / 소프라노 : 권성순
  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 이별가, 아베마리아
- 해금협주곡 **추상** / 작곡 : 이경섭 / 해금 : 안은경

객원지휘 이준호

대금 박환영

가야금 김선림

소프라노 권성순

해금 안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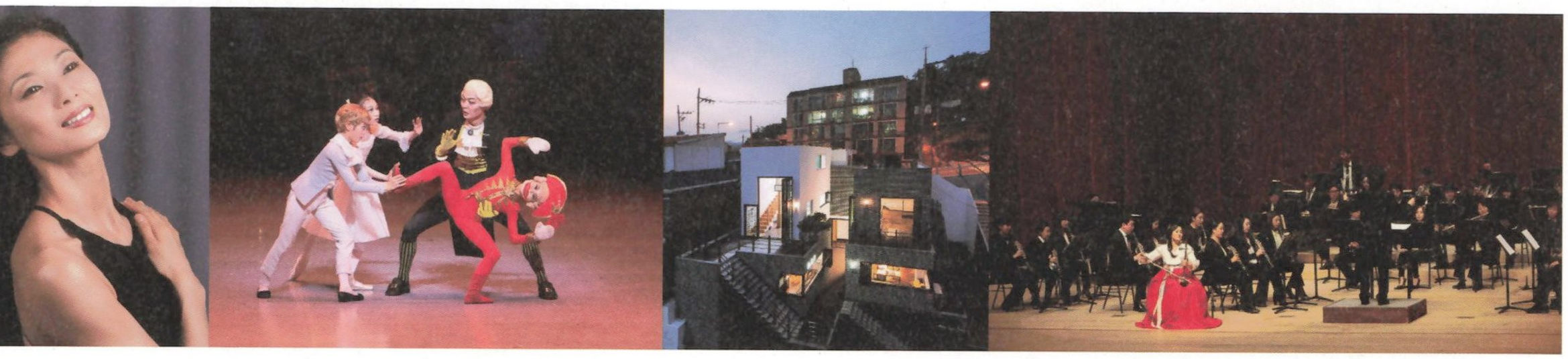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공연문의 **607-3105**(홍보팀) **607-3143**(공연운영팀) 예매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Contents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10 커버스토리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 12월 공연 캘린더

14 반갑습니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자연주의 속에 쌓아올린 사실주의의 미학-모리스 삐알라
Maurice Pialat, '반 고흐Van Gogh'_전은정

20 불멸의 거장 – 변박④
동래의 화가 변박,
휘어진 가지 끝에 매화꽃이 피다_강남주

22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Archi-Calli-Tonic
건축, 아름다움, 기술_강기표

24 우리는 문화가족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

26 테마가 있는 여행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Boards Inside+

32 프리뷰

39 리 뷰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60 새로 나온 책

61 새로 나온 음반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5년 12월호 통권 288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11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66, 607-310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 발레의 걸작 '호두까기인형'이 12월 국립발레단과 함께 부산을 찾는다.

오는 12월 11일과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만나는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발레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크리스마스 전날, 호두까기인형을 선물 받은 주인공 소녀 '마리'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낭만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1891년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을 각색,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콥스키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이듬해인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후 1세기를 넘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로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2000년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을 국내 초연한 후 지금까지 동일한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을 무대에 올려왔다. 볼쇼이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33년간 볼쇼이발레단을 이끈 발레계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로, 어린이들을 타킷으로 하는 원작 '호두까기인형'에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난도 발레연출과 탁월한 해석을 더하여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발레로 재탄생시켰다.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고전발레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스토리텔링 강화에 역점을 두어 원작인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이 발레로 각색되면서 생략되었던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설정과 묘사를 원작에 기초해 부활시켰다. 마리우스 프티파 이후로 '클라라'로 불리었던 주인공 소녀의 이름을 원작과 동일한 '마리 스탈바움'으로, 마리의 아버지 스탈바움의 직업을 의사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마리에게 호두까기인형을 선물하는 '드로셀마이어'의 직업을 법률가로 재설정하는 등 다양한 설정과 장치들을 통해 극의 개연성을 부여했다.

특히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원작 발레에서는 평면적인 인물로 묘사된 마리의 큰아버지 드로셀마이어를 극을 이끌어가는 화자로 설정, 주인공 마리와 관객들을 '스타바움' 가족의 거실에서 눈송이 나라, 해저 나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랜드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맡긴다.

또한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무대예술의 특징을 살린 자신만의 독특한 설정을 통해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도 차별성을 두고 있다. 다른 버전과 달리 무용수가 직접 '호두까기인형'을 연기하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은 현실 속 호두까기인형에서 꿈속의 살아움직이는 호두까기인형, 그리고 마리와의 사랑을 완성하는 왕자로의 3단 변신을 통해 극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안무기법에서도 무용수를 무대 장치의 일부로 적극 활용하면서 2차원의 무대를 입체적으로 탈바꿈시키는가 하면 역동적인 춤을 선호하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현란한 회전과 도약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11일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리회와 솔리스트 정영재가, 12일에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국립발레단 부설아카데미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객원수석무용수 김현웅이 마리와 왕자로 호흡을 맞춘다.

지난해 발레 '라 바야데르'로 부산을 찾은 지 2년여만에 다시 '호두까기인형'으로 부산을 찾는 국립발레단은 지난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발레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무용수들의 기량 및 수준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네오클래식 발레, 모던 발레까지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며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온 국립발레단은 특히 지난해 2월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해온 강수진 예술감독을 수장으로 맞아 세계적인 발레단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12

2015 DECEMBER

CULTURAL SCHEDULE

청정 海 부산

SUNDAY	MONDAY	TUESDAY
		1
		소 조희규 해금 독주회 19:00 무료/조희규(010-7740-4199)
6	**7**	**8**
중 위드스트링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위드스트링앙상블(010-7565-0280) 소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010-6507-4929)	대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3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9:30 초대(KNN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KNN(1800-2575) 중 육은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 육은화(010-5661-3086) 소 정신혜무용단 프로젝트 2015 '춤·세대공감' 19:30 정신혜무용단(999-6286)	중 님비곰비 성교육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 10:15, 11:20 균일 1만 5천원 극단 님비곰비(02-882-9001) 소 정신혜무용단 프로젝트 2015 '춤·세대공감' 19:30 정신혜무용단(999-6286)
13	**14**	**15**
중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단장 정원영(010-3870-9706)	중 CTS 부산방송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20:00 초대/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010-7900-2010)	대 부산시립무용단 2015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중 KAWAI와 함께하는 초청연주회 19:30 초대/조혜영(010-8515-2525)
20	**21**	**22**
대 부산시립무용단 교류공연 '춤으로 갈무리하다' 17:0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중 영어뮤지컬 '신데렐라' 16:00, 19:30 균일 2만원 꿈꾸는아이(010-7503-6564)	대 2015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20:00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 중 제4회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양라윤(010-3863-1300) 소 한영길 제3회 대금 독주회 19:30 무료/한영길(010-3863-1028)	대 쥬빌리콰르텟과 함께하는 프리바이올린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 프리바이올린앙상블(010-6773-6772)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의 기적'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6, 3105) 소 김명희의 세번째 거문고 '금향' 19:30 초대/김명희(010-8987-4884)
27	**28**	**29**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오케스트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2만원 UKO오케스트라(010-3863-3087) 중 2015 클릭비 콘서트 '7-3=7' 18:00 R석 9만 9천원·S석 8만 8천원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02-541-7110) 소 소녀들의 피리이야기 19:00 무료/여은혜(010-7197-8515)	중 2015 김복선 발레공연 19:30 균일1만원/김복선(200-7823)	대 부산다이나믹 심포닉밴드 2015 송년콘서트 '부산청년이여 일어나라' 19:30 무료/부산문화회관(607-3107) 중 CTS부산방송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CTS부산방송(784-9988) 소 메디코러스 제3회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19:30 초대/우리아트(920-9545)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부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ben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4**	**5**
중 ArtTalk Concert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서승우(010-5559-9120)	중 제1회 부산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시민합창단(200-1760)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5 풍류 12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54, 3107)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오페라 '마술피리' 19:30 R석 10만원·S석 8만원 A석 6만원·B석 4만원·C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중 2015 좋은이웃 콘서트 '굿네이버스 사진관' 19:30 균일 8천원/(사)굿네이버스(711-5670) 소 2015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축제 11: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3~4)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오페라 '마술피리' 17:00 R석 10만원·S석 8만원 A석 6만원·B석 4만원·C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중 겨울나그네-배신 & 고통 & 방황 그리고 희망 17:00 균일2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9	**10**	**11**	**12**
중 제31회 장정윤 현대무용공연 19:30 초대/장정윤(200-7822)	소 프로젝트 앙상블 아베크 19:30 균일 2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9만원·7만원·5만원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Ⅳ 11시에 만나요! '리골레토'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 3106) 소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박종화 건반 위의 이야기' 11:00 균일 2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5:00 9만원·7만원·5만원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선한아버지합창단 창단연주회 '만남' 17:00 초대/김석중(010-3779-9188)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16	**17**	**18**	**19**
대 부산시립무용단 2015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10:3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대 2015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461-4434~8) 중 제5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19:00 무료/김강규(010-8496-0691) 소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1:00(학생단체관람),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BS Singers 창단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우리아트(920-9545) 소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1:00(학생단체관람),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Constant Innovation Wind Orchestra 창단연주회 19:30 무료/박정우(010-4901-2141) 소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1:00(학생단체관람),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	대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7:00 3만원·2만원·1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중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8:00 무료/(사)희망을여는사람들(554-0832)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3	**24**	**25**	**26**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3, 3105)	소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20:00 2만원·1만원/무대공감(623-0678)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7080 콘서트' 19:00 5만원·4만·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6065) 소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16:00, 20:00 2만원·1만원/무대공감(623-0678)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이탈리아' 11:00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 BSO(621-4577) 중 2015 클릭비 콘서트 '7-3=7' 18:00 R석 9만 9천원·S석 8만 8천원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02-541-7110) 소 토요상설무대 K-Dance Company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30	**31**		
중 이지댄스 광복 Showcase 18:30 무료/이지댄스광복(256-9995) 소 김경옥 힐링무용 '눈 속에 핀 꽃' 19:30 균일 1만원/김경옥(010-4996-2133)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제야음악회' 22: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3100)	**전시실** 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 대·중전시실 12월 5일(토)-12월 12일(토) ※12월 8일 작품 교체로 관람불가 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제18회 대한서화예술대전 – 대·중전시실 12월 19일(토)-12월 21일(월) ※12월 19일 12:00 전시오픈 석현석(010-3878-5478) 이철수 대종경 판화전 – 대전시실 12월 24일(목)-12월 31일(목) ※12월 24일 15:30 전시오픈 원음방송(241-1047)	**국제회의장**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및 장기요양인대회 12월 8일(화) 오후 1:30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1544-3234) 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시상식 12월 12일(토) 오후 1:00 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제18회 대한서화예술대전 시상식 12월 19일 오후 2:00 석현석(010-3878-5478)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국 국제회의장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한국 발레를 세계에 알린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국립발레단과 함께 12월 부산을 찾는다. 1985년 스위스 로잔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강수진은 1987년 동양인으로는 최초이자 최연소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며 화제를 모았다. 강수진은 이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1994년부터는 솔리스트로, 1997년에는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세계 무대를 누볐고 1999년에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며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제7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취임, 국내 발레 발전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는 강수진 감독. 12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앞두고 지면을 통해 그와의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Copyright © Roman Novitzky

+ 2014년 2월 라 바야데르 이후 오랜만에 갖는 부산문화회관 공연 소감?

2014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공연이 이곳 부산이었네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름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오랜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오랜만이 아니라 엊그제 일인 것 같아요.(웃음) 그만큼 2년 동안 국립발레단이 열심히 보냈다는 것이겠죠? 항상 발전하는 국립발레단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 2014년 국립발레단과 고국 활동성과를 꼽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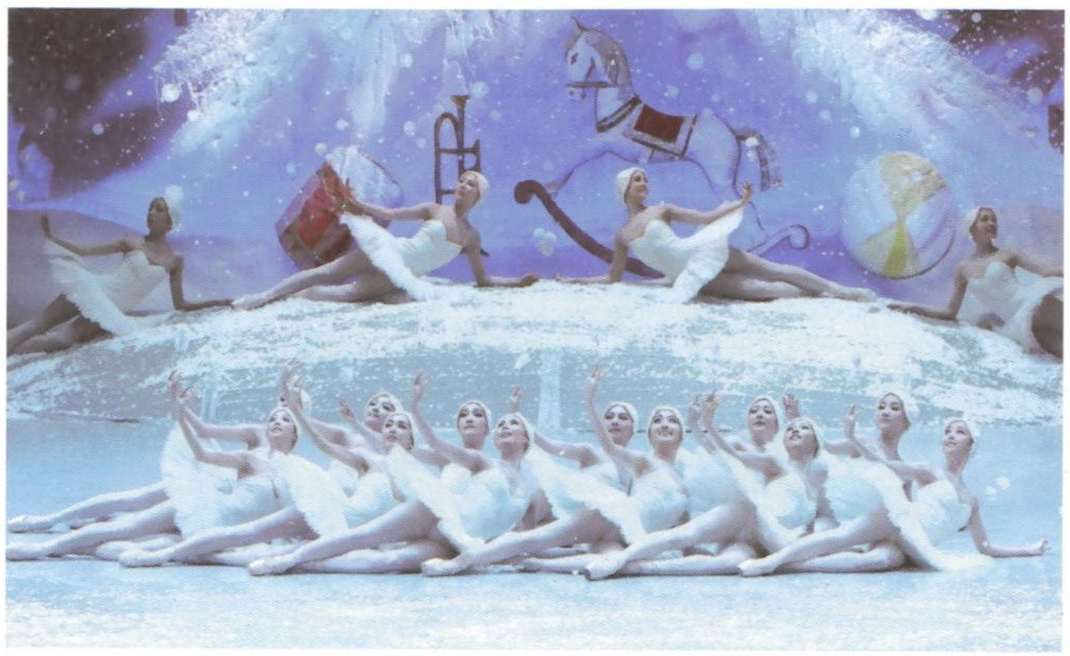
제 좌우명 있잖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자!'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 한국에서 공연이 있었죠. 이제는 발레리나로서만이 아닌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느 공연보다 연습한 시간을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여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서 연습했습니다. 연습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집중력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 지난 2년간 국립발레단의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사람들은 그 변화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술은 숫자로는 말할 수 없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만큼 개개인들도, 단체도 발전했습니다.

+ 그동안 숙제처럼 남아있는 화두 같은 작품?

특별히 잘 맞는 작품이라기 보단 저의 은퇴 무대에 가장 잘 맞는 작품은 알아요. 얼마 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올려졌던 '오네긴'이 그 작품이에요. 다른 발레리나에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은퇴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 2016년 7월 22일, 입단 30돌을 맞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은퇴 후 계획?

저의 인생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루를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도 은퇴 후 계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저희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예술감독직을 수락했고 은퇴 이후에도 후학 양성에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웃음)

+ 제2의 강수진을 꿈꾸는 후배,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계획한 일을 반드시 실천하고 그렇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 국립발레단의 이번 호두까기인형의 특징과 감상 포인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에서는 목각인형이 출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호두까기인형 역할을 하면서 인형이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숨어있는 재미를 알려드리면, 1막에 마리의 손에 들고 나오는 인형들을 잘 살펴보세요.(웃음) 2막에 펼쳐지는 세계 인형춤을 보면서 살짝 웃음을 짓게 되실 겁니다.

발레리나로서 드물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발레의 자존심 강수진 예술감독. 현역에서는 은퇴하지만 국립발레단 단장이라는 중책은 또 다시 그를 단련시킨다. 스태프와 일하며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낀다는 강수진 단장이 만들어가는 한국 발레, 국립발레단이 궁금해진다.

자연주의 속에 쌓아 올린 사실주의의 미학

모리스 삐알라Maurice Pialat, '반 고흐Van Gogh'

글 **전은정** 프랑스 통신원

영화는 태생부터 그 정체성이 묘하다. 영화가 산업이냐 예술이냐라는 케케묵은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가 탄생된 19세기 후반은 전통적 회화양식의 틀을 깨고 세상 바깥으로 캔버스를 들고 나온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카메라'라는 기계로 인해 태어난 기술발전의 산물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예술적 시도에 박차를 가하게 해줌으로써 예술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늦게 태어난 영화는 선배 예술들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끌어들여 문학을, 미술을, 음악을, 연극을 체화시키고 자기번식을 반복한다. 그래서 영화는 제7의 예술로서 종합예술이라는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거칠게 말해 영화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꾸준히 이야기와 이미지를 찾는 영화에게 예술가의 삶은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다가왔다. 특히 미술사의 획을 긋는 천재적인 화가들의 삶은 영화에게는 화수분 같은 존재다. 재현의 문제는 감독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 이미지와 함께 다가간다.

스크린에서 재현된 대표적인 화가로는 열정과 광기로 상징되는 반 고흐의 삶이 있다. 알랭 레네는 초기작 다큐멘터리 '반 고흐'를 통해 고흐의 그림을 새로운 영화형식으로 표현했고 헐리우드 멜로드라마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빈센트 미넬리도 반 고흐를 지나치지 못했다. 로브트 알트만 또한 고흐와 동생 테오의 관계를 스크린에 옮겨 놓았다. 물론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의 '꿈'도 빼 놓을

❶ 19세기 오베르 쉬르우와즈 역
❷ 고흐와 마그리뜨의 식사
(사진 1, 2 뤼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들 중 '열차의 도착' '공장을 나서며' '식사시간'에 대한 오마주)
❸ '죽음'에 대한 징후는 영화 초반부에서 부터 암시된다. 가셰의사에게 진료 받는 고흐

순 없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프랑스 영화계의 반항아 모리스 삐알라의 '반 고흐'가 있다. 이들 모두 영화사의 걸작으로 회자되지만 모리스 삐알라의 '반 고흐'만큼 천재라는 극적인 화가보다는 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영화사에서 모리스 삐알라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유수한 영화상(장 비고상, 루이 들뤼 그리고 깐느)을 수상하고 1960년대를 누비던 누벨 바그와 동시대를 보냈지만 그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독창적인 영화행보를 고수했다. 1925년 생인 모리스 삐알라는 프랑스 근현대사의 말 그대로, 격동기를 살아 온 사람이다. 청소년기엔 나찌의 하수인 비쉬정권을 거치고 청년기에는 프랑스의 원죄인 알제리 독립전쟁을 겪었으며 현 프랑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968년 5월 혁명 당시 그는 43세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입양아를 그린 첫 장편영화 '벌거벗은 어린시절'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감독자신의 모습과 함께 1968년의 사회적 분위기가 녹아들어 있다.

35여년의 영화인생 동안 10편의 장편과 한 편의 텔레비전 시리즈를 만든 모리스 삐알라는 다작 감독은 아니다. 화가로 활동하다 43세라는 늦은 나이에 영화에 발을 디딘 삐알라의 행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편 데뷔 이전 십여 편의 단편작업을 했으며 1965년에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 '반 고흐'는 삼십여 년 후 다시 고흐의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였다.

그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과의 싸움이며 인간과 화해할 수 없는 잔혹한 사회와의 단절이다. 그 스스로 상업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도 편협적인 사회적 가치와 제약에서 끊임없이 이탈을 꿈꾸는 모습은 모순적이지만 그 점이 바로 감성과 이성을 오가는 원초적 고민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영화문법과 감성주의를 거부하고 찰나의 진실성과 간결한 이야기로 인간 본성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했다. 그의 영화 속 인물

❹ 권총 자살 시도 후 침대 위에 웅크린 고흐.
태아 형태를 취하고 죽어가는 고흐
❺ 세잔느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마그리뜨 뒤편의 소품
❻ 오베르 쉬르 우와즈 강변 창녀들의 휴식,
쇠라와 르느와르를 연상시킨다.
❼ 테오 아내의 목욕 장면, 드가의 그림과 닮아 있다.

들은 아파하고 사랑하고 무관심하며 저항한다. 잔혹성과 솔직함에 분석의 잣대를 대지 않고 거친 욕망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삐알라의 영화는 자연주의와 맞닿아 있다.

시나리오보다는 현장에서의 즉흥연출과 최적화된 인공적인 연기보다는 비전문 배우를 통한 날 것 같은 감정을 잡아내려는 방식은 삐알라만의 사실주의적 흔적이 보인다(이로 인해 촬영현장에서 삐알라는 스텝, 배우들과의 불화로 유명하다). 작가는 '영화가 촬영되는 그 순간이 리얼리즘의 본체다. 간결하고 솔직한 정서로 순간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91년에 개봉된 '반 고흐'(이후 삐알라는 1995년 '르 가르쉬'를 끝으로 2003년 생을 마감한다)는 그의 영화형식의 정점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삐알라는 그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곁들이지 않은 파란 화폭 위로 뜨는 단순한 제목 '반 고흐'. 관객이 한 영화와 첫 만남을 가질 때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그저 고흐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길 원했던 것이다.

영화 '반 고흐'는 오베르 쉬르 우와즈에서 보낸 화가가 자살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시기는 고흐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두 달여간 70여 점의 작품) 시기로도 유명하지만 삐알라는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삐알라는 고흐라는 한 인간 삶 자체에 더 흥미를 가진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일하는 고흐다. 영화 속의 고흐는 오베르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미 귀를 자른 뒤 오베르를 찾은 고흐지만 영화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감이 묻은 흔한 작업복도, 베레모를 쓰고 괴로워하는 상투적인 고흐는 없다. 아침이면 간단한 식사를 하고 캔버스를 둘러매고 밖으로 나간다. 모두들처럼 그는 그의 노동을 하러 자연으로 나선다. 여기서 고흐의 그림은 영화 속에서 배제된다(만약 이 영화를 통해 고흐 작품의 신비를 엿보려고 했다면 실망할 것이다). '반 고흐'는 그림이 아니기에

Maurice Pialat

❽ 영화 후반부 긴 시간을 할애한 카바레 장면, 로트렉을 연상시킨다.
(사진 6,7,8 화가였던 삐알라의 전적은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영화 속에 재현시킨다.)
❾ 고흐의 뒤로 보이는 농민들
❿ 고흐가 묵고 있는 여인숙 선술집

그의 그림은 미쟝센 속에 숨어있다. 작업의 결과인 그림보다는 일상속의 창작과정이 영화 '반 고흐'를 이루는 주축 중의 하나다.

다른 한 축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한 마을과 사람들의 모습이다. 고흐가 서민들의 일상을 화폭에 옮긴 것과 닮아있다. 고흐 그림 속의 자연과 사람은 영화라는 시간 속에서 재현된다. 창작 하는 고흐의 행위, 여인숙의 작은 선술집에서의 일상적인 대화, 주사위 놀이, 진료받는 모습 그리고 매춘녀 카티와 마그리트와를 오가는 모습… 고흐의 내면적인 심리적 해설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각의 인물들의 응축된 일상의 사연을 보여준다. 어깨를 마주하며 걸으며 자신의 집안은 모두 철도인생이었고 젊은 날을 기차와 함께 보냈다고 말하는 역무원의 삶은 땅에 발을 디딘 민중들의 구체적 모습이다. 삐알라는 고흐가 있는 그 현실적인 시간과 오베르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재화가의 광기와 기행보다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고흐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들은 극적이다. 방에서 면도를 하던 고흐에서 총에 맞은 배를 움켜지고 걸어오는 강가의 고흐로의 장면전환은 연출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 '반 고흐'는 고흐가 죽으면서 끝나지 않는다. 삶은 다시 시작된다. 여인숙은 다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테오는 덤덤하게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고 커피를 마신다. 그 어떤 감정의 강요는 없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이를 하고 여인숙의 바깥에서는 빨래를 하고 일상은 이어진다.

삐알라는 카메라를 붓 삼아 스크린 위에 그림을 그린다. 배경은 화폭이 되고 인물들은 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각자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을 그려내는 것에 충실한다. '영화예술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쟝 르느와르의 말처럼 모리스 삐알라는 '반 고흐'를 통해 때론 이기적이고 때론 두려움 속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꿨던 인간 반 고흐를 그리고 있다.

⓫ 마그리뜨 가셰의 초상화를 그리는 고흐
⓬ 갈대밭 속의 고흐
⓭ 고흐가 바라보는 갈대밭
(사진 9-13 삐알라는 고흐의 그림을 영화 화면으로 재현한다. 고흐가 바라보았던, 같이 숨 쉬었던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동래의 화가 변박,
휘어진 가지 끝에 매화꽃이 피다

글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날이 밝자 멀리 후지산이 보였다. 산의 이마가 하얗다.
천하의 영산이라고 일본인이 자랑하는 후지산은 변박의 미간 사이에서도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절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또한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부스러지고 있었다.

일행은 일찍부터 출발을 서둘렀다. 조엄 정사의 바쁜 마음에 발걸음을 보태기 위해서였다. 사행원들은 앞서 이곳에 머무르며 남겨둔 사행원들의 그림 한 점, 한시 한 편이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음미하고 싶었다. 그러나 변박 또한 서둘러 짐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은 중간에 하마나라고 부르는 호수가에서 잠시 쉬었다. 넓고 아름다운 호수는 키가 낮은 산에 둘러싸여 한 폭의 그림을 빚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들물에는 바닷물이 섞여들어 뱀장어가 많이 잡히는 곳, 이곳의 번주는 사행원이 여기서 쉰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장어요리를 준비하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재, 이렇게 풍광이 명미한 곳에서 시 한 수를 남겨야 하지 않겠소?"

변박의 글씨를 인정한 동료 사행원이 시 한 수 남기기를 은근히 권했다.

"시보다는 그림이 좋겠소만"

변박의 이같은 반응에

"그렇지, 시서화는 원래 한 묶음이니, 화제를 시로 하고 한 폭 남겨 보시구려."

변박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어느덧 주위에서 그를 문사로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치가 좋다고 어느 곳에서나 혼자 남아 전을 펴고 퍼질러 앉을 수는 없었다. 속마음은 은근히 붓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정사의 발걸음 재촉에 일행은 저물기 전 또다시 긴 행렬을 이루며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 수 없었다.
교토에 도착하자 이곳에는 봄이 먼저 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도로 갈 때도 묵었던 큰 절 쇼코쿠지에 들어서자 성질 급한 매화 꽃잎은 이미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날 밤, 쇼코쿠지는 교토의 이름 높은 문사들에게 절 문을 활짝 열었다. 사행원들과 마주 앉은 유서 깊은 도시 교토의 문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사행원들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으려는 듯 유학을 논하기도 했다. 더러는 환자에게 침을 놓는 방법을 열심히 물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한자를 종이에다 쓰면서 서로 소통했다. 일본과 조선이 한자문화권인 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었다.
분위기가 잡히자 변박은 짐 속에다 조심스럽게 접어 넣고 다니던 비단을 한 장 끄집어냈다. 바닥에 문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 그것을 편 뒤 접혀 있는 주름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주욱 폈다. 폭은 한 자 반, 길이는 넉자가 넘을 것 같았다.
변박이 비단을 끄집어내 그것을 바닥에다 펴자 좌중의 몇 명이 변박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가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는 연적에 가득 든 물을 벼루에 붓고 서서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물이 제대로 풀린 것을 확인한 변박은 오른 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세필을 들었다. 보는 사람들은 그가 세이켄지에서처럼 한시를 쓰지는 않을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세필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세필은 세선을 그으며 비단의 삼분의 일 아래쪽에서 주로 움직였다. 곡선이 연달아 이어져 나왔다. 절의 분위기로 봐 매화를 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뜻밖에도 호랑이의 전체 윤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 번의 연묵색 붓질을 잇대자 호랑이의 틀은 발향성과 질감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왼쪽을 흘깃 바라보는 모습과 온몸을 버티고 선 큰 앞발의 줄무늬는 농묵과 담묵이 섞여 생동감이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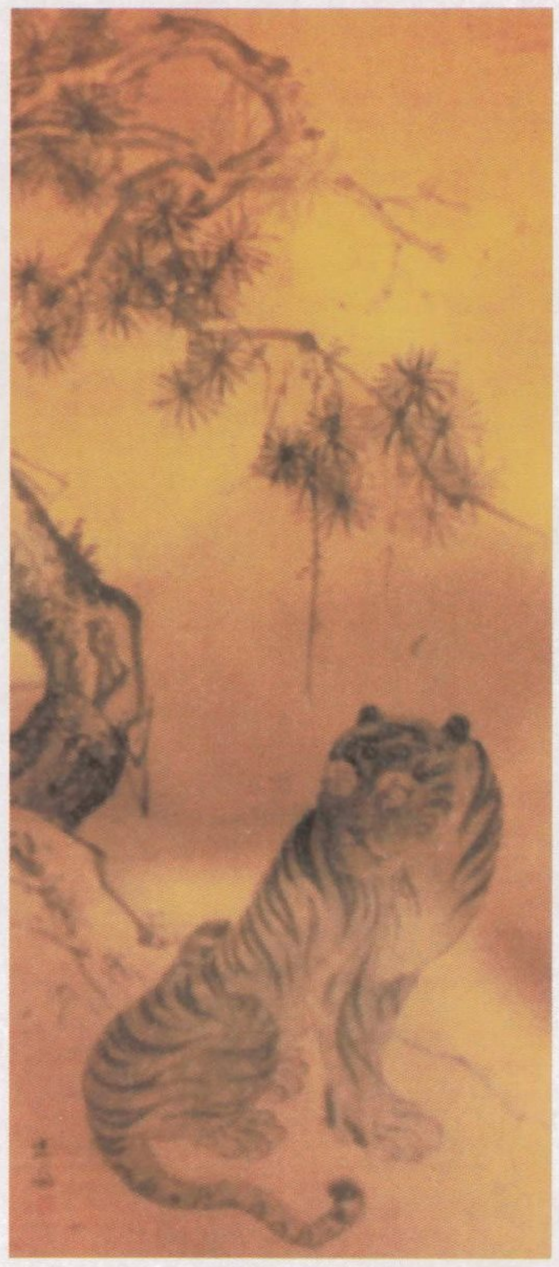
호랑이는 일본에는 없다. 그만큼 낯선 맹수다. 그러나 그 민첩성과 강한 야성 때문에 일본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동물이다. 호랑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깃든다는 말까지 있어 일본인들이 더더욱 좋아하는 그림이다. 그것을 지금 변박이 그리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 몸체를 먼저 그린 뒤 그는 여백에다 소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껍질의 큰 나무덩치는 왼쪽으로 휘어져 그림 밖으로 나갔다. 그 나뭇가지가 비단의 위쪽 빈 공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의 활달한 필체가 속도를 늦추자 자유분방한 화법의 송하호도(松下虎圖)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러나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움직일 줄을 몰랐다.

변박은 이 그림을 윤번승 이텐에게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라며 건넸다. 윤번승이란 쇼코쿠지에서 쓰시마로 파견된 승려를 일컫는 명칭이다. 이텐이라는 윤번승은 조선통신사와 함께 에도까지 동행했다가 다시 쓰시마까지 안내하는 식견이 뛰어난 승려였다. 마음먹고 그린 그의 첫 번째 그림을 일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 윤번승에게 이렇게 준 것이다.

봄이 여름으로 바뀔 무렵 변박은 쓰시마로 되돌아 왔다. 그는 거기서 두 번째로 붓을 들었다. 붓을 든 곳은 에도로 갈 때 머물었던 절 세이잔지였다.

거기서 이번에 그가 끄집어낸 비단은 쇼코쿠지에서 송하호도를 그린 것보다 조금 작았다. 그의 붓은 그 비단 위에서 바빴다. 쇼코쿠지에서 본 매화를 세이잔지에서 꽃피우기 위해서였다.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대나무도 매화나무 아랫도리에다 깔았다. 그림의 바른쪽 위 빈 곳에는 김종직(金宗直)의 시 한 수를 썼다.



변박作 송하호도(松下虎圖)
1764년 종이에 담채 123.3x54.5
오사카 역사박물관 신기수 컬렉션

변박作 묵매도(墨梅圖)
1764년 비단에 수묵 108.0x34.6
부산박물관

雪裏寒梅雨後山
(설리한매우후산)-눈 속의 찬 매화와 비온 뒤의 산 경치
看時容易畵時難
(간시용이화시난)-구경하긴 쉬우나 그리기는 어렵네
早知不入時人難
(조지불입시인난)-진작 사람 눈에 들지 않을 줄 알았으니
多買臙脂酉牧丹
(다매연지유모란)-모란 꽃봉오리나 연지칠 덤뿍해 곱게 그리리

끝행을 살짝 바꿔 쓴 뒤 오른쪽 아래에다 '갑신년 여름 술재가 그리다'라고 적은 뒤 붉은 색 낙관을 눌렀다. 그가 맘먹고 일본에서 그린 두 번째 그림이었다.

Archi Calli Tonic -건축, 아름다움, 기술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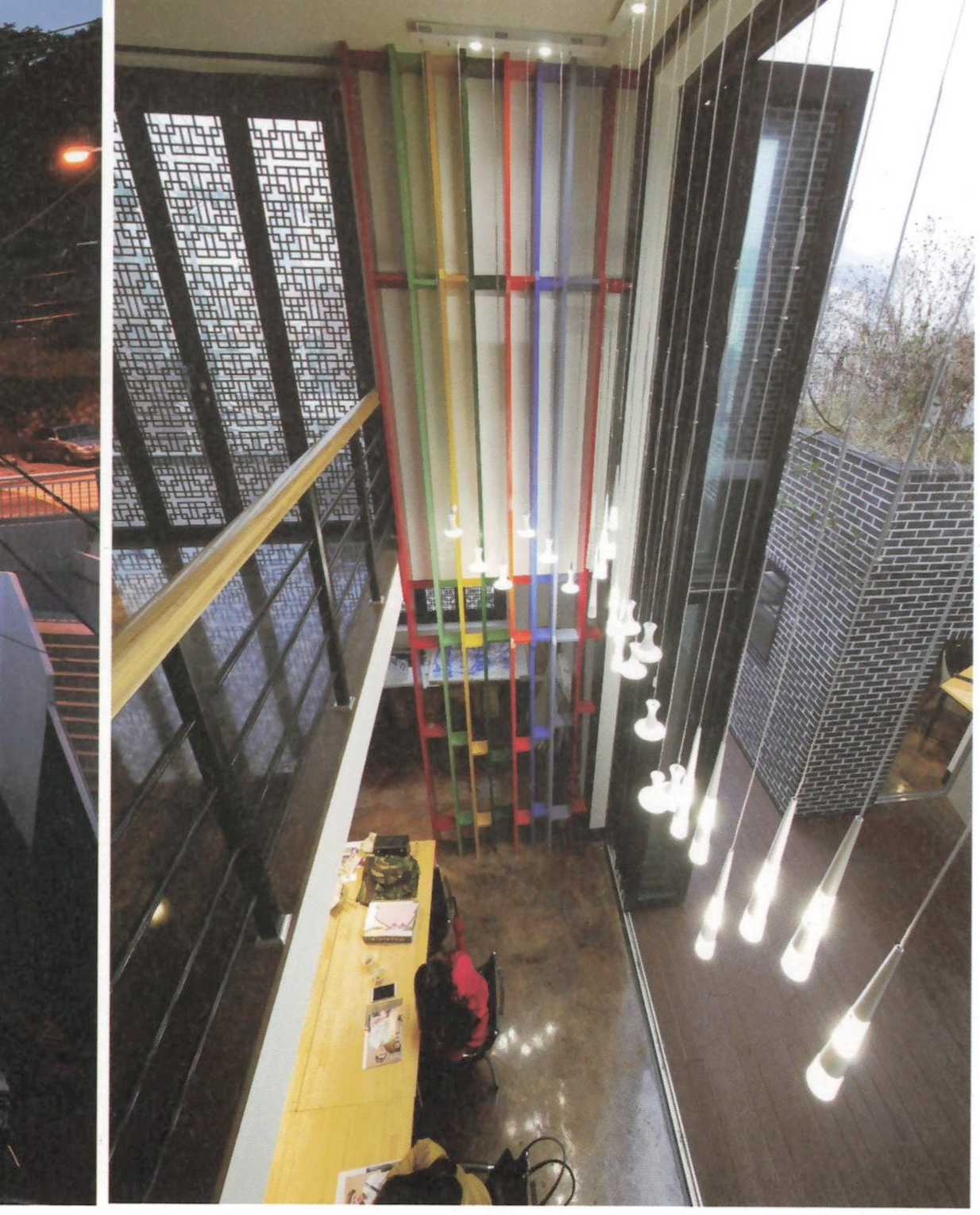
서면과 문현동이 내려다보이는 전포동의 산복도로 아래 경사가 급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키-캘리-토닉'은 건축과 디자인을 위한 단체의 사옥이자 단체의 이름이다. 전포동(田浦洞)의 지명 유래는 황령산 자락에 마을과 논밭이 있었는데 갯가에 위치하여 '밭개'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해 전포리(田浦里)라 하였다고 한다. 동쪽으로 황령산을 중심으로 산지가 발달해 있고, 산지의 서쪽 산기슭에서 발원한 소하천이 서쪽으로 흘러 전포천의 상류를 이루며, 남서쪽으로 흘러 동천에 합류한다. 조선 시대에는 황령산 아래 동천 하구까지 배가 정박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하천도 대부분 복개되어 있다. 최근 부전천의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아름다움(Venutas), 용도(Utilitas), 튼튼함(Firmitas)

'아키-캘리-토닉'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건축(建築)은 사전에서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로 풀이 하고 있고, 건물(建物)은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건축과 건물은 서로가 유사한 단어 인듯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이 목적성에 방점을 찍으며 재산적, 산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건축은 가치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트루비우스[1]는 그의 저서 '건축10서'에서 건축의 가치를 아름다움(Venutas), 용도(Utilitas), 튼튼함(Firmitas)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개 건물의 경우 용도와 구조(튼튼함, 안전함)와 재산적 가치를 기본적 자리에 두고 사회적 가치에 등한시하는 게 현실이다. 건축의 가치성 발현은 건축가에게 어려운 숙제이자, 사회와 부딪히는 충돌이기도 하다.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아름다움'은 건축이 갖고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일 것이고, 나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며 그 속에 담기는 삶과 문화가 투영된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아키-캘리-토닉'으로 다시 돌아오면 'Archi'는 라틴어로 우두머리, 기초, 기본이라는 뜻을 가지며 건축을 의미한다. 'Calli'는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다. 'Tonic'은 Tectonic으로 기술적 구축을 의미한다.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건축(Archi)의 가치성(Calli,美)을 기술적(Tonic)으로 구축한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기술적 구축(Tonic)

'아키-캘리-토닉' 건축계획의 기술적 구축(Tonic)을 먼저 살펴보면 대지는 부산의 도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산복도로의 아래 9m의 높이차를 갖고 있다. 지하 1층(지하 2층이 있지만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다), 지상 2층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사무실의 용도로, 1층은 커뮤니티공간으로, 1층의 일부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있다. 9m 아래의 도로에서 접근하면 외부로 노출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오르게 되고, 처음 맞이하는 공간은 중정이다. 중정을 가운데 두고 개방형 사무실과 폐쇄형 사무실로 연결된다. 다시 외부의 계단은 1층의 주택으로 흐르고, 실내의 계단은 1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결된다. 1층의 주택은 실내 계단을 통하여 2층의 주택으로 연결되고 주택의 마당으로 흘러 9m 위의 도로로 나오게 된다. 9m라는 대지의 높이 차이를



사무 공간을 흐르는 동선과 주택을 흐르는 동선을 분리시키며 계획적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도로의 9m높이 옹벽을 건물의 등으로 받치고 있다. 설계자인 유창욱[2]대표(+유의석 건축사,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산복도로의 다양한 지층을 수평과 수직으로 바꾸어 적용해 건축물이 땅에서 차츰 솟아오르는 것 같은 리듬감을 가질 수 있게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성과 현대성(Calli)

한국 주거 건축의 특징은 여럿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마당은 작업 공간이기도 하고,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행사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 옛 분들의 생로병사 이야기가 마당에 한 것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키-캘리-토닉'이 갖고 있는 중정은 우리 옛 마당의 현대적 해석이다. 계단이라는 문을 거치며 들어선 중정은 사무공간과 연결되고, 사무실의 폴딩도어(병풍처럼 접어서 모두 열 수 있는 문)는 개방을 통하여 사무실을 대청으로 바꾸어 주며 중정과 사무공간을 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전통 주거의 대청 위로 걸려 있으며 여름이면 올리고 겨울이면 내리는 문에 의해서 공간의 유연성을 갖듯, 사무공간이라는 용도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를 보이며 행사의 공간, 모임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재료적 특성에서 우리의 전통 전벽돌에서 변화를 보인 검정벽돌과 현대적 재료인 백색의 페인트는 사무공간과 주택공간의 용도적 특성을 내어 보이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 하나 전통 주거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창살에도 있다. '아키-캘리-토닉'의 창에서는 두겹 유리 속에 완자 문양을 넣고 있다. 잊고 있던 창살을 현대적 재료로 전통의 장식성을 살리고 있다.

건축의 사회적 기여 (Archi)

산복도로는 계단의 마을과 같다. 오래전부터 오른쪽으로 오르내리던 계단은 나이든 동네 주민에게는 불편한 계단이었다. 공사와 함께 계단은 보다 안전한 계단으로 정비되었고, 계단과의 사이공간은 건축학도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 의해 주민 쉼터 공간으로 꾸며져 마을의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1층의 사무공간과 연결된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강좌가 열리기도 하고, 젊은 작가들에게는 전시장이 되기도 하며, 작은 사회적 참여의 공간으로 내어 주고 있다. 중정의 한 편의 조그마한 사무실은 대문 옆의 문간방과 같이 마을과 공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고, 지하 1층의 사무공간과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의 층간의 오픈공간은 중정과 사무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서로 이으며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우리의 삶을 담는다. 건축의 가치성 즉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이며, 삶의 질과 문화의 가치를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건축이 늘어남으로써 건강한 건축문화를 위한 뿌리가 튼튼해지길 기대해본다. 뒷이야기 하나, '아키-캘리-토닉'은 '2015 부산다운 건축상'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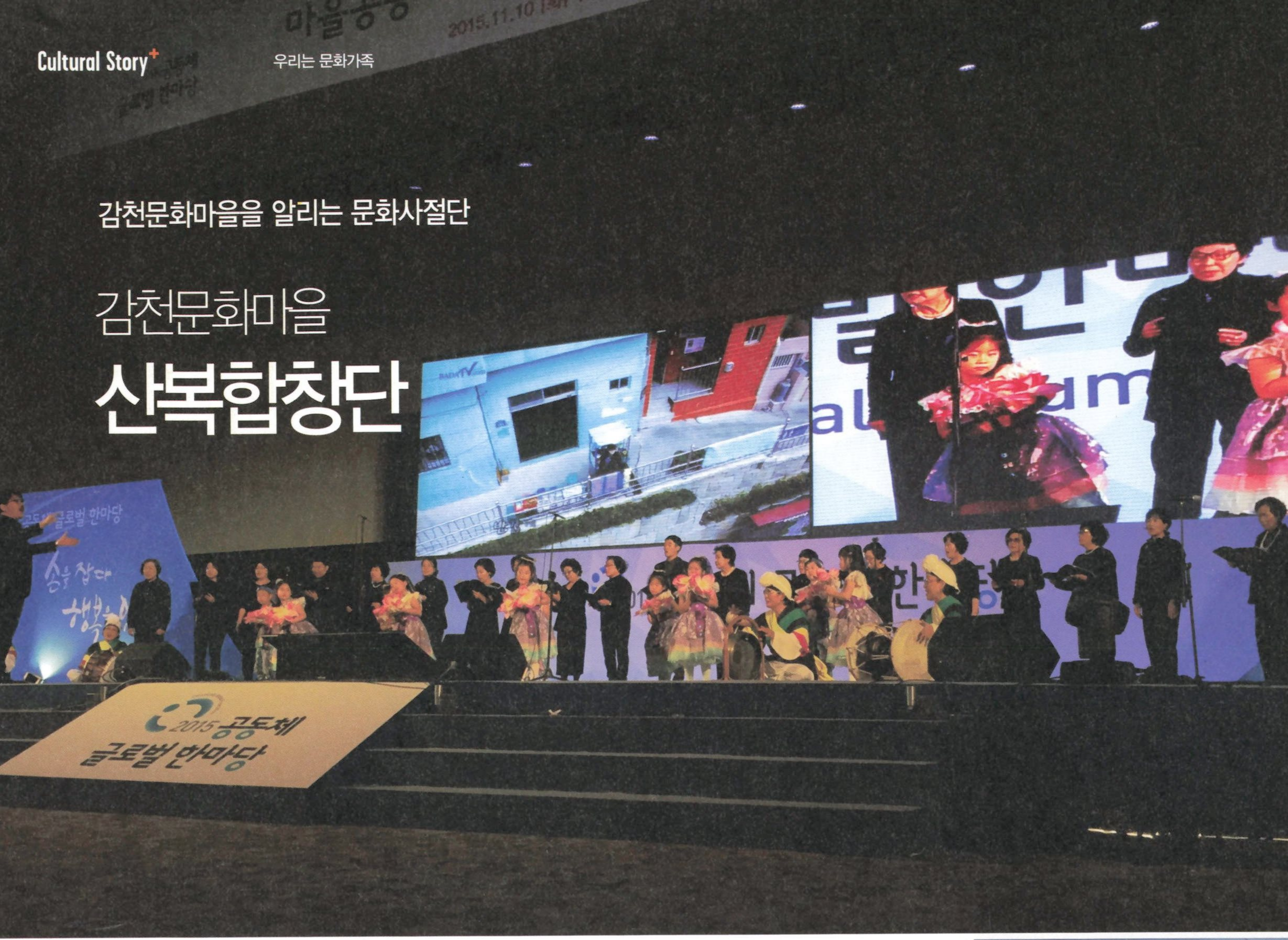
---

1) **비트루비우스 (Marcus Vitruvius polio)**
B.C. 1세기 로마의 건축가이다. 현존하는 고대 유일의 건축 서적 'De Architectura 10권'(건축에 대하여, 보통 '건축 10서'라고 한다)의 저자이다. '건축10서'는 건축기술 이외에 토목, 기예, 조병, 건축, 미학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에는 소멸해 버린 헬레니즘 기의 그리스 건축문헌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건축의 바이블'이라 하여 19세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2) **유창욱 건축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부친인 유의석 건축사와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디자인 활동 그룹인 'Archi-Calli-Tonic'의 대표를 맡고 있고, 동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꿈다락건축학교'의 고등부 총괄위원으로 청소년 건축교육에 큰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경남 김해시 어방동 라파 하우스(Rapha House)가 있다.

감천문화마을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독특한 계단식 주택과 파스텔색 색채,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옛 골목과 정감어린 벽화로 현재는 연간 3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감천문화마을은 특히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주민들과 예술가, 전문가들이 마을의 원형 보존과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면서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도 손꼽히고 있다.

이렇듯 부산을 알리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감천문화마을에는 노래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멋진 화음으로 마을 곳곳에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지역주민들로 결성된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그동안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에는 40여 명의 주민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창단 내에서 가장 최고령인 82세의 송연희 씨를 비롯해 대부분 단원들이 70대의 고령이지만 노래에서의 열정만큼은 여느 합창단에 뒤지지 않는다. 창단 당시에는 남녀혼성 합창단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단원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의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이 자리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열정만큼이나 합창단을 이끌어온 지휘자 김창돈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이자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창돈 씨는 창단 때부터 산복합창단과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합창으로 동고동락해오고 있다. 창단 초기 한 때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잠시 고비를 겪기도 했으나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은 감천문화마을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가진 오디션에 60여 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게다가 열이며 열, 오디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트로트를 멋들어지게 부르셔서 또 한번 놀랐구요."

트로트를 즐겨부르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투르게나마 악보를 보며 화음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절로 뿌듯해진다는 김창돈 지휘자. 연습이 있는 월요일이면 젊은 사람도 오르기 숨가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연습실인 감내어울터로 찾아와주는 어르신들이 고맙기만 하다. 때로는 슈퍼스타 같은 카리스마로, 때로는 막내아들 같은 웃음으로 단원들을 쥐락펴락하는 김창돈 지휘자로 연습시간은 항상 활기가 넘친다.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은 창단 후 그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5월에 열리는 마을 최대축제인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10월에는 사하구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사하예술제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식, 제1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대전) 등에 참여하며 합창단 활동과 더불어 감천문화마을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특히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던 행정자치부 주관 '2015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마을공동체 행복 한마당 우수공동체 자랑대회'에 참가했던 산복합창단은 감천문화마을이 도시형 부문 공동체 대상인 '어울림상'을 받는데 큰 힘이 되기도 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의 이름을 내건 창단연주회를 갖고 싶다는 김창돈 지휘자.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이 감천문화마을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111번째 여정이 펼쳐졌다. 늦가을 정취로 가득한 11월의 테마여행지는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합천.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장래훈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던 비에 아쉬워하던 정기회원 가족들은 창밖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늦가을 정취에 쉽사리 눈길을 떼지 못한다. 2시간 30여분을 달려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법보사찰 해인사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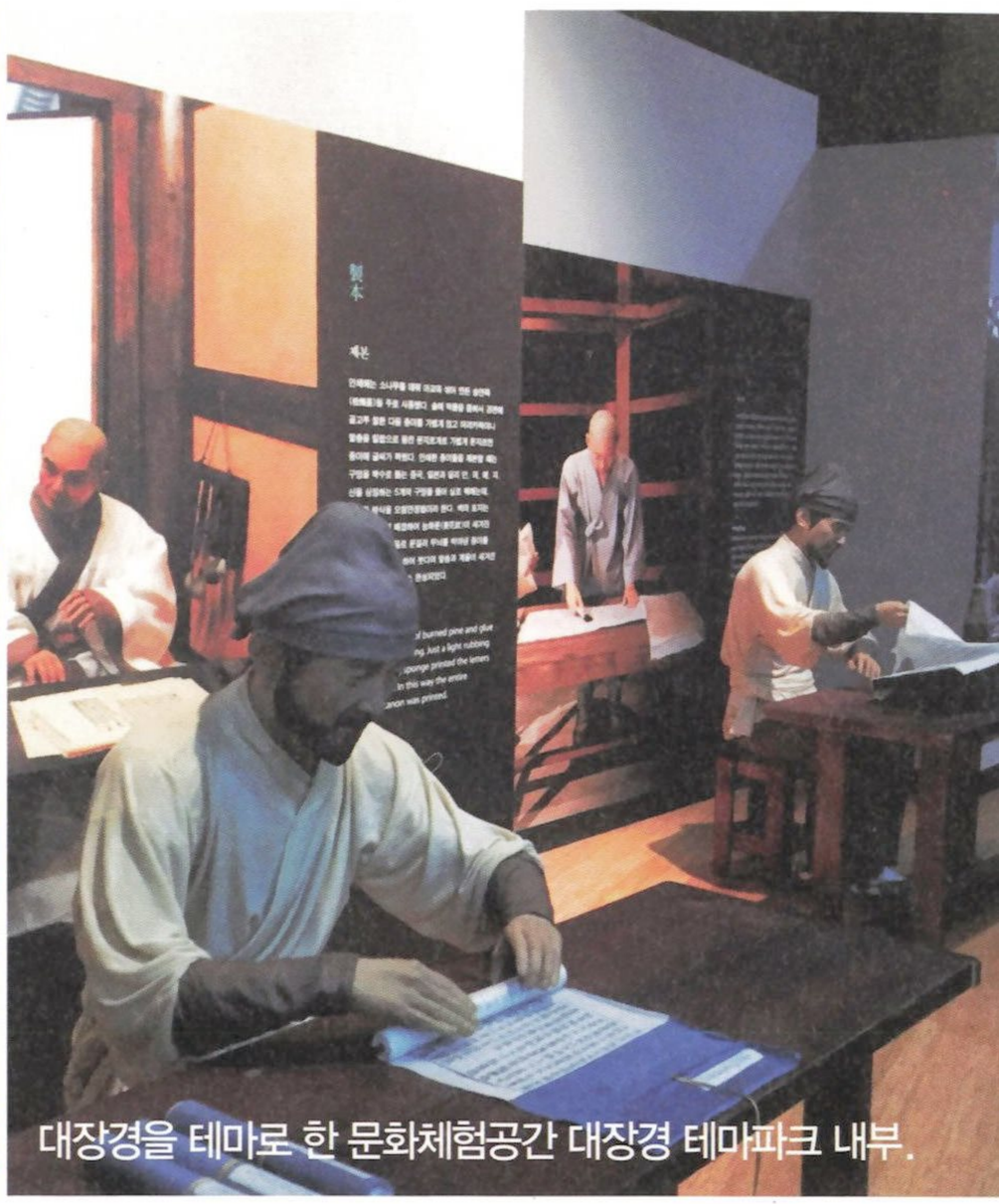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비내리는 평일인지라 사찰 내가 고즈넉하기만 하다. 부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인 봉황문에 들어서자 탱화로 그려진 사천왕상이 회원들을 준엄하게 내려다본다. 험악한 표정의 거대 장승이 서있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탱화로 그려진 것은 사천황이 불에 타 소실되었기 때문. 해인사는 지금까지 7번의 화재가 났는데, 그래서 봉황문 앞에는 불이 나지 말라는 기원을 담은 돌무덤 '염주석'이 자리하고 있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해탈문을 지나 설법을 듣고 공부하는 구광루(九光樓)에 이어 절의 중심인 대웅전 앞에 서자 '대적광전'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창건된 해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다른 사찰과 달리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 한다. 대웅전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해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800년 가까이 대장경판 원형을 잘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쏟아진다.

계속 쏟아지는 비에도 해설사의 설명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그 뒤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 공양시간. 대장경을 품고 있는 장경판전을 돌아 나오는 동안 대웅전에서 사시불공이 끝나고 운 좋게 정기회원들은 사물(四 物:법고, 목어, 운판, 범종) 앞에 모여 법고와 범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인사 공양간에서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소찬으로 점심공양을 마친 회원 가족들은 해인사 입구에 있는 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2년 7월 5일 개관한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1217호로 지정된, 부처님의 설법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고려시대 왕건의 복전(福田)이자 해인사 중창주인 '희랑대사'를 조각한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조선 성종 대에 만들어진 '홍치4년 명동종(보물 제1253호)' 등 소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성보박물관 관람에 이어서는 여행 출발 전부터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해인사 소리길 탐방에 나섰다. 해인사 입구에서 홍류동계곡을 따라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은 특히 붉은 가을 단풍이 장관이라 '흐르는 물조차 붉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계곡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수백년 된 송림 숲 속에서 뿜어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웅장한 바위를 휘감아 도는 청아한 물길과 폭포, 산새 소리와 해인사의 풍경소리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원래는 대장경천년관에서 출발해 해인사를 거쳐 학사대까지 2시간이 소요되는 길이나 비 때문에 회원 가족들은 성보박물관 앞에서 홍류동 매표소에 이르는 30여 분간의 짧은 산책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쉴새없이 내

비내리는 해인사



대장경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공간 대장경 테마파크 내부.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12월은 주남저수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신규 회원

김남련(연제구 과정로)
김동수(남구 신선로)
김은아(남구 전포대로)
류부자(중구 대청로)
박솔지(김해시 분성로)
이성훈(부산진구 성지곡로)
정도연(해운대구 송정동)
정춘옥(남구 천제등로)
최경자(남구 유엔로)
최욱(금정구 두실로)

기존 회원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박미숙(남구 유엔평화로)
손옥주(동래구 동래로)
송준영(남구 장고개로)
유수미(남구 신선로)
윤충현(북구 덕천로)
이명희(남구 수영로)
정미연(부산진구 백양관문로)
한지수(영도구 태종로)

에코투어 후원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리는 비 속에서도 '홍류'의 아름다움을 막을 수 없어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다.

해인사에서의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해인사 입구에 자리한 대장경테마파크. 이곳은 국내 유일의 대장경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공간으로,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해인사와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본격적인 관람에 앞서 대장경빛소리관 앞 광장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장래훈 씨의 지도로 우리춤체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래훈 씨의 흥겨운 장고소리에 맞춰 경쾌한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하루종일 비에 움츠렸던 몸이 가뿐해진다.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에 감탄이 절로 나왔던 5D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을 관람한 후 대장경 조판 이전부터 경전의 전래와 결집,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판전의 숨겨진 신비한 과학에 이르기까지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조명해놓은 전시관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세히 둘러보았다.

대장경 테마파크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늦가을 짧아진 해만큼이나 아쉬웠던 11월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 정기회원 가족들에게는 오랜 가뭄 끝에 내렸던 단비만큼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원작 파울로 코엘료
연출 양지웅

입장료
균일 10,000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문의
607-3107(홍보팀)
607-3148(공연운영팀)

할인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년 (전화예매시)
50% 초·중·고생, 장애우(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전화예매시)

티켓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2015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3회 공연 19:30
12.16수 ~ 12.18금

Cast
이현주 김은옥 엄지영
이혁우 서보기 채민수
이돈희 오희경 이연진
정행심 정으뜸
김은희 고현우
염지선 박아영
황창기 서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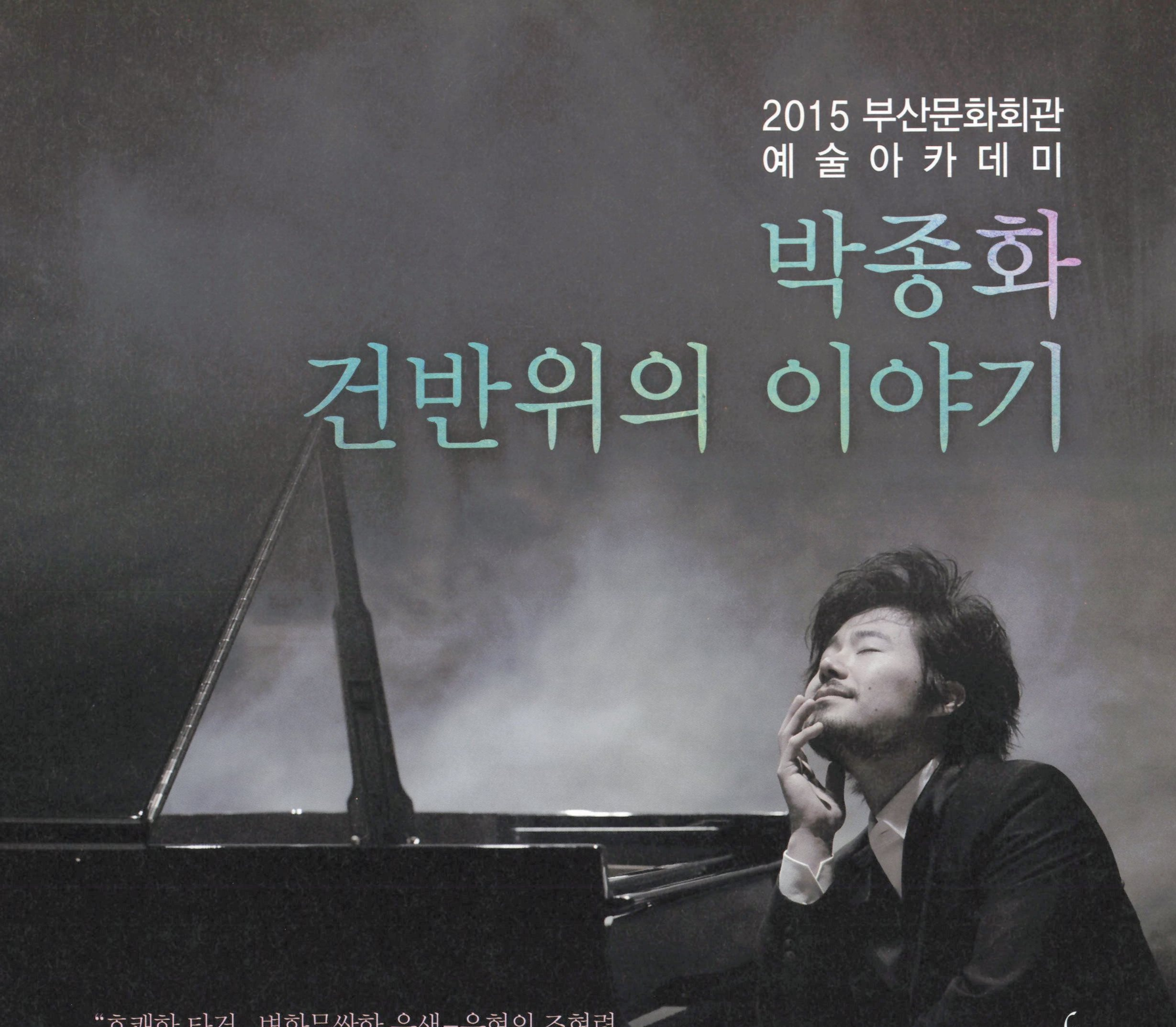
Staff
연출/ 양지웅
무대감독/ 정순지
움직임 연출/ 류현숙
음악감독/ 이영재
조명감독/ 조세현
무대미술/ 황경호
무대제작/ 이안호
무대제작/ 이안호
맵핑/ 박문수
분장/ 공혜경
의상/ 손혜윤
사진/ 손재영
음향오퍼/ 이미소
조명오퍼/ 김선정
조명크루/ 하승윤 김호성
조연출/ 정희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Veronika Decides To Die

2015 부산문화회관
예 술 아 카 데 미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호쾌한 타건, 변화무쌍한 음색-음형의 조형력,
청중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스틱한 기교" - 조선일보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 - 보스턴 글로브
"천둥같이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 스페인 ABC 지

Jonghwa Park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빌라로브스 아기인형 모음곡 외

12.11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0)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 LIFE

32_ 프리뷰
39_ 리뷰
40_ 프로그램 가이드
60_ 새로 나온 책
61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Ⅳ

11시에 만나요!'리골레토'

12.11(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2015년 마지막 무대가 12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3년 첫선을 보인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는 예술 장르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고가의 무대장치를 축소해 관람료를 낮추면서도 오페라 작품 속 주요 장면과 유명 아리아를 하이라이트로 흥미롭게 엮어 작품 전체의 이해와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준다. 올해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품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권력자의 부도덕성과 횡포를 고발한 희곡 '왕의 환락'에 베르디가 깊은 감명을 받아 작곡한 '리골레토'는 벨칸토적 선율미가 넘치는 동시에, 벨칸토 오페라에서 흔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설득력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지휘자 및 음악코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금련의 연출로 소프라노 박수진을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홍지형,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박상진이 출연,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질다를 맡은 소프라노 박수진은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2회 KBS&KEPCO 음악콩쿠르에서 여자성악부문 1위를 수상했다. 조반나 역의 메조소프라노 손혜은은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G. Cantelli 국립음악원, Gian Battista Viotti 고등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Vercelli 시립음악원 오페라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하고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32 concorso Premio Boni에서 입상한 바 있다.

만토바 공작 역의 테너 홍지형은 이탈리아 피아첸차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국제성악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다. 리골레토 역의 바리톤 박대용은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루이지보케리니 성악아카데미 등을 졸업하고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 비엔나국제성악콩쿠르 3위, 프랑코 코렐리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스파라푸칠레 역을 맡은 베이스 박상진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후 러시아로 유학,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만점으로 졸업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상임 솔로이스트로 활동했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2.16(수)–18(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연출 양지웅

부산시립극단이 2015년 마지막 무대로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브라질의 소설가 파올로 코엘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로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극작가이자 연극연출가, 저널리스트,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하며 투박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자신의 내면을 내밀히 탐구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파올로 코엘로는 지금까지 150개 이상 국가에서 1억 6천 5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이다. 지난 1998년 출간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메마른 일상에 빠져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주인공 베로니카가 자살을 시도한 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7일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삶의 소중함을 발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은 지난 10월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에서 극본을 맡아 죽음을 맞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양지웅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연출가 양지웅은 평범하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베로니카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에뒤아르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사회적 통념이라는 벽을 사이에 둔 미친 사람들과 정상인들의 유쾌한 대결을 흥미진지하게 그려내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의미를 되묻는다. 특히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는 '맵핑'을 통해 펼쳐지는 분열과 망상의 판타지는 이번 무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40대 젊은 연출가 중 가장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출가 양지웅은 연출가뿐만 아니라 부산연극제 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한 배우이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에서 희곡상을 수상한 작가로도 활동해온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양지웅은 그동안 극단 미지의 상임연출가로, 사실적이면서도 담백한 작품세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소소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인공 베로니카 역의 김은옥을 비롯해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민수, 이연진, 정으뜸, 고현우, 박아영, 서희정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지금까지 그 어떤 작품보다도 따뜻한 휴먼스토리를 들려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들은 물론 연말을 맞아 공연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맞춤공연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8, 3107

부산MBC 창사 56주년 기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베토벤 합창

12.17(목)-18(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가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송년음악회의 레퍼토리는 박애의 정신과 화합의 메시지를 깊은 감동으로 전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2012년 송년음악회 당시 부산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조기매진, 입석판매로 이어지면서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무대이다.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쉴러의 시 '환희에 붙여'에 곡을 붙인 합창이 4악장에 등장하면서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여졌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됐으나 그 당시 이미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등 뒤에서 일어나는 청중의 환성과 박수를 느끼지 못해 결국은 알토 독창자인 카롤리네 웅어의 주의로 청중석을 향해 인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올해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중국 복건성가무극원 푸젠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송 위엔밍,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위 하오레이, 바리톤 제상철이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한다.

소프라노 송 위엔밍은 2004년 슬로바키아 Schneider-Trnavsky 국제성악콩쿠르, 2007년 독일 Ferruccio Tagliavani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및 베스트 소프라노상, 2009년 오스트리아 Classic Mania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2009년 체코 Antonio Dvorak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 2010년 프랑스 Toulouse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실력파이다.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서울대학교와 뉴욕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수상,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상해 오페라 하우스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위 하오레이는 2015년 상해 스프링국제음악페스티벌 콩쿠르와 제10회 골든벨 성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다. 현재 아르스 노바 남성중창단 예술감독, 연지예술가곡콩쿠르 총감독, 성악아카데미, KAT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제상철은 영남대학교 및 미국 Philadelphia Temple대학교를 졸업하고 James Parkinson, Violetta Dupont Vocal Competition, Pi Kappa Lambda Competition에서 입상한 바 있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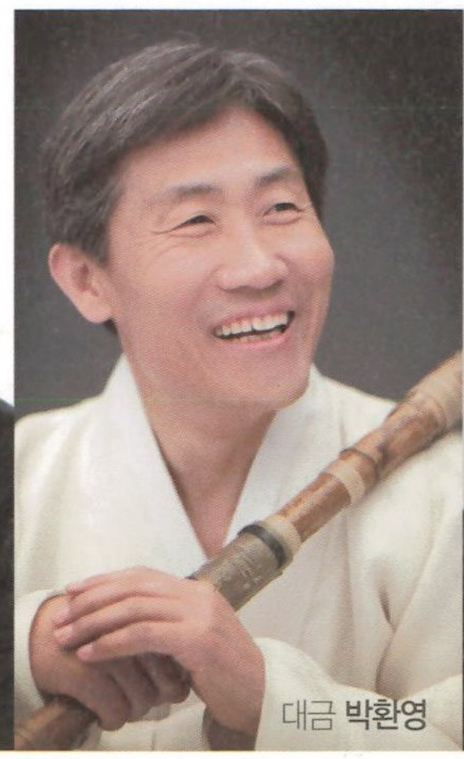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

12. 23(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원지휘 이준호


대금 박환영

해금 안은경

가야금 김선림

소프라노 권성순

201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가 12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무분별하게 밀어닥친 외래문화 홍수 속에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꾸며진다.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지닌 재능있는 음악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가 객원지휘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대금연주자 박환영, KBS국악관현악단 해금 부수석인 안은경,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인 가야금연주자 김선림, 강남뮤지컬단 단장인 소프라노 권성순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의 아쉬움을 멋과 신명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국악으로 달래준다.

지휘자로서 뿐 아니라 작곡가, 대금연주가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객원 지휘자 이준호는 국악 창작곡 외에도 무용, 마당극, 뮤지컬, 국악가요 등 각 분야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예술상, KBS국악대상 작곡상, 국회대중문화&미디어상, 경기도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한 이준호는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도 재직중이다.

이번 송년음악회의 첫 곡은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으로 연다. 북한의 공훈예술가 최성환이 작곡한 '아리랑 환상곡'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풍부하면서도 민족적인 선율이 담겨져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다. 객원지휘자 이준호가 편곡한 두 번째 곡 '이생강류 대금산조와 관현악'은 대금산조 중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45호 대금산조,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로 한국음악앙상블 '풍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박환영의 대금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곱디고운 양반집 규수 같은 능소화의 아름다움을 가야금 선율로 그려낸 이준호 곡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능소화'로 제38회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선림이 협연한다.

우리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곡을 관현악 편성으로 재구성한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비상'에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국제예술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권성순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나 가거든(명성왕후 OST)', '이별가', '아베마리아'를 들려준다. 2015 송년음악회의 마지막은 해금협주곡 '추상'이 장식한다. 타악그룹 '고고앙상블' 동인이자 해금연구회 운영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안은경이 아름다운 해금 선율로 2015년의 마지막 무대를 열어준다.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12. 26(토)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말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2015년 마지막 무대가 12월 26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실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팜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 음악회장을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음악여행지는 바로 이탈리아.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르디를 비롯해 도니제티, 마스카니, 알비노니, 비발디, 폰키엘리, 코트라우의 곡을 들려준다.

이탈리아 속 음악여행을 이끌 지휘자 오충근은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을 들려줄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는 미국 맨하탄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Artist international 콩쿠르 입상, Nimf 국제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 있다. 노스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슬로박챔버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 어메리칸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아카데미심포니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양경아는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다.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탈리아 G.Ross 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스 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등 국제콩쿠르에서 10회 입상한 바 있다. 독일 BONN 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하기도 한 김유섬은 이탈리아 떼르니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바리톤 박대용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쥬셉빼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C.E.D.E.M 국제성악아카데미, 루이지 보케리니 성악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비엔나 국제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레아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많은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온 소프라노 김유섬과 함께 베르디, 도니제티의 오페라 아리아와 이태리 가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O 621-4577, www.bso21.com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오케스트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12. 27(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이하 U.K.O)가 12월 27일 2015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송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친다.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U.K.O의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유섬, 강혜정, 테너 김성진, 이병삼, 이인학, 베이스 전승현이 협연자로 출연해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우리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들려준다.

U.K.O와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서희태는 부산대학교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콘서바토리,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 단원,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다. 현재 놀라온 오케스트라, (사)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희태는 그동안 '2009 김연아 아이스쇼' 지휘자 & '오마주 투 코리아' 음악지휘, tvN '오페라스타 시즌 1, 2' 심사위원, KBS '클래식 오디세이 아하! 클래식' 진행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이리스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마리아 까닐리아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은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a Opera Award,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성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이탈리아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 국립음악원,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제콩쿠르 1위, 파리 국제콩쿠르 2위,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콩쿠르 2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이병삼은 나폴리 카루소 콩쿠르 입상, 이졸레 보로메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창의인성센터 대표로 있는 테너 이인학은 독일에서 활동하다 2004년 귀국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베이스 전승현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베이스 주역으로 데뷔한 후 세계무대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독일정부가 수여하는 예술가들의 최고영예인 '캄머쟁어(궁정가수)' 작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입장료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UKO오케스트라 010-3863-308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제야음악회

12. 31(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5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5년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김경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5년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밝고 경쾌한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음악회의 문을 여는 1부에서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협연으로 서정적인 멜로디로 감동을 주는 존 루터의 '고풍모음곡(Suite Antique)'으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떠나보낸다. 제야의 종소리를 앞두고 함께부르는 '석별의 정'에 이어 시작되는 2부에서는 소프라노 이윤경과 바리톤 송기창의 협연으로 유명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로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2부에 앞서 휴식시간에 마련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미국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맨하탄 뮤직스쿨에서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거장들과 연주활동을 가져온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의 경쾌한 재즈 연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와인과 다과를 즐기며 2016년을 기원하는 소망엽서 적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2015 제야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김경희는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선두주자로,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하고 귀국 후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첫 지휘봉을 잡은 후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음악성과 열정적인 지휘로 지휘자의 입지를 굳혀왔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경희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사)한국지휘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부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은 서울대학교아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5세의 나이에 KBS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입단해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는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 새해를 관객들과 맞는 소프라노 이윤경은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Roma AIDM Arana Academia를 졸업하고 고태국 성악콩쿠르 대상, 한국음협 주최 전국성악콩쿠르 최우수상,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없는 2위, 일본-이탈리아 성악콩쿨 요미우리 신문사상,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소프라노 이윤경과 화음을 맞추는 바리톤 송기창은 가천대학교(구 경원대) 성악과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 쥬세페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 우승,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제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입상, 제1회,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Review

제13회 부산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관·현·국악의 만남

박진홍 음악평론가

2015년 11월 12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 민간 관악밴드인 부산심포닉밴드의 13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그동안 부산심포닉밴드는 부산시민에게 친근하고 흥겹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 무대들을 선사해 왔다. 특히 50여 명의 젊은 관악기 주자들이 뿜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열정이 부산심포닉밴드의 공연을 찾았던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관·현·국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의 1부에서는 윌리엄 텔 서곡, 차르다스, 미켈란젤로 70, 리베르탱고, 단손 2번 등의 외국 곡들이 연주되었고, 2부에서는 무곡 도라지, 해금관 관악을 위한 얼, 그리운 금강산, 매화 타령, 홀로 아리랑, 그리고 제주의 왕자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음악들이 연주되었다.

관객들의 큰 박수와 갈채가 끊이지 않았던 이날 첫 무대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 열었다. 관악 특유의 웅장함과 경쾌함이 특징적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그로 인해 첫

곡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객석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두 번째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가 몬티의 차르다스를 연주하였다. 밴드가 일정한 박자로 진행을 하는 동안 바이올린은 템포를 마음대로 밀고 당겨 연주함으로써 작품이 가진 감정의 표현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 이어서 비올리스트 김가영 교수가 피아졸라의 미켈란젤로 70에 탱고의 정열을 담아 선사했다. 강렬한 탱고의 리듬이 힘 있는 보잉과 리드미컬한 연주자의 움직임에 더해져 더욱 열정적인 무대가 되었다. 이어진 리베르탱고의 연주에서는 임병원 교수와 김가영 교수의 앙상블이 인상적이었는데 템포나 리듬, 다이내믹 등의 여러 부분에서 두 악기의 좋은 호흡을 보여 주었다. 1부 마지막 무대는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이 장식했다. 멕시코의 민속 음악에 바탕을 둔 클래식 곡인 이 작품은 피아졸라의 탱고와 더불어 남미 특유의 매력이 한껏 담긴 곡이다. 클라리넷의 목가적인 솔로로 시작해 타악기와 오보에가 합류하여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이어서 모든 악기들이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다가 빠른 템포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50여 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악기가 된 듯 강렬한 리듬과 흥겨운 선율을 쏟아 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연주는 일순간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분위기를 흥분과 격정 속으로 몰아갔다.

2부 첫 곡으로 강기찬의 무곡 도라지가 연주되었다.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민요인 도라지를 모티브로 작곡한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 부분은 이른 아침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떠오르게 했고, 두 번째 부분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루 또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요로움을 꿈꾸는 농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무대는 해금 연주자 나리가 해금과 관악을 위한 얼과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했다. '얼'은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해금 특유의 음색이 관악합주의 음향을 뚫고 나와 관객들의 가슴을 파들었다. 이어서 경기민요 전수자인 브니엘 예고 3학년 정유정의 노래로 매화 타령과 홀로 아리랑을 연주했다. 연주자의 다소곳한 모습과 맛깔스런 목소리가 우리 음악의 멋스러움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무대였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양방언의 제주의 왕자였다. 우리 민속 장단과 관악 합주의 웅장함이 한데 어우러져 친근하면서도 흥겨운 연주였다. 이 곡을 들으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마치 유럽과 남미를 돌아 서도를 유람하고 경기도를 거쳐 제주까지, 긴 여행을 마치고 아늑한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자가 된 것 같았다.

부산심포닉밴드는 2004년 창단 이후 즐거운 음악, 찾아가는 음악을 추구해 왔으며, 이날 연주 역시 참신한 기획과 흥미로운 페러토리로 많은 관객들에게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객들에게 행복한 음악을 전해 주는 부산심포닉밴드가 되어주길 바란다.

조희규 해금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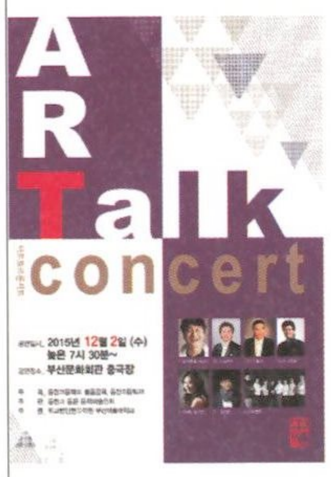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조희규 010-7740-4199

2014 대구국악제 일반부 기악부분 대상, 2014 포항국악제 기악경연대회 금상, 2015 명창 박록수 전국국악대전 관악일반부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해금연주자 조희규 독주회.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희규는 200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0회 청소년협연의 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 2007 조희규 해금독주회, 20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8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2013 대구시립국악단 제1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남도민요 '육자배기', 대풍류, 지영희류 해금산조
- 해설/조태원(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 장단/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대금/한영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아쟁/홍영혜(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피리/지영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상임단원)

ArtTalk Concert

일 시 |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서승우 010-5559-9120



동천고등학교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개교 35주년을 기념하고 평소 공연을 접하기 힘든 후배들을 위해 마련하는 문화행사 'ArtTalk Concert'.
동천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2013년부터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문화공연 선배가 쏜다!' 세 번째 행사로, 지난해까지는 후배들을 위한 공연 단체관람을 진행해오다 지난해 9월 동천고등학교 출신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동천고 동문 문화예술인모임(회장 이칠성)'이 결성되면서 올해 직접 무대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원효를 비롯해 가수 송시현, 바리톤 조현수, 고영호, 테너 이칠성, 모교 밴드동아리 한가람 출신의 박정민, 옥승용, 김종립, 박인국, 한기현, 이승용, 김태정으로 결성된 니나노밴드 등 동천고등학교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 후배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제1회 부산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합창단 200-1760

동아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후 그동안 오페라 전문 합창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던 동아콘서트콰이어가 합창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더욱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지혜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부산시민합창단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처음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동아대학교 김명규 교수의 지휘로 창작합창곡 및 뮤지컬넘버, 가요, 민요 등 다양한 곡을 첼로, 해금 등 다양한 악기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 지휘/김명규(동아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테너 임성규, 곽성민, 바리톤 한정현
  베이스 박상진, 소프라노 양근화, 김아민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15 풍류(風流) 12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54, 3107

시민무용교실을 통하여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2015 풍류(風流)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이번 무대는 우리춤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꾸미는 열정적인 무대로, 풍류 12기 단원들이 3개월간 강습을 통해 갈고 닦은 검무와 꽃장고춤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최의옥이 남무를, 허태성, 황동하가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무용지도/강미향, 김공주(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특별출연/최의옥, 허태성, 황동하(부산시립무용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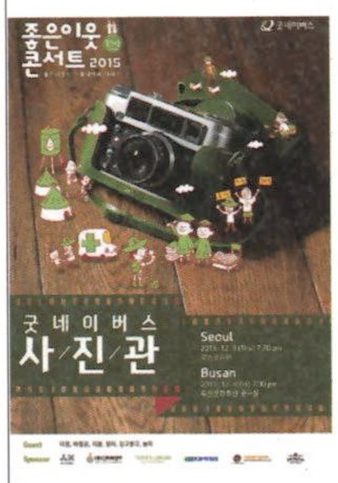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C석 2만원(학생 B, C석에 한해 전화예매 시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섬세한 감각의 국립오페라단 출신 신예연출가 표현진이 연출을 맡은 오페라 '마술피리'.
'부산이 낳은 밤의 여왕' 소프라노 손가슬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박은주 외에도 테너 김병오,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설은경, 테너 문한솔 등 최고의 성악가들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부산문화회관만의 새로운 '마술피리'를 선사한다.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연출/표현진
- 합창지휘/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음악코치/손소향

2015 좋은이웃 콘서트 굿네이버스 사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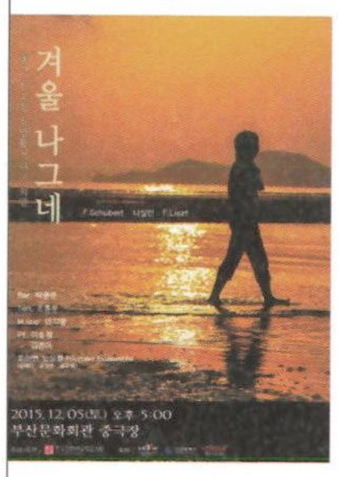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8천원(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접수, 입장료 수익금은 네팔 장기재건 복구비용으로 사용)
문 의 |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부산경남본부
711-5670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NGO인 굿네이버스가 마련하는 2015 좋은이웃 콘서트.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무대는 그동안 굿네이버스를 통해 나눔활동을 펼쳐온 정기회원들을 위한 무대로, 굿네이버스 사업현장 사진전, 토크콘서트, 네팔 긴급구호이야기 영상상영, 초청공연 등이 펼쳐진다.
- 출연/하동균, 키썸, 영지, 길구봉구

겨울나그네
배신&고통&방황 그리고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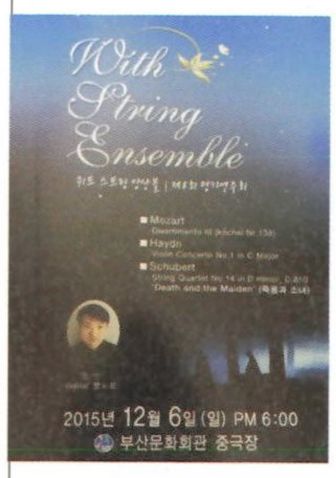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10-2752-9923



독일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를 작곡한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성악과 피아노곡, 기악앙상블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마련한 '겨울나그네'.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가곡 순서가 아닌,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된 원작인 뮐러의 시 순서로 새롭게 구성한 이번 무대는 바리톤 박종준, 테너 조동훈,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피아니스트 이호정, 김경미, 로이멘앙상블(피아노 김경미, 바이올린 금성빈, 플루트 유주영)이 출연, 감정의 다양한 흐름이 엿보이는 '겨울나그네'를 보다 다채로우면서도 풍부한 음색으로 감상할 수 있다.
• 편곡/나실인

위드스트링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6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위드스트링앙상블 010-7565-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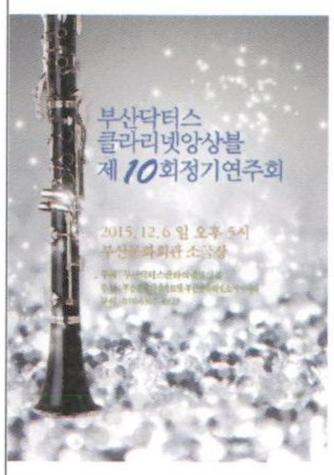


바이올리스트 김성은을 리더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창단된 위드스트링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위드스트링앙상블은 지난 2008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 외에도 아동시설과 모자시설, 병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III(k'o'chel Nr.138)
하이든/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다장조
슈베르트/현악4중주 라단조 D.810 '죽음과 소녀'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명노성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010-6507-4929



지난 2007년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매주 1회의 합주모임을 통해 자기개발과 단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으며 환우, 사회약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음악감독/김태훈 • 트레이너/장일훈
• 출연/고민선, 김경환, 박강우, 우선예, 이현택, 남소현, 곽종일, 이상준(단원), 강경한, 김다솜, 정남기(객원단원)
• 피아노/문성경 • 드럼/송희철
• 협연/테너 엄양기, 첼로 이미성, 양지연

Program Guide >>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3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일 시 | 12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KNN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
문 의 | KNN 1800-2575

강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로, 교육적이면서도 유쾌한 클래식 명곡을 모아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세 번째 무대.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에 빛나는 소프라노 김성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모차르트에 이어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소프라노 김성은

육은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육은화 010-5661-3086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재학 중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국립 훼이 말메종 음악원 피아노 전문연주자과정, 고급연주자 과정, 최고연주자과정과 프랑스 국립 므동 음악원에서 피아노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육은화 귀국 독주회.
프랑스 파리 레오파드 벨랑 콩쿠르에서 2년간 실내악 부문 1위, 프랑스 에피날 콩쿠르에서 실내악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한 육은화는 그동안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다 최근 귀국해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서면서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Pianiste Venue de Paris(파리에서 온 피아니스트)'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베토벤, 프로코피에프 곡에 이어 2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인 뿔랑, 라벨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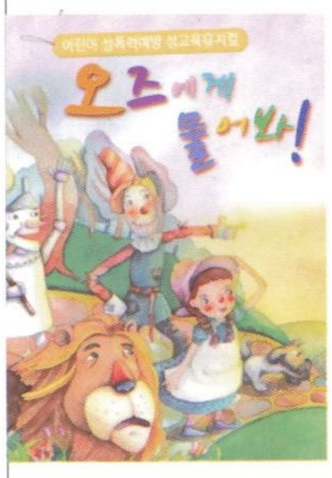
정신혜무용단 프로젝트 2015
춤·世代共感

일 시 | 12월 7일-8일 월-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문 의 | 정신혜무용단(999-6286)

무용가의 인생과 더불어 익어가는 춤의 깊이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정신혜무용단 프로젝트 2015 '춤·世代共感'.
한국 전통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한국춤의 명무 반열에 오른 명인부터 이제 막 전통춤을 습득한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아우르는 춤의 향기를 담는 무대이다.
• 예술감독/정신혜
• 연주/젊은소리 '쟁이'
• 7일 출연/김온경(산조춤), 한혜경(장고춤), 장선희(승무), 정신혜(대감놀이), 김수진(살풀이춤), 권예원(소고춤)
• 8일 출연/김진홍(살풀이춤), 이성훈(동래학춤), 김진원(진도북춤), 백경우(승무), 노기현(탈의고백), 김완수(태평무)

성교육 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15, 11:2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단체예매시 균일 5천원)
문 의 | 극단 님비곰비 02-882-9001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도로시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성교육 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 오즈에서의 멋진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도로시와 친구들, 어느 날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도로시, 궁금한 건 못참는 도로시는 과연 이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 교육적인 내용과 드라마, 참여놀이가 어우러진 교육극 개발에 힘써온 극단 님비곰비가 선보이는 '오즈에게 물어봐!'는 당황해 얼버무리기에 급급했던 성에 관한 지식을 즐거운 노래와 춤을 통해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폭력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 작/이은성 • 연출/정상식
- 출연/서가영, 임보라미, 양동혁, 최윤종 외

제31회 장정윤 현대무용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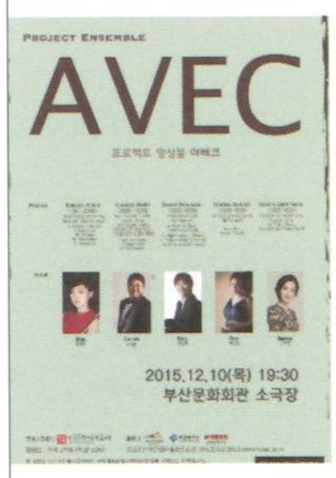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장정윤 200-7822

지난해 9월 '장정윤 무용30년 기념공연'에 이어 또 다른 순수무용의 지평을 열기 위해 마련한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의 제31회 현대무용공연.
지난 1985년 '공간발레의 밤'으로 첫 개인무대를 가진 후 지속적인 순수현대무용의 창작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장정윤은 이번 무대에서 승무의 감각을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신작 '승무 2015'와 머스 커닝햄 원작의 'Fraction'를 재구성한 '파편2' 등 2편의 현대무용을 부산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용수들과 함께 선보인다.

- 안무, 구성/장정윤
- 출연/장정윤, 김영희, 허종원, 강용기, 정기정, 남대우, 허성준, 김소이, 남유진, 박명진, 이새영, 고은경, 한지연

프로젝트 앙상블 아베크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10-2752-9923



플루티스트 장예지, 유지훈, 피아니스트 진승민, 오보이스트 박신영, 소프라노 손호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아베크의 무대.
프랑스어로 '함께'라는 뜻을 지닌 프로젝트 앙상블 '아베크'는 악기와 음악적 색채는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며 오랜 시간 음악과 함께한 추억과 열정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말콤 아놀드/디베르티멘토 작품 37
벨리니/오페라 '카플레티가와 몬테규가' 중 '행복에 겨운 나를 봐요…오! 몇 번인가 눈물에 젖어'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생상/덴마크와 러시아풍의 카프리스 작품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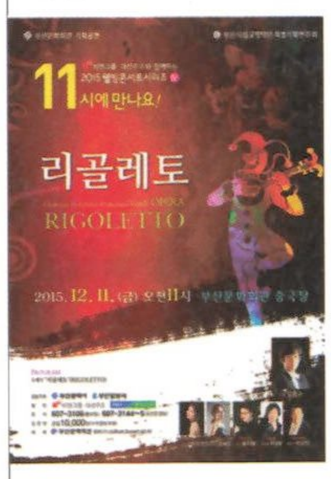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 발레의 걸작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콥스키의 협력으로 탄생한 '호두까기인형'은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발레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33년간 볼쇼이발레단을 이끈 발레계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로,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원작 '호두까기인형'에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난도 발레연출과 탁월한 해석을 더하여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발레로 재탄생됐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Ⅳ
11시에 만나요! '리골레토'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4~5, 3106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마지막 무대 '리골레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권력자의 부도덕성과 횡포를 고발한 희곡 '왕의 환락'에 감명을 받아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리골레토'는 벨칸토적 선율미가 넘치는 동시에, 벨칸토 오페라에서 흔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설득력을 함께 지니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지휘자 및 음악코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금련의 연출, 질다 역의 소프라노 박수진을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홍지형,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박상진이 출연,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박종화 건반 위의 이야기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유쾌한 토크 콘서트 '건반 위의 이야기' 마지막 무대.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 1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5위 입상 및 최우수 연주자상, 루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산타데르 국제피아노 콩쿠르 2위 및 특별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며 강렬한 타건과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종화는 최근 우리나라의 동요와 민요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앨범 '누나야'를 발매해 순회연주를 갖기도 했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제2번
빌라로브스키/아기인형 모음곡 중 1~2곡 등

선한아버지합창단 창단연주회 만남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석중 010-3779-9188

•••

음악을 통해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 땅에 새로운 아버지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창단한 선한아버지합창단(Good Fathers Choir) 창단연주회. 선한아버지합창단은 앞으로 험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격려와 삶에 지친 이들의 고단한 어깨를 위한 아버지의 위로를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노래로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영혼에 햇빛비쳐, 첫눈 오는 날 만나자, 꽃밭에서, 세시봉 메들리, 그대 그리고 나 등

• 지휘/김석중 • 피아노/김지현
• 특별출연/카운터테너 정민호, Brass Ensem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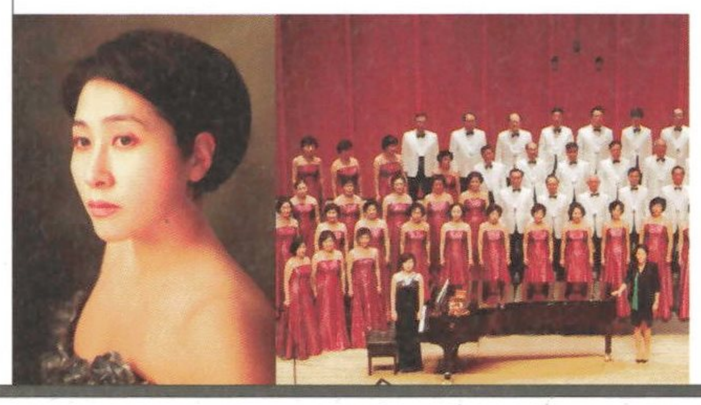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단장 정원영 010-3870-9706

•••

지난 2011년 합창을 사랑하는 60여 명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혼성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지휘자, 신라시니어스콰이어 지휘자, 신라대학교 학점은행 음악학과 성악전공 책임교수로 있는 지휘자 이은정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는 아쉬움을 담아 오케스트라 IREE의 특별연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은정 • 반주/조은지
• 연주/오케스트라 IREE
• 찬조출연/멜로메니아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일 시 |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 010-7900-2010

•••

지난 2004년 부산지역 복음화와 기독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CTS부산방송 소속 예술단인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2012년 4월 창단 예비모임을 가진 후 그해 9월 창단을 알리는 창단예배로 활동을 시작한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은 일대일 레슨과 워크샵으로 개개인의 솔리스트적 역량강화를 통한 남성 특유의 웅장함과 풍성함, 포근함의 자연스런 발성을 강조한 합창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왔다.

• 지휘/최형태 • 피아노/박정호
• 특별출연/매직브라스5중주,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KAWAI와 함께하는 초청연주회

일 시 |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혜영 010-8515-2525

•••

세계적인 피아노 제작사인 일본 가와이(KAWAI)사 후원으로 마련되는 KAWAI와 함께하는 초청연주회. 피아니스트 조혜영, 이진성, 장소은, 배수영, 박선혜, 김소형, 신정운, 정은정, 임성아, 최정윤, 김일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들이 출연해 피아노 솔로 및 듀오 등 다양한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구아스타비노/세개의 아르헨티나 로망스
거쉰/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
생상/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
모차르트/변주곡 다장조
쇼스타코비치/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알베니즈/스페인 조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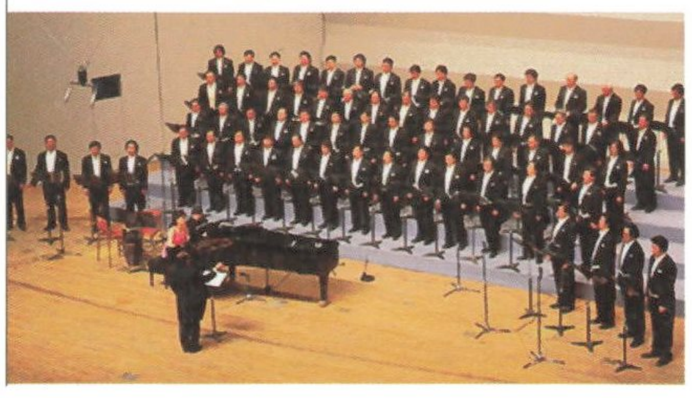
2015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부산일보 문화사업국 461-4434~8

•••

부산,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0여 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5년 무대.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울산시립합창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민인기의 지휘로 가곡과 오페라 합창곡, 성가, 민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지휘/민인기(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 반주/최영민(툴뮤직 소속 아티스트)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일 시 | 12월 16일-18일 수-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8, 3107

•••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극단 미지의 상임연출가 양지웅이 각색과 연출을 맡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메마른 일상에 빠져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주인공 베로니카가 자살을 시도한 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7일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삶의 소중함을 발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연/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민수, 이연진, 정으뜸, 고현우, 박아영, 서희정

부산MBC 창사 56주년 기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기 위한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 복건성가무극원 푸젠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송 위엔밍,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위 하오레이, 바리톤 제상철이 출연, 박애의 정신과 화합의 메시지를 깊은 감동으로 전한다.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실러의 시 '환희에 붙여'에 곡을 붙인 합창이 4악장에 등장하면서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여졌다.

BS Singers 창단음악회

일 시 |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부산지역 대학 음악학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BS Singers 창단음악회.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모임을 가져온 BS Singers는 개인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화음을 맞추는 중창을 통해 함께 음악을 만들고 관객에게 다가가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송년음악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성가,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남성 중창단 특유의 매력적인 앙상블로 들려준다.

- 출연/테너 김주곤, 배병호, 문일환, 김태현, 김현수, 김민우, 베이스 김성동, 김홍섭, 임재우, 소재승, 서정화
- 피아노/정혜정

Constant Innovation Wind Orchestra 창단연주회

일 시 |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정우 010-4901-2141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부산, 경남지역 연주자들로 결성된 Constant Innovation Wind Orchestra(C.I 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발전적인 변화, 성장 속에 음악을 시작하던 초심만큼은 잃지 않고 변함없이 가져나가겠다는 C.I 윈드오케스트라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윈드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라이네케/Rise Of The Firebird
Jacob de Haan/Ross Roy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
마르케즈/단존(Danzón) 제2번 등

- 지휘/박정우
- 협연/오디토리움 색소폰, 피아니스트 박수민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10-2752-9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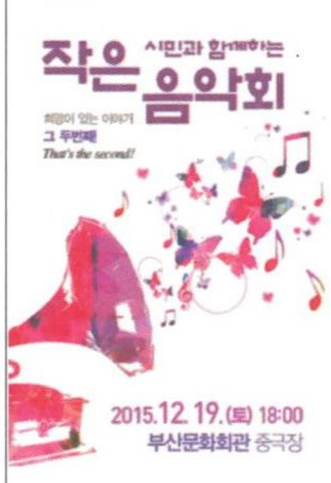
부산 최초의 하모니카 전문 예술단체인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부산 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코리아하모니카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대중적인 악기로만 인식되고 있는 하모니카 연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지난 2014년 부산 최초로 탄생된 하모니카오케스트라인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올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서울하모니카 국제페스티벌 대합주 부문에서 1위와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음악감독, 지휘/박기국
- 특별출연/서울코리아하모니카오케스트라(지휘/신승훈), 소프라노 조영희, 하모니시스트 이예영, 도고주자 김영민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희망이 있는 이야기 그 두 번째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희망을여는사람들 554-0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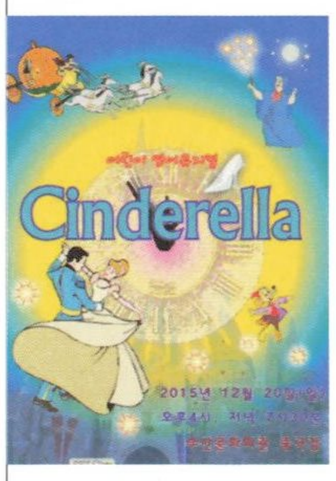


지역사회에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희망을여는사람들이 마련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그동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볼리아앙상블을 통해 직접 소외된 우리이웃을 찾아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꾸준히 열어온 (사)희망을여는사람들은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눴던 사랑과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출연/곽승웅(류트), 리코더앙상블(김진덕, 신미영, 김은정, 이혜경), 임은하(피아노), 박성연, 조준모(바이올린), 정금희(첼로), 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

영어뮤지컬 '신데렐라'

일 시 |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꿈꾸는 아이 010-7503-6564



뮤지컬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각 및 창의력, 자신감을 키우고 영어 노래와 대사를 통해 상황별 실용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극단 '꿈꾸는 아이'가 마련하는 영어뮤지컬 '신데렐라'.
새엄마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상황과 사건으로 전달되는 쉬운 영어로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 총감독/김성경
- 연출/윤은대
- 안무/김성훈
- 출연/박예슬, 박세민, 이재은, 이주은, 김도연, 이수아, 김주희, 박예현, 여금비, 김주원, 김예도, 김예반, 강현재, 이주영

남미문화교류음악회 한·파 5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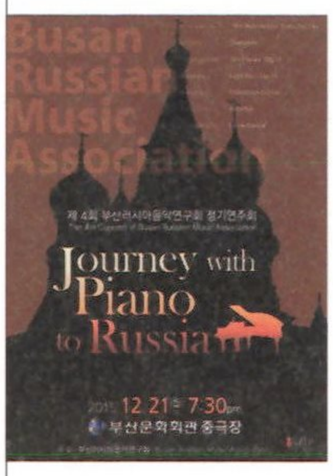
2015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한국과 파라과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문화교류 행사로 마련되는 2015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Luis Szaran를 초청, 아순시온 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및 부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박종휘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상희, 최부경, 가야금연주자 장경미, 바이올리니스트 Sera young 등이 출연, 다양한 연주곡과 함께 남미 전통 클래식을 들려준다.

제4회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라윤 010-3863-1300



러시아 음악에 있어서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 네 번째 정기연주회.
성악, 현악, 피아노 등 러시아에서 음악공부를 마친 연주자들뿐 아니라 러시아 음악에 조예가 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는 지난 2014년 창단 후 러시아 음악의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의 발굴, 보급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러시아음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변소임, 김미연, 정은정, 최진현이 출연, 러시아 작곡가들의 화려한 피아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연주/변소임, 김미연, 정은정, 최진현
- 해설/양라윤

한영길 제3회 대금독주회

일 시 |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영길 010-3863-102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으로 있는 한영길의 세번째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경조, 원장현, 이철주 선생 등 당대 최고 명인들로부터 사사받으며 실력을 쌓아온 부산을 대표하는 대금연주자인 한영길은 제22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실내악단 '산 바다 해' 음악감독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영길은 이번 무대에서 남도음악의 한을 구슬픈 대금소리로 풀어낸 '원장현류 대금산조'와 애절한 남도민요인 육자백이, 흥타령을 대금의 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Program Guide >>

쥬빌리 콰르텟과 함께하는

프리바이올린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프리바이올린앙상블 010-6773-6772

지난 2013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60명의 단원들로 결성된 프리바이올린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리바이올린앙상블은 올해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및 초청연주회, 청소년 음악회, 찾아가는 재능기부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영, 이주은, 비올리스트 이가영, 첼리스트 한미성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 쥬빌리 콰르텟이 함께한다. 2007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후 2009년 단원 전원이 한국으로 귀국, 2009년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실내악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내악 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계' 중 '겨울'(비발디 곡), 현악4중주 제2번 라단조(스메타나 곡), 개선행진곡 & 라데츠키 행진곡, 아리랑, 마법의 성, 크리스마스 메들리 등 수곡

- 단장/장은세
- 음악감독/이주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의 기적'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3+1 가족이벤트로 티켓 3매 구입시 1매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7,3105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마련하는 송년무대 '크리스마스의 기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이태리성악연구회, 아모로제성악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이지은, 프리모앙상블 대표,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테너 임성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우태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성가곡과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최성환/아리랑 환상곡
사라사테/카르멘 환상곡 작품 25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웨버/'레퀴엠' 중 '자비하신 주 예수'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행진곡'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
박지훈/메리 크리스마스 인 러브 등

- 지휘/김범수(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지도/이영옥, 김양자, 노금선
- 협연/소프라노 이지은, 테너 임성규, 바이올린 조우태

김명희의 세번째 거문고 '琴香(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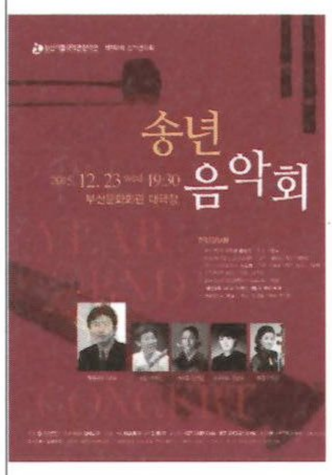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명희 010-8987-488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거문고주자 김명희의 세번째 독주회.
김명희는 현재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거문고악회 회장, 국악연주단 미토리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아사달과 아사녀의 춤과 거문고 '무영탑'(거문고/김명희, 춤/김현숙)
거문고 독주를 위한 '강남곡'(거문고/김명희, 장구/최오성)
거문고 2중주 '유현의 춤'(거문고/김명희, 김수민)
거문고 독주곡 '술대굿'(거문고/김명희, 장구/최오성)
소리와 함께하는 국악실내악 '소리여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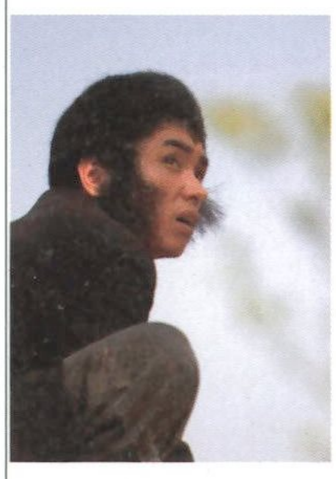


201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지닌 재능있는 음악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가 객원지휘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대금연주자 박환영, KBS국악관현악단 해금 부수석 안은경,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인 가야금연주자 김선림, 강남뮤지컬단 단장인 소프라노 권성순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저물어가는 송년의 아쉬움을 멋과 신명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국악으로 달래준다.

|프로그램|
최성환/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이준호(편곡)/이생강류 대금산조와 관현악
이준호/25현 가야금협주곡 '능소화'
이준호/국악관현악 '비상'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나 가거든(명성황후 ost), 이별가, 아베마리아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 객원지휘/이준호(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박환영(대금), 안은경(해금), 김선림(가야금), 권성순(소프라노)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00, 25일 금요일 오후 4:00, 8: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문 의 | 무대공간 623-0678



카프카 원작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한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아프리카 해안 정글에서 붙잡혀 인간사회로 오게 된 원숭이는 갇혀진 철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시작한다.
인간이 되어 출구를 찾으려는 원숭이 피터는 수년간 인간 흉내와 언어교육으로 인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인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간화'에 대한 보고를 한다. 과연 원숭이 피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부산시립극단 단원을 역임하고 배우이자 연출가, 마임이스트, 무대공감 공연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세진 대표 김세진의 마임과 남산놀이마당의 타악 퍼포먼스, 댄스팀 스텝 크루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다양한 영상작업과 함께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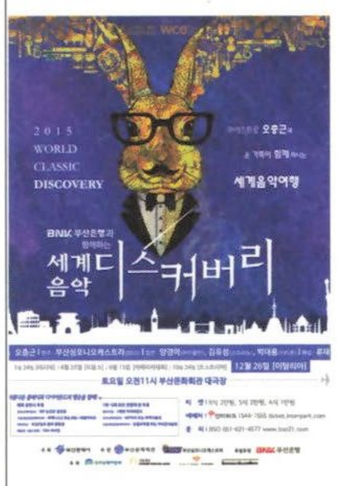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7080 콘서트 – 윤형주, 김세환, 추가열, 남궁옥분

일 시 | 12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6065

부산문화회관이 크리스마스날 선사하는 추억의 음악선물 '2015 7080 콘서트'.
1970년대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마성의 미성' 윤형주와 '쎄시봉의 영원한 오빠' 김세환을 비롯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꿈을 먹는 젊은이',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등을 히트시킨 가수 남궁옥분, 중장년층에게 큰 사랑을 받은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의 추가열이 출연, 추억의 그 시절로 관객들과 함께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O 621-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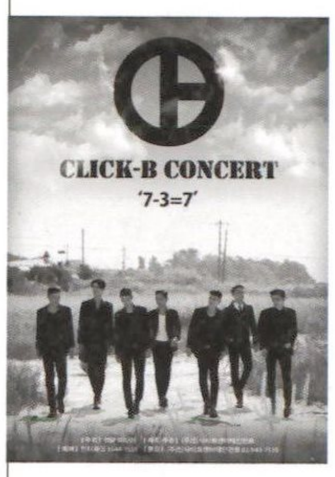


주말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2015년 마지막 무대.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음악여행지는 바로 이탈리아.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의 협연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르디를 비롯해 도니제티, 마스카니, 알비노니, 비발디, 폰키엘리, 코트라우을 통해 이탈리아 속 음악여행을 떠난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2015 클릭비 콘서트 '7-3=7'

일 시 | 12월 26일(토)-12월 27일(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02-541-71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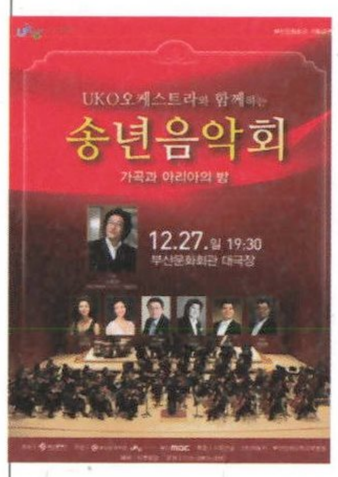
1990년대 '꽃미남 소년 밴드'로 이름을 날렸던 7인조 남성그룹 클릭비가 13년만에 7명의 멤버가 다시 뭉쳐 한무대에 서는 특별한 무대 클릭비 콘서트.
11월 20일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 오픈시 2분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원조 아이돌의 저력을 확인시켰던 클릭비는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멤버들이 컨셉에서부터 기획, 연출까지 직접 참여하며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싱글앨범 'Reborn'을 통해 기존 클릭비가 보여주던 Rock 사운드적인 면과 힙합적인 리듬, 현재의 트렌디한 느낌까지 갖춘 타이틀곡 'Reborn'과 '보고싶어'를 공개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클릭비는 이번 무대에서 신곡을 비롯해 전성기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을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오케스트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UKO오케스트라 010-3863-3087

•••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크라(United Korean Orchestra, 이하 U.K.O)가 지난 2015년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유섬, 강혜정, 테너 김성진, 이병삼, 이인학, 베이스 전승현이 협연자로 출연해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우리 가곡과 아리아의 밤으로 꾸며진다.
U.K.O는 지금까지 33차례 연주회를 통해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 현재까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160명의 어린이들에게 4억여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녀들의 피리이야기

일 시 |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여은혜 010-7197-8515

•••

플루티스트 여은혜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향상음악회. 김민지, 신혜원, 신혜림, 김지우, 황인우, 신용인, 추정원 등 플루트 전공자들이 베토벤, 모차르트 등 고전음악에서부터 뿔랑, 툴루이 등 근현대 작곡가들의 연주곡까지 다양한 곡을 솔로, 듀오, 앙상블 무대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 소나타 제2번
하이든/콘체르토 라장조
크반츠/콘체르토 사자
베토벤/세레나데
뿔랑/소나타 등

Program Guide >>

2015 김복선 발레공연

일 시 |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복선 200-7823

•••

(사)한국발레협회 상임이사,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부 부회장, 동아발레단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아대학교 김복선 교수가 순수예술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마련한 2015 김복선 발레공연.
삶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파도'라는 연속적인 이미지로 엮어본 창작발레 'Deep Blue', 왈츠곡의 고전적 묘미를 살린 '꽃의 왈츠',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도시를 향해 나가는 내용의 'Eternal City' 등 클래식과 모던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통해 발레 예술의 다양한 미학과 감성을 선보인다.

부산다이내믹심포닉밴드 2015 송년콘서트

부산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3107

•••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 및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출신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다이내믹 심포닉밴드 2015 송년콘서트.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창단된 후 마련하는 첫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겸 지휘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지휘자로 활동하는 지휘자 정우영의 지휘로 경쾌하면서도 역동적인 선율로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 협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아름(소리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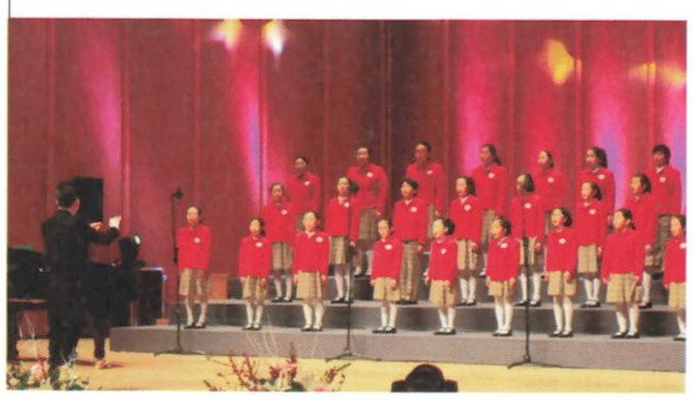
제2회 CTS부산방송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9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CTS부산방송 784-9988
지휘자 나준영 010-3002-0543

•••

합창을 통해 남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협동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2년 창단 예배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TS부산방송소년소녀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안효영/The Lord is my shepherd
안효영/찬양드려!
조성은/뮤지컬합창 '요나이야기'
이현철/시편 57편, 감사해요 등 수곡
• 지휘/나준영
• 사회/유혜영(CTS부산방송 MC)



메디코러스 제3회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지난 2011년 음악을 좋아하는 남성 의사들로 결성된 부산시남성의사합창단이 2013년 여의사들을 단원으로 맞아 새롭게 창단한 부산시의사회합창단(메디코러스)의 정기연주회.
올해 2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부산시의사회합창단은 '부산시 의사의 날' 축하공연, 부산합창제, 광복 70주년 2015 평화통일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음악으로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부산시의사회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국내외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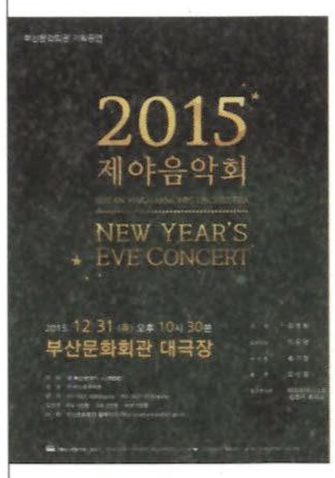
• 지휘/양재원 • 반주/김현경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제야음악회

일 시 |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3100

•••



2015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5년 제야음악회.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김경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5년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존 루터/고풍모음곡(Suite Antique)
스코틀랜드 민요/그리운 옛날(석별의 정)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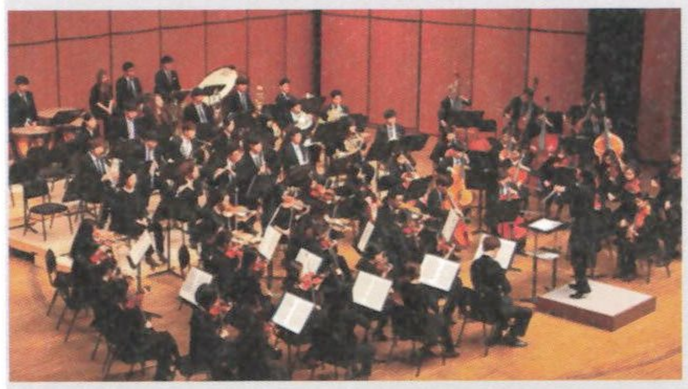
• 소프라노/이윤경 • 바리톤/송기창 • 플루트/오신정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2월 5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



미래의 음악회를 이끌어 가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Kv138
비발디/'사계' 중 '겨울'(협연/바이올린 조우태)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 바이올린1/조우태, 이예서, 김다경, 박소라, 최어진
• 바이올린2/최예린, 조휘영, 김선영, 김희원, 김효빈, 김수빈
• 비올라/김초롱, 하정은, 권덕진, 김예진
• 첼로/성민, 김한슬, 정다움, 강태이
• 더블베이스/정준용, 박양지

12월 12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지난 1993년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 우리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의 무대 .

|프로그램|
천하태평지무(출연/황선희, 안주희, 권봉정, 이화성, 오수연, 이현주, 전혜련)
남무(출연/이성원)
화랑의 기상(출연/김주령, 김주연, 김시현)
원향지무(출연/김공주)
경고춤(출연/정진희, 이현정)
진도북춤(출연/박상용, 강모세, 허태성, 김윤호, 황동하)

• 예술감독/홍경희
• 훈련지도/서정숙

12월 19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우리나라 창작국악관현악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해령(집박/채수만·대금/이만형, 황두호, 손한별·피리/박춘석, 박영은, 박순자·해금/김민정, 방병원, 윤해승·아쟁/권혜정·장구/송강수·좌고/김인균)
생·소병주 '수룡음'(생황/강영현·단소/조은경)
가사 '백구사'(가사/정다은·대금/손한별·장구/박재현)
거문고 중주 '출강'(거문고/엄애리, 전혜정)
남도민요 '동백타령, 신사철가'(민요/박성희, 정선희·대금/황두호·피리/박순자·해금/방병원· 아쟁/권혜정·가야금/송영남·거문고/오상훈·장구/송강수)
사물놀이(꽹과리/이주헌·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박재현)

• 해설/전현진

12월 26일 K-Dance Company 공연

•••

중요무형무화제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자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인 춤꾼 김현숙이 대표로 있는 K-Dance Company의 무대

|프로그램|
비나리(출연/전단원)
통영입춤(출연/김현숙, 이하나, 최오성)
태평무(출연/김완수)
무영탑(출연/김현숙, 김명희)
춘향가(출연/이하나, 최오성)
원향지무(출연/김현숙 외 7명)

• 대표/김현숙(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
• 해설/정경조(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라메르 오케스트라 신나는 예술여행

행복 드림 콘서트

일 시 | 12월 1일 화요일 오후 5:00 새빛보육원 강당, 9일 수요일 오후 3:30 부산광역시 의료원 1층 로비, 14일 오후 6:30 대연지역 아동센터, 18일 오후 5:00 문현지역 아동센터

입장료 | 무료

문 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온 라메르 오케스트라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행복 드림 콘서트'.

라메르오케스트라는 지난 1998년 창단된 후 그동안 청소년 음악교육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등으로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병원, 보육원 등 우리 이웃을 직접 찾아가 음악사랑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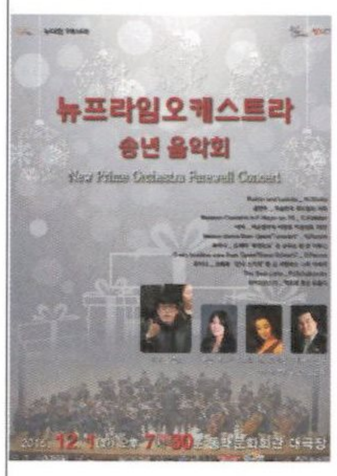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2015년을 아쉬워하며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대종상 영화제 개막식 연주, 부산바다축제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임준오
- 테너/장진규
- 소프라노/고예정
- 바순/박수빈(동덕여자대학교 3학년)

피아니스트 박정난과 함께하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시리즈

일 시 | 12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박정난 010-4391-1106

•••

동의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하이델베르크음대에서 피아노 및 실내악반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정난 독주회.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다 귀국한 박정난은 지난 2013년 귀국 리사이틀 무대를 시작으로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한국-헝가리 수교 25주년 기념음악회, Augustana Sommer 뮤직페스티벌 독일 초청 기념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4곡으로 구성된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나그네' 전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베이스 바리톤 최현욱
  아나운서 박은경

Program Guide >>

국악밴드 아비오 7번째 콘서트 '소소한'

일 시 |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국악밴드 아비오 010-4553-5202

•••

2007년 결성된 국악밴드 아비오가 들려주는 7번째 콘서트.

'나 아(我), 날 비(飛), 즐거워할 오(娛)'의 한자 이름으로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아비오는 하나의 음악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음악단체로,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혼합 형태로 음악에 따라 악기를 가감해 다양한 곡을 작곡, 편곡, 연주하고 있다.

매년 정기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함으로써 음악의 시대적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노력해온 아비오는 이번 무대에서 '사람의 인생'을 주제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음악과 영상으로 선보인다.

금정수요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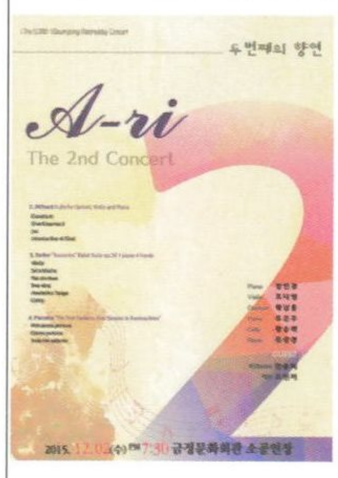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2일 A-ri 두 번째의 향연



피아니스트 강인경, 조은주, 류승경, 바이올리니스트 조나영, 첼리스트 황승희,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으로 결성된 '아리 A-ri'의 두 번째 무대.

우리말 '앓이'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아리 A-ri'는 음악을 하기 위해, 음악 때문에 앓는다는 의미로, 언제나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단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 게스트/안송희(M.Dance)
- 해설/고민지

9일 부산예고 13기 동창이 함께하는 음악회

피아니스트 김은정, 김선영, 김수민, 이정민, 송미란, 첼리스트 배성아, 박준현, 플루티트스 김윤희, 임인애, 바리톤 조은득, 가야금연주자 공혜영, 피리·태평소연주자 신선영 등 부산예고 13기 동문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 특별출연/하경륜(드럼), 성민주(피아노)

16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Song of the Angels

송년을 맞아 소프라노 왕기헌,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장지현, 이칠성 등 성악가들이 꾸미는 특별한 무대로, 작곡가 구노, 루치, 카치니, 슈베르트, 마스카니의 '아베마리아'를 비롯해 성가곡 및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경미
- 게스트/햇살나무중창단(지도교사/손민정)

23일 재즈보컬 백흥선 크리스마스 콘서트

서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넘나들며 재즈의 부드러움과 파워 넘치는 즉흥음악 보이싱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재즈보컬리스트 백흥선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보컬리스트 백흥선을 중심으로 김정태(기타), 심규성(트롬본), 김수지나(피아노, 오르간), 서진석(드럼)으로 구성된 백스그루브(Bags' Groove)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30일 이세미의 해금 Semi Classic

서울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있는 해금주자 이세미의 무대.

이세미는 제34회 난계국악경연대회 2등,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동상, 제25회 KBS 국악대경연 장원을 수상한 바 있다.

신정운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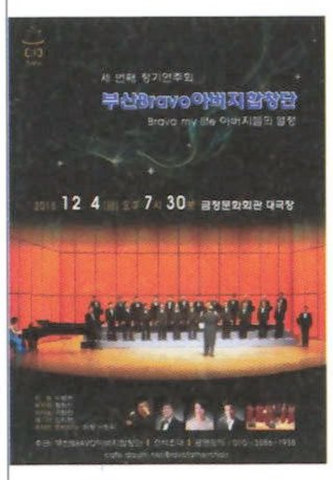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탁월한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정운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과정 재학 중 독일로 유학, 독일 만하임-하이델베르그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한 후 베를린 예술대학에 편입, 디플롬을 취득하고 동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신정운은 유학기간 중에 Senigallia Int. Piano Competition 5위, Roma Int. Competition 3위, Andora Piano Competion 2위, Austria Brahms Competition 디플롬, Colorado Keyboard Olympiad 1위 등 유럽과 미국의 해외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다.
13세에 뉴서울 필하모니와의 협연무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신정운은 현재 피아노 앙상블 WITH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세 번째 정기연주회

Bravo my life 아버지들의 열정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010-3586-1938



2013년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직업과 종교가 다른 보통의 아버지들이 매주 모여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즐거운 합창을 통해 치유하고 있는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그동안 세계 유명가곡과 오페라 합창, 우리 가곡과 민요, 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함께 노래 부르며 소외된 곳을 찾아 음악을 통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이탈리아 Novara 국립음악원, Academia Europea(합창지휘 Diploma)를 졸업하고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이성훈이 지휘한다.
• 지휘/이성훈 • 부지휘/정희석 • 피아노/구화진
• 찬조출연/테너 김지현, 옥타브오카리나(회장 이정우)

The라라팩토리 첫 번째 콘서트 **'바람길'**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The라라팩토리 010-2525-4380

전통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누구나 듣기 쉽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음악공장이 되고픈 음악그룹 The라라팩토리의 첫 번째 콘서트.
흥겨울 때 읊조리는 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라라'와 공장을 뜻하는 'factory'를 조합해 '흥겨운 소리를 만드는 음악공장'이라는 뜻을 지닌 The라라팩토리는 재즈와 국악의 어우러짐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꿈꾼다.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재즈음악과 The라라팩토리의 자작곡을 만나볼 수 있다.

제6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M&M성악연구회 010-4434-6605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가 함께하는 부부음악회.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성악과를 졸업한 신정순은 이태리 'G. Poggi' 장학금 콩쿠르에서 우승 및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예고 강사, 동의대학교 예종 콘서바토리 외래교수로 있다.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Lario in Musica'에서 우승한 고봉수는 현재 부산예고 강사, 동의대학교 예종 콘서바토리 외래교수, 부산 시니어 까리따스합창단,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찬조출연/George ensemble(Vn 조지훈, Vn 정재원, Va 김강주, Vc 김형기, Cla 김병주), PACE 여성중창단, 기타리스트 김보승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프로젝트 앙상블 솜블리 렉쳐콘서트 II '브람스의 회상'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프랑스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과정, 보스턴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비올리스트 김가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실기수석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혜경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솜블리의 렉쳐콘서트 무대로 꾸며지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브람스/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랑랑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6일 일요일 오후 6: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6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클래식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로 호평받으며 파워풀하면서도 화려한 연주로 세계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의 수퍼스타 랑랑 피아노 리사이틀.
열세 살 때 차이코프스키 영 뮤지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랑랑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그리고 미국의 빅 파이브라 불리는 모든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최초의 중국 피아니스트로, 클래식 음악가로서는 이례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무대에서 연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랑랑은 이번 무대에서 지난 10월 발매한 새 앨범 '랑랑 인 파리'에 수록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사계
바흐/이탈리안 콘체르토
쇼팽/4개의 스케르초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크리스마스&클래식 with 피아니스트 박종훈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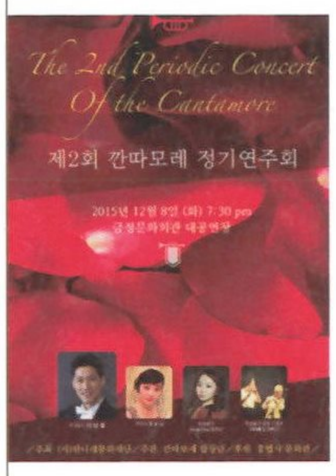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완주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과 편곡, 음반 프로듀싱과 녹음, 공연기획 그리고 라디오 방송 MC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깊고 아름다운 감성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는 낭만 기타리스트 박윤우, 반도네온 연주자 진선과 첼리스트 예슬, 가야금 연주자 한혜진으로 구성된 매력적인 클래시컬 크로스오버그룹 '카라멜 클래식'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공연.

영화 '피아니스트', '불멸의 연인'에 삽입되었던 쇼팽과 베토벤 곡에서부터 신나는 캐롤음악으로 크리스마스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제2회 깐따모레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송진영 010-9513-3363

•••



지난 2011년 11월 노래를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들로 결성된 혼성합창단 '깐따모레'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깐따모레(Cantamore)'는 이태리어로 노래와 사랑을 뜻하는 'Canto'와 'Amore'를 합쳐 만든 이름.

매주 화요일 금정구 흥법사 교육관에서 합창연습을 가지고 있는 깐따모레는 합창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음악을 통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며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가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좋은 인연, 훨훨 날아요, 항해, 마음에 내리는 비, 한계령, 청산에 살리라, 서랍 속 향기, 나성에 가면, 아름다운 세상, 여행을 떠나요 등

- 단장/이병권 • 지휘/이상철 • 반주/정꽃님
- 특별출연/조안나(바이올린), 이하룡&박린가 (플루트 이중주)

주창근 작곡발표회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주창근 010-3139-1719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스위스 바젤 시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작곡가 주창근 작곡발표회.

현재 다대포 꿈의낙조분수 연출감독, 향신회, 안티스티뭉, 부산전자음악협회, 스펙트라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주창근은 이번 무대에서 전자음향과 기악, 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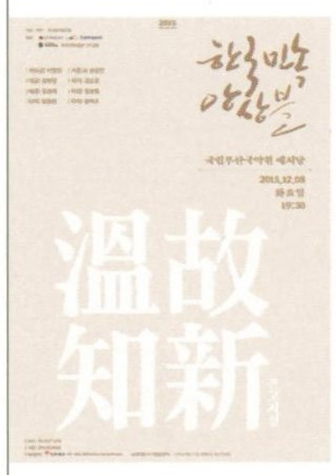
|프로그램|

전자음향과 영상을 위한 'Cross-Over'
플룻 클라리넷과 첼로를 위한 '또 다른 만남'
전자음향과 인성, 타악기를위한 'Composition'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비애'
피아노를 위한 '자연배음 연습곡'
합창 '아버지여 이죄인을', '지혜를 얻은자 복이 있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드리세'

2015 한국민속앙상블 연주회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한국민속앙상블 010-3177-5704

•••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민속음악을 재조명하고 전통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기 위해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한국민속앙상블의 두 번째 무대.

지난 5월 서울에서의 창단 연주회 이후 부산에서 첫 연주회를 갖는 한국민속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온전히 표현해내기 어려운 합주곡만을 골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산조합주, 경기무악장단과 민속삼합, 염불풍류, 시나위, 호적놀음

- 사회/유율리아
- 연주/이정민(가야금), 권중연(거문고), 성휘경(대금), 권도윤(피리), 김승태(해금), 김승철(아쟁), 임종현(타악), 정태수(타악)

제17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일 시 | 12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전화예약)
문 의 |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8633-4792

•••

지난 2007년 창단한 후 그동안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휘자 손명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에 어울리는 주페의 경기병서곡을 비롯해 경쾌한 장단과 리듬을 앞세운 무곡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다장조 작품 37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손명균
- 협연/피아니스트 김태진,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

김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할인)
문 의 | 선광SC 010-7361-7273

•••

탁월한 곡해석과 고난이도의 테크닉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연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과정, 에쎈 국립음대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희정은 귀국 후 서울과 부산에서의 두차례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내외 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기획연주회 등을 통해 감동을 주는 바이올리니스트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김희정은 현재 충남교향악단 객원악장으로 활동하며 동아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생상/하바네이즈
이자이/시곡 작품 12
슈트라우스/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8 등 수곡

제49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광복 70주년, 애국가 탄생 80주년 기념 Korea Fantasy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콘서트 12월 무대.
광복 70주년, 애국가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우리민족의 망향의 설움과 조국의 웅대한 비상을 합창과 관현악으로 그려낸 작곡가 안익태의 교향적 환상곡 'Korea Fantasy'를 들려준다.

- 지휘/이효상
- 바이올린/김응수
- 소프라노/윤선기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 테너/이승우
- 베이스/김정대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김해시립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로얄오페라합창단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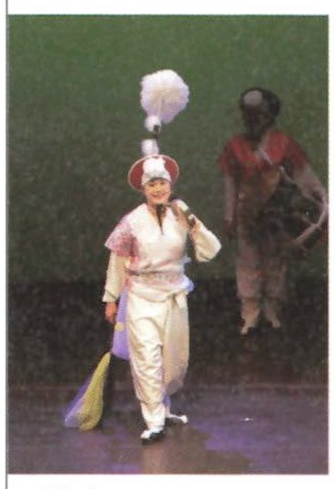
뮤지컬 스타 콘서트 -남경주 · 전수경 · 최혁주 with 네오필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기둥 남경주,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명품 배우 전수경, 뮤지컬계의 작은 거인 최혁주 등 한국의 대표 뮤지컬 스타 3인과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뮤지컬 스타 콘서트.
뮤지컬 배우 3인의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와 가요 등 송년을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모두가 어울러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이정현의 금고지무(金鼓之舞)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정현 010-5657-770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이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정현의 무대.
이정현은 그동안 타락콘서트,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내드름연희단 정기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여성풍물잽이의 개인공연으로서는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무대는 정교한 음악적 구성과 현란한 발디딤새, 맺고 끊음이 분명한 발림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설장구로 알려진 김병섭류 우도설장구를 비롯해 황재기류 고깔 소고춤, 앉은반사물놀이, 상쇠춤과 판굿 등을 선보인다.

CEO Classique Concert

서울 CEO 부산 나들이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수아트홀 744-1515

월드브릿지오브컬쳐 대표인 서양화가 모지선과 수아트홀 관장인 소프라노 김옥이 '행복한 삶의 퍼즐 이어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행복하자' 콘서트 첫 번째 무대.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음악을 사랑하는 CEO를 초청, 소프라노 성정하, 바리톤 이연기, 임민철 등 부산의 성악가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모지선, 정마리(설리번교육 대표), 박종덕(SKR렌터카서비스 대표이사), 피채희(시크릿 세일즈 저자), 임규관(숭실대학교 교수), 김용예(한신예능아카데미 원장), 황보환(메트라이프생명 대표FSR), 김두휘(심천비범병원 성형외과장), 이재욱(변호사)
- 반주/수앙상블(바이올린 금성빈, 첼로 이지수, 피아노 고영주)

뮤즈콘서트콰이어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뮤즈콘서트콰이어 010-5503-9693

2007년 부산, 울산, 경남 일원의 음악 동호인들로 경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뮤즈콘서트콰이어 제8회 정기연주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남녀 혼성합창단으로 조화롭게 이어온 뮤즈콘서트콰이어는 창단 이후 7회에 걸친 정기연주회 외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작은 음악회'(울산 월평성당),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전곡 연주회'(부산 중앙성당)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김태호
- 피아노/이승윤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삼희, 엘샤다이중창단

금정유소년타악기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지난 2011년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한 '음악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4주년을 맞는 금정유소년타악기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금정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악재능을 지원하고 사회기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금정유소년타악기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실력을 쌓아왔다.

- 지도/송희철(공연반), 김영민(신규반)
- 특별출연/S. Modern Percussion 앙상블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송소희 국악 나눔 콘서트-부산

일 시 |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8만 8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문 의 | 유니버설라이브 02-3785-3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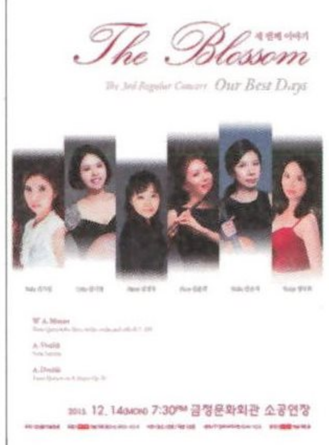
•••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송소희가 들려주는 국악 나눔 콘서트.
다섯 살의 어린나이로 민요를 배우기 시작한 송소희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 전국노래자랑 역사상 최연소 1등을 수상한 후 스타킹, KBS 열린음악회,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기존의 전통 국악공연의 틀에서 탈피해 전통국악과 현대가요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압도적인 가창력과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The Blossom 세번째 이야기

일 시 |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예술기획 윤 010-9025-2012

•••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들의 모임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실내악 연주단체 The Blossom(더 블로썸)의 세 번째 무대.
부산예고 동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자,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가 실내악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4중주 작품 285
비발디/사계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작품 81

동래문화회관 송년음악회

Adieu 2015

일 시 |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남성성악앙상블 프리모 칸탄테와 부산지역 성악인들이 함께하는 동래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이태리어로 '최고의 가수들'이라는 뜻을 지닌 프리모 칸탄테(Primo Cantante)는 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 미국 등에서 유학을 마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남성성악가 6인이 피아니스트 강지원과 의기투합해 지난 2013년 1월 창단한 단체로,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벗어나 새로운 예술로의 변화를 꿈꾸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소프라노 고예정, 박현진, 왕기헌, 설은경, 메조소프라노 박소연과 함께 합창곡 및 오페라 아리아, 한국가곡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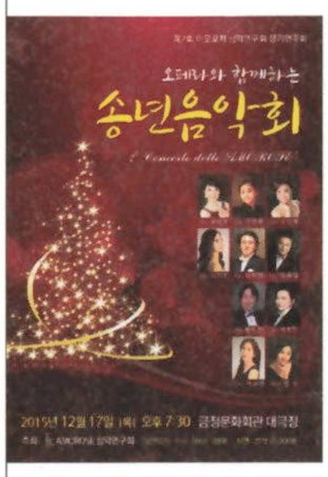
Program Guide >>

제7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오페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모로제성악연구회 010-3868-2808

•••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기획,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하고 있는 아모로제성악연구회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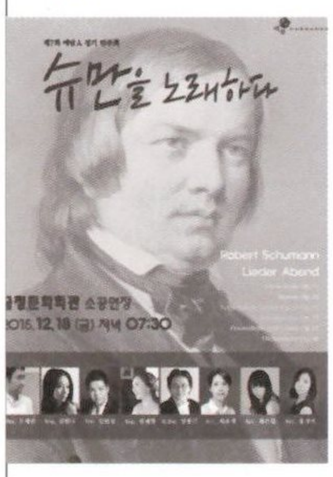
- 소프라노/정태미, 이현정, 구민영, 이지은
- 테너/김화정, 양승엽
- 바리톤/윤오건, 시영민
- 피아노/이소영, 김란

제7회 예람人 정기연주회

슈만을 노래하다

일 시 |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예람人 010-4145-6019

•••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뜻을 같이한 성악가들로 결성된 부산클래식성악회 '예람人'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3년 1월 창단한 예람人은 제1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를 시작으로 시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날에, 하모니, 크리스마스 연말콘서트, 봄의 끝자락에 도니제티를 노래하다, 베르디 갈라콘서트, 한국인이 좋아하는 Best of Aria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슈만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인의 사랑, 헌정, 어린이 정경, 여인의 사랑과 생애 등 슈만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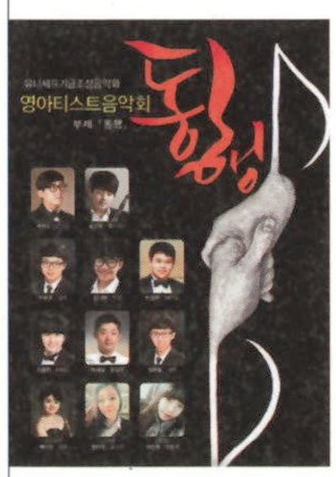
- 출연/바리톤 오세민, 소프라노 김한나, 테너 김현성, 소프라노 정재영, 바리톤 양종근
- 피아노/최윤경, 최은설, 홍성미

유니세프 기금조성

영아티스트 음악회 '동행'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온천중앙교회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곽민정 010-3069-9777

•••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세프 기금조성 음악회로 마련되는 영아티스트 음악회 '동행'.
백선우(오르간), 성건희(클라리넷), 박준우(성악), 김기현(작곡), 박상현(피아노), 진종현(피아노), 박새길(트럼펫), 임한슬(성악) 등 부산예고 1학년에 재학중인 차세대 연주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오르간 연주를 위해 온천중앙교회에서 특별히 장소를 제공했다.

- 찬조출연/백민정(성악)
- 그림찬조/정민경, 김민경

2015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6만 6천원, R석 5만원
문 의 | 지누락엔터테인먼트 070-8680-8477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스튜디오의 아름다운 명곡을 재즈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피아노 다테이시 카즈미, 콘트라베이스 사토 시노부, 드럼 스즈키 마오로 구성된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재즈로 편곡, 연주한 두 장의 앨범으로 일본 아마존 재즈차트 1위에 오르고 일본 내 발매기념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 및 삽입곡 외에도 올해 10월에 발매된 새 앨범 'Christmas meets Jazz' 수록곡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해준다.

제2회 아모스앙상블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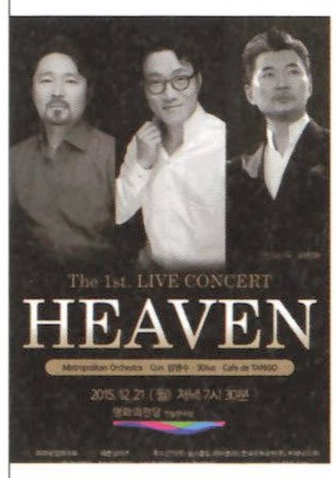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모스앙상블 010-4561-4837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이해리, 이지영, 신정애, 비올리스트 이주비, 유재형, 첼리스트 박준현, 김윤영, 플루티스트 허주영, 피아니스트 백은영으로 구성된 아모스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아모스앙상블은 그동안 병원, 미혼모시설, 보육원, 장애단체, 양로원 등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기부로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BWV147
비발디/'사계' 중 '겨울'
코렐리/콘체르토 그로소 작품 6 제8번 사장조
엔니오 모리코네/가브리엘의 오보에
L. 앤더슨/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 총기획/이해리 • 음악감독/안은탁

The 1st Live Concert He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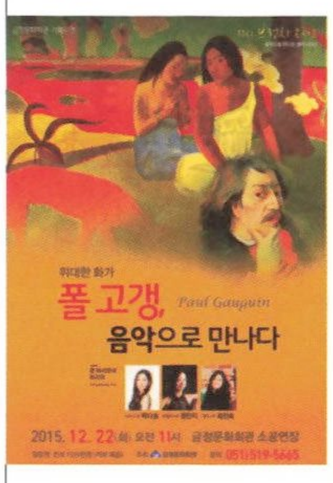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BS마린캄머오퍼 010-5129-4321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 3명으로 결성된 남성트리오 '헤븐 싱어즈'의 첫 번째 콘서트.
남성미 넘치는 파워 보이스와 부드럽고 감미로운 밸런스로 잊지 못할 음악적 감동과 하모니를 선사해온 헤븐 싱어즈는 그동안 품격높은 퍼포먼스로 오페라, 가곡, 칸초네, 뮤지컬넘버, 7080가요, POP & K-P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칸초네와 오페라 아리아 메들리를 비롯해 전문 탱고댄서들과 함께하는 '쉘위댄스', 추억의 7080 가요와 POP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연주/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지휘/김병수)
• 찬조출연/3Diva(소프라노 김아름, 정은미, 박현진)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폴 고갱, 음악으로 만나다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올 한해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15년 마지막 무대.
빈센트 반 고흐, 폴 세잔과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화가 폴 고갱의 굴곡진 삶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평론가 이석렬의 재치있는 해설과 피아니스 박다솜, 바이올리니스트 정민지, 첼리스트 최인숙으로 구성된 콘 파시오테 트리오의 연주로 장밋빛 인생, 고엽 등 우리에게 친숙한 샹송과 리베르 탱고, 레인보우 브릿지 등 12월에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음악회
부산-오사카 기념음악회
가야금과 고토의 아름다운 만남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서나영 010-5596-1540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대표현악기인 가야금과 고토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국교 정상화의 의미를 찾고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음악회 '가야금과 고토의 아름다운 만남'.
가야금의 명인 김남순 부산대학교 교수와 부산가야금연주단, 고토의 중견연주자 리사 카타오카와 고토앙상블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는 각국의 신비로운 현의 만남을 통해 양국의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화합의 장을 선사한다.

온다도로 러브 콘서트
연인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명인예술기획 010-3884-3104

음악은 삶을 격려해주는 힘과 복지의 기능을 가진 예술이라는 신념으로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꿈과 사랑을 음악으로 나누고자 창단한 온다도르 2015년 송년무대.
새롭고 친근한 클래식 공연을 위해 늘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개발, 클래식문화 전파에 앞장서온 온다도르는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변향숙,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화정,김현욱 바리톤 최강지, 이규원이 출연, 우리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널 넘버로 따뜻한 송년의 밤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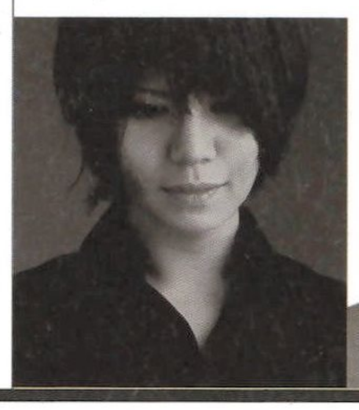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조르다노/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 '조국의 적인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등 수곡
• 사회/변경은 • 피아노/이수연, 김경미

청년음악가 시리즈 17, 18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피아니스트 신비, 테너 김보우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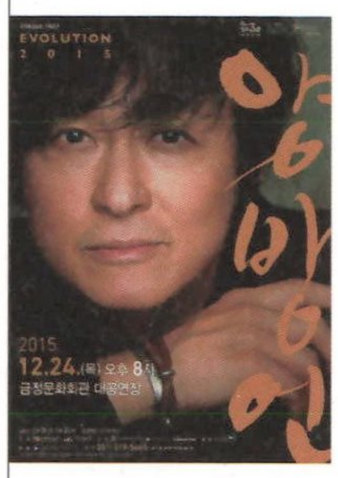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고 있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12월 무대.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과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이탈리아 라치티국제콩쿠르 전체 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신비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다니며 꾸준히 오페라 무대에 서고 있는 테너 김보우가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진행/고민지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양방언 Evolutio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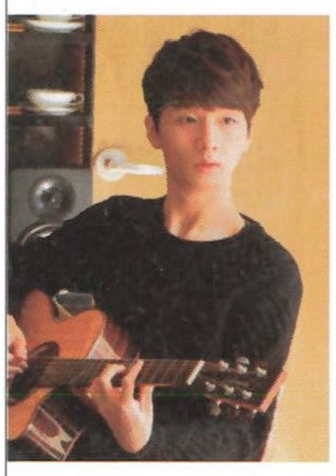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일 음악가 양방언 부산 콘서트.
매번 서울공연을 통해서만 한국 관객과 만나온 양방언이 한국활동 15년만에 갖는 최초의 대규모 지방 라이브 투어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의 내한공연을 부산에서도 직접 만날 수 있다.
'진화(Evolution)'라는 타이틀에서도 느낄 수 있듯 매번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양방언의 이번 무대에서는 6년만에 발표하는 신곡들과 함께 일본과 미국에서 내한하는 드럼, 베이스, 기타, 퍼커션 주자들이 한국의 현악주자, 태평소, 보컬 등과 어우러져 국적과 장르를 뛰어넘은 환상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정성하 2015 ACOUSTIC WINTER -부산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 균일 5만 5천원
문 의 | 프리덤 070-8271-5549



유튜브에 올린 기타 연주 영상으로 조회수 10억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린 기타리스트 정성하 부산콘서트.
올해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 'Monologue'를 비롯해 20세의 나이에 통산 여섯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정성하는 미국, 스칸디나비아, 싱가폴 등 해외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국경, 나이, 성별을 초월한 폭 넓은 음악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기타리스트 자신의 음악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멘토 및 동료 기타리스트들의 대표 곡들을 포함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조수미 송년 빅 콘서트

조수미, 그리운 날의 기억

일 시 |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B석 7만 7천원
문 의 | 유니버설라이브 02-3785-3905

세계적 지휘자인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들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송년 빅 콘서트.
서울대 성악과를 거쳐 이태리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조수미는 1986년 이태리 트리에스테의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렛토'의 '질다'역으로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후 데뷔 29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유럽을 비롯한 세계를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데뷔 29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가요 음반을 발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조수미는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최영선이 지휘하는 KR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앨범에 수록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가요와 클래식의 환상적인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사한다.

해운대문화회관 송년음악회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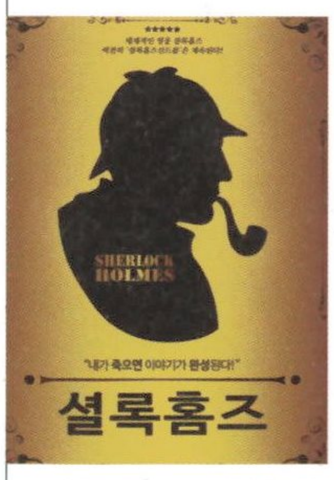
일 시 |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2만원, R석 1만원, A석 5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난 한해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온 해운대문화회관이 2015년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Happy New Year'.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박대용, 테너 김지호, 소프라노 김아름, 피아니스트 최승희, 가수 양현경, 위일청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물어가는 2015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희망찬 2016년을 맞는 기대감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사회/김정아

Play 연극

연극 '셜록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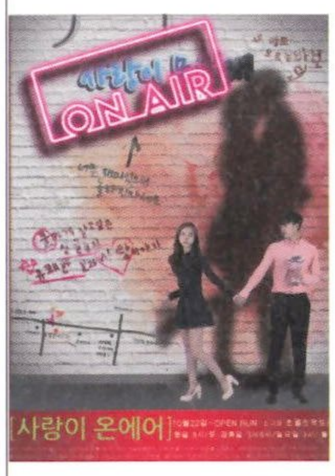
일 시 | 9월 17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추리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셜록홈즈'.
외딴 성에서 벌어진 재산가의 자살 사건. 하지만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문의 편지가 홈즈에게 배달되고 추리는 시작된다. 밀실과 같은 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수사를 거듭할수록 셜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연극 '셜록홈즈'는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와 현대적인 코믹요소, 효과적인 무대장치를 통해 스릴과 반전이 있는 추리극의 재미를 전해준다.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이 온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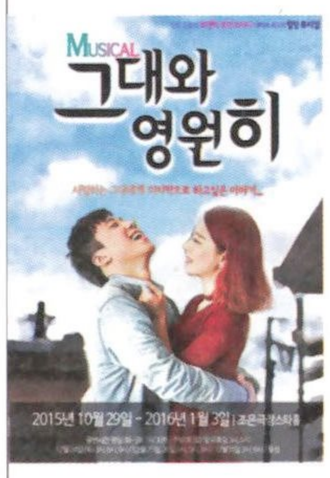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2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12/25-26일 오후 3:00, 6: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초콜릿팩토리 621-4005



2004년 최고의 시트콤이었던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무대에 옮긴, 사랑에 대한 유쾌한 수다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이 온에어'.
서른 두 살이라는 나이에도 푼수끼로 따지자면 완전 국가대표급인 최미자, 실수투성이 인생에 불평과 주름만 늘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지루한 일상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발생한다. 그건 바로 미자가 성우로 일하는 방송국에 기럭지도 싸가지도 지존인 지PD에게 제대로 꽂혀버린 것. 과연 미자는 왕싸가지 꽃미남 지PD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특히 소극장에선 볼 수 없었던 영상과 와이어를 통한 마술같은 무대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서상우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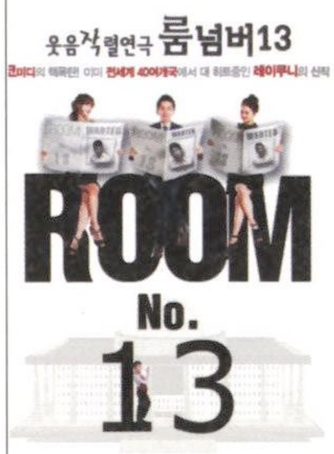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9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12/24일 오후 3:00, 6:00, 9:00, 12/25-26일 오후 2:00, 5:00, 8:00, 12/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휴먼코미디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대와 영원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 진우처럼 '죽음'이라는 소재 속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와 위트 있는 상황으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 작, 연출/김기석
• 작곡, 음악감독/윤영식, 지은혜

룸넘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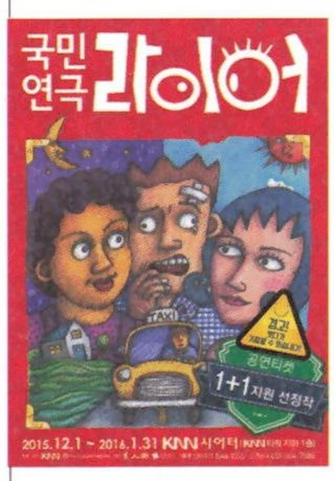
일 시 | 11월 5일(목)-2016년 2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코미디극 '룸넘버13'.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 방에에서 막 일을 치르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이 일을 국회의원 비서인 조지에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리차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1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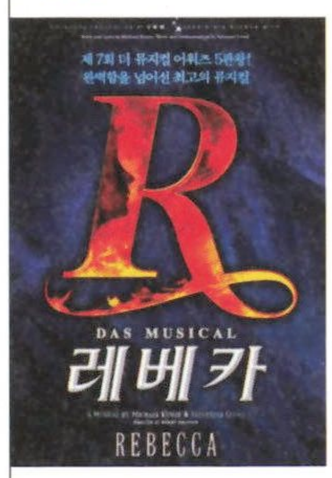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일(화)-2016년 1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1:00, 4:00, 7:00, 12/31일 오후 5:00, 8:00, 1/1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탄탄한 구성과 해학을 담은 강력한 웃음코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폭소코미디극 '라이어'.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의 대표작으로,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지금도 유럽을 비롯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라이어'는 국내에서만 18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무대로, 매년 한국 연극사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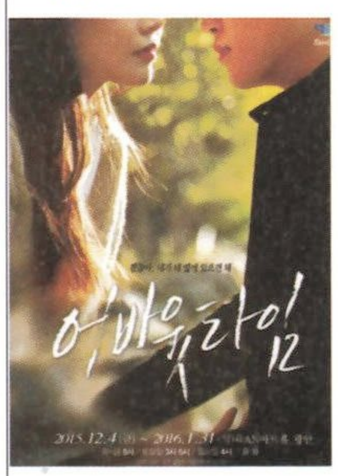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일-4일 수-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3: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강렬한 음악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신비로운 무대 연출로 2013년 초연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뮤지컬 '레베카'.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동명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레베카'는 사고로 죽은 전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 드윈터와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I)'를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진행된다.
막심 역의 류정한, 민영기, 엄기준, 송창의와 댄버스 부인 역의 김윤아, 차지연, 신영숙, 나(I) 역의 김보경, 송상은 등 뮤지컬 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한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어바웃타임'

일 시 | 12월 4일(금)-2016년 1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12/23일 오후 3:00, 6:00, 12/24-25일 오후 1:00, 4: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단 12/23~26일 기간은 사용불가)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3일간의 사랑이야기 연극 '어바웃러브'.
결혼을 앞둔 상민, 화영커플은 결혼준비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게 되고 헤어지는 순간 상민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상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영은 늘 만나던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 때 곁에 있던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단 3일간 상민을 볼 수 있는 부적을 받게 되는데….
• 작/이민혁 • 연출/박정우

어린이뮤지컬 '뽀로로와 댄스댄스'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6:30, 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 5천원, R석 4만 4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뽀로로와 댄스댄스'.
마을 무도회를 준비중인 뽀로로가 크롱의 놀림에 의기소침해지자 상처받은 뽀로로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뽀로로와 함께 춤의 요정마을을 찾게 되면서 펼쳐지는 '뽀로로와 댄스'는 뽀로로 공연 최초의 댄스 뮤지컬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사를 줄이고 노래와 춤의 비중을 확대해 집중력과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스토리로 구성했다.
화려한 무대와 볼거리가 가득한 이번 무대에서는 댄싱9,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한 전문 댄서들이 출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온 부모들이 춤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선보인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일 시 | 12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타의에 의해 총대를 겨누어야 했던 6명의 병사가 전장에서 잠시 떨어진 무인도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진한 우정을 쌓아가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지난 2012년 초연 이후 그동안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작, 2013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2013 더뮤지컬 올해의 베스트 창작뮤지컬 BEST3, 2013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등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창작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연출/박소영
- 작, 작사/한정석 • 작곡/이선영
- 출연/조형균, 박정원, 최대훈, 이규형, 윤동현, 유제윤, 손미영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4

일 시 | 12월 6일(목)-31일(목), 2016년 1월 8일(금)-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12/24-25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made in busan'의 이름으로 다양한 창작품을 선보여온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초등학교 교사 강희 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텔레파시 초능력자인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힘찬의 모습에 빠진 강희는 힘찬을 사랑하게 되고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결혼을 생각하는 강희는 프로포즈를 기다리지만 변변찮은 직업과 집안 때문에 고백을 망설이는 힘찬, 과연 두 주인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사랑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려낸다.

Program Guide >>

연극놀이터 쉼, DA-M Theater 공동제작

돈키호테에 관한 10가지 것들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연극놀이터 쉼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 의 | 연극놀이터 쉼 518-13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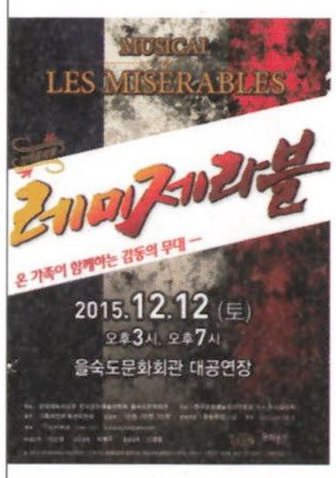
지난해 아시아 5개국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Asia Meets Asia in Busan'를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교류를 통한 공연창작활동을 가져온 연극놀이터 쉼이 일본극단 DA-M Theater와 공동제작한 신체극 '돈키호테에 관한 10가지 것들'.
한국과 일본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illusion(환영, 환상)'을 소재로, 'illusion'에 빠져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돈키호테를 재해석, 'illusion'과 현 존재와의 관계를 탐구하고 관객들과 소통한다

- 연출/히로시 오하시
- 출연/다쿠미 하라다(부토댄서), 아키히로 나카지마(배우), 쿠미코 코지오(현대무용가), 나카하라 유리카(현대무용가, 영화배우), 백대현(배우, 기획), 홍승이(배우), 황지선(무대디자인)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N.A.뮤지컬컴퍼니의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부산공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레미제라블'은 1795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중이 신음하고 삶이 피폐하던 시대에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장발장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구원과 희망,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라이선스 뮤지컬과 달리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각색한 이번 작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뮤지컬과는 달리 다양한 관객층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로 호평받고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3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문 의 | 아이엠컴퍼니 1599-8426

•••

기울어져 가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파란만장한 삶을 뮤지컬로 제작한 '명성황후' 20주년 기념공연.
지난 1995년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를 기념해 제작된 '명성황후'는 초연 이후 대한민국 최초 1,000회 공연 돌파(2009년), 대한민국 최초 130만 관객 돌파(2010년), 2010년 공연예술부문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 연출, 대표/윤호진
- 원작/이문열 • 각색/김광림
- 작사/양인자 • 작곡/김희갑 • 편곡/피터 케이시
- 출연/신영숙, 김소현, 김준현, 박송권, 테이, 민영기, 박완, 이희정, 정의욱, 김도형, 김법래

뮤지컬 '보카피플' 내한공연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VIP 9만 9천원,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문 의 | ㈜노리공감 1800-1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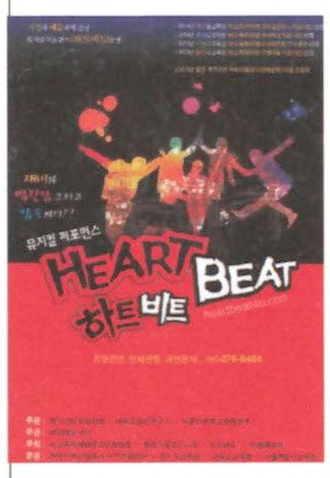
•••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넌센스'와 더불어 흥행한 대표적인 뮤지컬 '보카피플' 부산공연.
지난 5월 첫 내한공연에서 '꼭 다시 보고싶은 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은 뮤지컬 '보칼피플'은 하얀 몸에 빨간 입술이 매력적인 보카행성에서 온 외계인 보카피플이 순도 200% 목소리로만 꾸며내는 아카펠라 뮤지컬로, 악기와 사물, 세상의 모든 소리를 8명의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이다.
마돈나, 레이디가가, 마룬5, 마이클잭슨 등 귀에 익숙한 팝송에서부터 재즈, 팝, 펑키,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70여곡을 코믹한 연기와 함께 노래한다.

뮤지컬 퍼포먼스 '하트 비트'

일 시 | 12월 16일 오전 10: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단체관람시 1만원)
문 의 | 혜당예술극단 063-276-8484

•••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진정성을 담은 드라마에 교육적 가치와 감동이 있는 뮤지컬 퍼포먼스 '하트 비트'.
새학기가 시작되는 한강예술학교를 배경으로, 타악 동아리에 모인 다섯명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와 오해 속에 조금씩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왕따로 전락한 친구는 방관와 외면, 무관심으로 결국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감동을 불어 넣는 노래와 타악 영상이 어우러진 드라마틱 퍼포먼스로 서로간의 이해와 교감을 통해 가슴 속 울림을 전달하는 '하트 비트'는 2013년 일본 후쿠오카 국제아동청소년예술페스티벌 초청작, 2013년, 2014년 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연출, 극작, 음악/김두환
• 출연/김재호, 정지훈, 정도훈, 김나율, 정송이

Dancing 무용

춤패 배김새 30주년 공연
발등 우에 하늘을 두고, 배기다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춤패 배김새 010-4547-4761

•••

지난 1985년 12월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현시대를 대변하며 관객과 함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춤을 선보이기 위해 창단한 춤패 배김새 30주년 기념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땅이 춤춘다. 몸이 춤춘다. 하늘이 춤춘다. 물결 같은 춤길이 열린다'는 테마의 창작춤 '발등 우에 하늘을 두고, 배기다'를 선보인다.
• 총연출/최은희
• 연출/김선관 • 안무/하연화, 한수정
• 출연/하연화, 한수정, 김민경, 김경아, 박수정, 장하나, 김지선, 박세준, 오광희, 이담희 외

제8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일 시 | 12월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VIP 5만원, R석 3만원(9일)
VIP석 7만원, R석 3만원(10일)
문 의 | 동국예술기획 011-223-0022

•••

동국예술기획이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을 초청, 최고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제8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9일에는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오은희(승무), 송미무용단 대표 윤송미(심향무), 대통령상 수상자 이우호(한량무), 원향춤보존회 회장 변지연(원향지무),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무용부장 현임숙(궁宮), 박성호무용단 대표 박성호(태평무),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김혜경(지전춤), 국립경상대학교 교수 김미숙(비연무),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홍경희(태胎)의 무대에 이어 10일에는 인간문화재 권명화(대구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박월산(연등나래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최윤희(도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정명숙(이매방류 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최선(호남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엄옥자(원향살풀이춤), 인간문화재 김진홍(김진홍류 살풀이춤) 등 7인7색 살풀이춤 군무의 향연이 펼쳐진다.
• 총예술감독, 해설/박동국(동국예술기획 대표)

2015 강미리의 춤
할, 하나 / 길에서 춤을 묻다

일 시 |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8: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3만원(전화예약 필수)
문 의 | 이선미 010-4620-0907

•••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이자 강미리 할 무용단 예술감독, 부산대학교 교수, (사)민족미학연구소 이사로 있는 강미리의 춤 2015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태초의 불꽃, 신령한 생명의 씨앗, 생명의 이야기를 품은 돌, 삶이란 돌의 길을 걷는 여정이며 춤을 통한 깨침의 길'임을 춤사위로 그려낸 '할, 하나/길에서 춤을 묻다'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유니온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송년의 밤

일 시 |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김정순 010-4572-9991

•••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가 이끄는 부산유니온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송년의 밤.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였던 김주원이 해설하고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인 이지영, 나히마나 판덴부쉬,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강명규와 부산유니온발레단 단원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발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1부 갈라공연에 이어 2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무대에 오르는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선보인다.
• 해설/김주원(성신여자대학교 교수)

Event 행사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 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펼쳐온 곽근수는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금정수요음악회, MBC목요음악회 등 5천여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지난 11월 첫 강의에 이어 이번 강좌에서는 21세기 연주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은 '고음악 연주'를 주제로 고음악 연주의 태동과 발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 분야 최고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해본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렉처콘서트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14)'

The History of Jazz(1)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1층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시마당 제158회 詩낭송회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Concerts 콘서트

가을방학 연말 단독공연

'다들 잘 지냈나요 2015'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00, 25일 금요일 오후 6:0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 균일 8만원
문 의 | 프리덤 070-8271-5549

YB 20주년 콘서트 '스무살'-부산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00
BEXCO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WSM 1566-549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7 - 부산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균일 8만 8천원
문 의 | ㈜WSM 1566-5490

2015 박정현+플라이 투 더 스카이 콘서트 '그 해, 겨울' -부산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BEXCO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
S석 11만원, A석 8만 8천원
문 의 | ㈜WSM 1566-5490

2015 소찬휘 연말 단독콘서트 'THE VOICE'-부산

일 시 |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8: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문 의 | 프리덤 070-8271-5549

임태경 전국투어 콘서트 '그대의 계절'-부산

일 시 |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 의 | ㈜WSM 1566-5490

Display 전시

꼬마버스 타요-어린이 체험展

일 시 | 11월 17일(화)-12월 9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작은 선물, 큰 기쁨

일 시 | 12월 3일(목)-12월 30일(수)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송혜수미술상 수상작가전

일 시 | 12월 7일(월)-12월 13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

일 시 | 12월 12일(토)-2016년 2월 28일(월)
영화의 전당 비프힐 1층
문 의 | (재)영화의 전당 780-6000

배명희 작품전

일 시 | 12월 14일(월)-12월 20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서용 불교미술작품초대전

일 시 | 12월 15일(화)-2016년 1월 17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051 624 0933

'LOVE Story, 장기려'展

일 시 | 12월 19일(토)-12월 26일(토)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양홍근 작품전

일 시 | 12월 21일(월)-12월 30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

이어령 지음 / 마로니에북스 / 448p / 1만 5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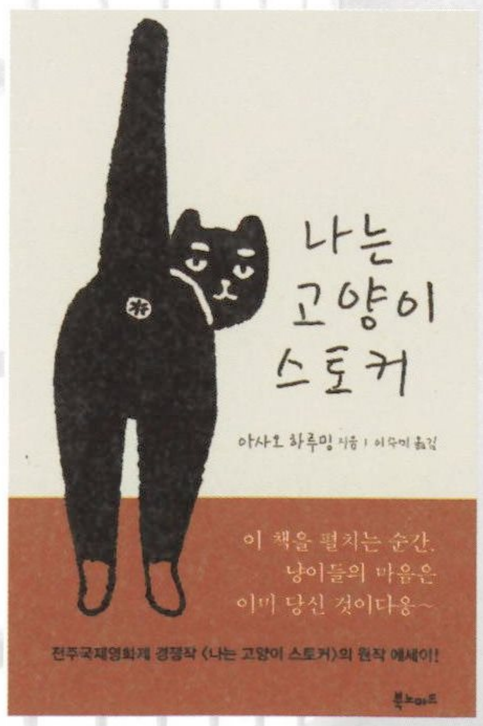
'보자기로 쌀 것인가, 가방에 넣을 것인가!' 대한민국 대표 석학 이어령 교수가 '보자기'를 통해 동 · 서양의 문화의 차이점을 읽어내는 책을 펴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가로질러 사유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일상의 소재들 가운데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보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책 속의 말을 읽어보자. "보자기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물을 쌀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예상 불가능한 것, 결정 불가능한 것, 불확실한 것을 모두 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 보자기는 한 장의 천이다. 그러나 둥근 것이든, 네모난 것이든, 너무 부드러워 손대기도 조심스러운 무엇이든 안전하게 쌀 수가 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내용물을 꺼낸 다음에는 구겨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 반면에 가방은 미리 모양과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을 넣어야 한다. 이어령은 이를 통해 융통적이고 포용적인 우리 문화와 제도와 틀을 중요시하는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읽어낸다.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비기능적이라 치부되어 등한시되던 전통 문화 속의 보자기를 무엇이든 감쌀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포용적인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이다.

명화 속 얼굴이 나에게 묻는다. "너, 괜찮니?"
대한민국 미술치료계 최고 권위자 김선현 교수가 뽑은 64점의 자화상과 명화

그림과 나

김선현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40p / 1만 4천 원

얼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꿈이 다 드러난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슬픔을 담고 있는 눈빛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화가의 자화상 역시 화가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수많은 말을 담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치료 분야에서는 자화상을 많이 사용한다. 이 책은 미술치료계의 권위자 김선현 교수의 저서로, 현장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데 가장 효과 있었던 자화상과 명화 64점을 담고 있다. 저자는 세월호 사고 학생들은 물론, 천안함 사건 유족,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일본 대지진 피해 일본인까지, '국가적 트라우마' 현장에서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해온 미술치료계의 최고 권위자다. 이 책은 독자가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성격, 상처, 감정, 성장, 꿈을 탐색하는 그림 순으로 구성되었다.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서 사랑받는 나를 상상하고, 에곤 실레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견뎌온 나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과거의 나를 끌어안은 후 시시때때로 바뀌는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변신하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나는 고양이 스토커

아사오 하루밍 지음, 이수미 옮김 / 북노마드 / 340p / 1만 2천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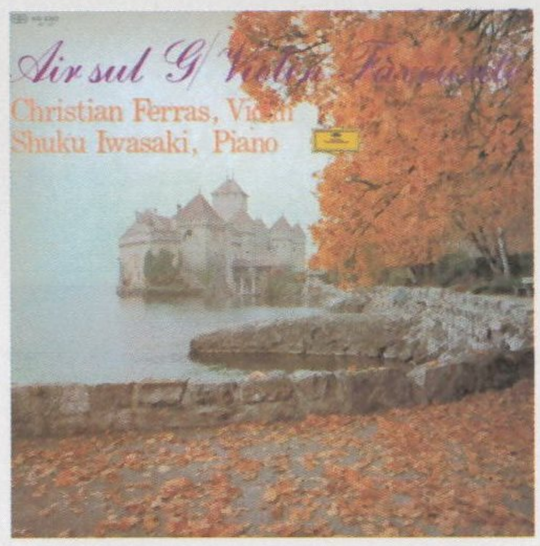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 경쟁작 〈나는 고양이 스토커〉의 원작 에세이. 일러스트레이터 아사오 하루밍의 고양이 스토커 일기이다. 1년간 매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3시의 나', 고양이의 시선으로 산책한 도쿄의 일상을 담은 '고양이 눈으로 산책'을 통해 이미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조금씩 드러내온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고양이를 향한 본격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사진과 글, 약도까지 곁들인 일러스트로 길고양이를 기록했다. 이 스토킹 일기에는 사소한 사실, 엉뚱한 생각, 기특한 애정, 따끈한 체온, 그리고 그녀가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닌 모든 골목들의 풍경이 담겨 있다. 고양이를 스토킹 하느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보며, 저자는 고백한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좁은 범위 안에 있었는 지"를.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당연하면서도 잊기 쉬운 진실을 고양이가 깨닫게 해주었음"을. 고양이 뒤를 쫓는 동안, 차 밑이나 건물 뒤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세계를 확장하는 근사한 방법, 고양이 스토킹이다.

김선욱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김선욱이 선보인 새로운 베토벤의 세계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독일의 고품격 클래식 전문레이블 Accentus를 통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여러 해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심도 깊은 실험과 진지한 모험을 마친 김선욱이 비로소 레코딩을 통해 베토벤을 찬미하기 위한 자신만의 철옹성에 첫 벽돌을 얹었다. 이 음반은 2015년 6월 베를린의 유명한 레코딩 로케이션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녹음으로, 김선욱의 냉철한 이성과 독보적인 심미안은 아직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발견해야 할 많은 미지의 음향과 방대한 의미의 광맥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음반이다.

김선욱은 2004년 에틀리겐 국제피아노 콩쿠르 시니어부문 1위를 시작으로 2005년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2006년 제15회 리즈국제피아노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세계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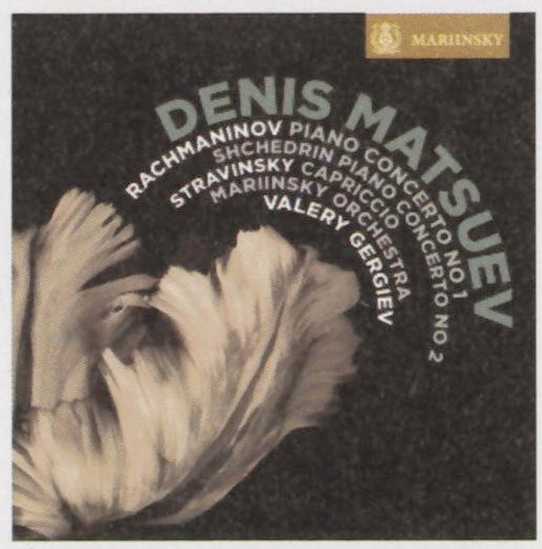
크리스티앙 페라스(1933~1982) 바이올린 소품집

비운의 천재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소품집 세계 최초 CD로 발매

"우울증을 평생 짊어졌던 사나이가 고뇌와 맞바꾼 아름다움이 어쩌면 뜰안의 햇살처럼 이토록 아름답고 영롱한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은 음악이 있다면 이런 곡들이 아닐까 한다"(해설지 중 발췌)

1982년 자살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앙 페라스가 일본에서 남긴 바이올린 소품집이 세계 최초로 CD화 되어 발매되었다. 이번 음반은 크스티앙 페라스가 1971년 일본 공연 당시 일본 도이치 그라모폰의 의뢰를 받아 1971년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피아니스트 이와사키 슈쿠의 반주로 녹음한 음반으로, 일본에서만 LP로 발매되어 소수 음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최근 국내 방송에서 전곡이 소개되면서 전격 CD화가 이루어졌다.

크리스티앙 페라스는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10세에 니스음악원과 파리음악원을 수석 졸업했다. 거장 조르주 에네스쿠를 사사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는 세베닝겐 콩쿠르 1위, 롱 티보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셰드린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1917년 버전)/셰드린 피아노 협주곡 제2번/스트라빈스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기상곡(1949년 버전)

1998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데니스 마추예프의 손에서 되살아난 라흐마니노프

1998년 23세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 '천둥과 빗방울을 연주하는 번개의 손을 지녔다', '마추예프에 의해 되살아난 라흐마니노프'라는 언론의 호평처럼 현란한 테크닉과 섬세하면서도 파워있는 타건,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던 마추예프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에서도 그가 받은 명성 그대로의 연주와 더불어 더없이 낭만적인 면모의 라흐마니노프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1월 & 2015년 4월 마린스키 극장 라이브 실황)

NEWS

2015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축제 부산에서 개최

12월 4일 11:00~1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락' 수업모습

전국의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청소년,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15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결산하는 문화예술교육축제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부산문화회관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락팀을 비롯해 영도문화예술회관, 통영국제음악재단, 대구남구대덕문화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대덕문예회관, (재)안산문화재단, 과천시민회관, 안양문화재단, 노원문화예술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전국 20개 문화예술회관이 참가하는 이번 문화예술교육축제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61개 프로그램 전시와 함께 참가팀의 공연,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그랜드 자연요양병원, (사)동의애프터스쿨 정기회원 단체 가입

그랜드 자연요양병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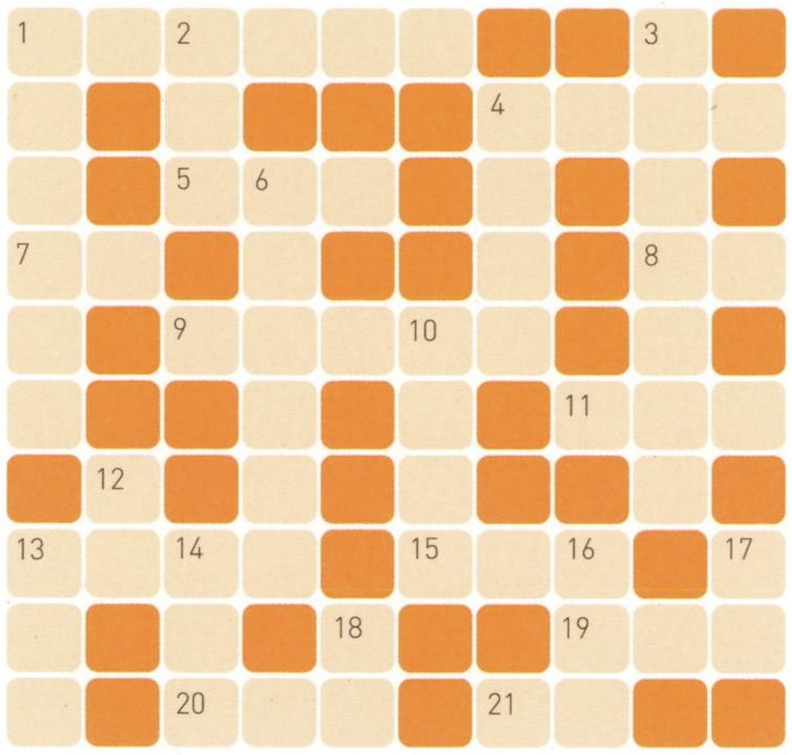
제7회 2015년 방과후학교 박람회에 참가한 (사)동의애프터스쿨

부산문화회관의 정기회원카드가 기업, 모임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1월에는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원장/이재일), 동의대학교 소속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인 (사)동의애프터스쿨(대표이사/오영희)에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은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재일 원장이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입했다. 병원에서 정기적인 음악회를 열고 있는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은 음악을 듣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직원 난타팀인 '그랜打'를 결성, 직원, 환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한 (사)동의애프터스쿨은 2012년 교육부 선정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출발한 법인으로, 2014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현재 초등돌봄교실, 초중등 방과후학교, 진로체험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동의애프터스쿨(대표 오영희)은 제7회 2015년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강사연수, 특기적성 프로그램, 간식, 행정지원〉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돌봄교실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이번에 가입한 정기회원 카드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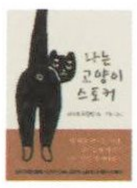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학동네	031-955-8869
조은극장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080-337-3370
큰집	051-245-3320	빈센트 커피	051-623-0772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나는 고양이 스토커
아사오 하루밍 지음 / 북노마드

yelloin FLOWERSHOP 옐로인 플라워

VINCENT 빈센트 커피

가로열쇠

①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위촉을 받아 만든 발레곡으로, 독일의 작가 호프만의 동화를 바탕으로 페티파가 대본을 썼고, 1892년 12월 러시아의 무용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다. 12월 11일과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립발레단의 무대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④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초상화로,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⑤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이기도 한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 발표한 '재능 있는 ○○○ 씨'의 소설 속 인물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증후군이라고 한다.

⑦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완구회사인 덴마크 '○○ 그룹'의 조립식 블록완구 브랜드. 덴마크어 '레그 고트(leg godt)'를 줄인 말로 '잘 논다(play well)'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⑧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로마의 게르마니아 정복 때부터 바이킹 시대에 이르기까지 게르만 민족들에게 널리 숭배받았다. '묠니르'라는 철퇴를 휘둘러 거인족과 싸웠고, 또한 그 묠니르를 쥐는 강철장갑과 허리에 차면 힘이 배가(倍加)되는 허리띠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11년 그를 주인공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가 제작된 후 2013년 2편에 이어 2017년 3편이 개봉될 예정이다.

⑨ '동유럽의 장미'라 불리는 헝가리의 수도.

⑪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일화에 등장하는 말로,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를 나타내는 말. 그리스어로 '찾았다' 혹은 '알았다'라는 뜻.

⑬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사자성어.

⑮ 중국 산둥성 산둥반도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 본래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1897년 독일의 침략으로 군항이 건설되면서 지금은 중국의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이다. 한때 독일의 조계지였던 관계로 세계 최고의 독일맥주 양조법과 이 곳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이 결합된 맥주가 특히 유명하다.

⑲ 이탈리아 로마 내에 있는 도시 국가.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다.

⑳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의복(衣服)을 만들고 궁중의 재화(財貨), 금은보화 등 물품을 공급하던 관아. 지난해 한석규, 유연석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㉑ 아메리카호랑이, 아메리카표범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1.1~2m, 꼬리길이 60~78cm, 몸무게 30~103kg으로 덩치는 크고 몸은 가늘며, 털이 짧고 거칠다.

세로열쇠

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과 더불어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스페인의 리릭 테너 가수.

② 꿩의 암컷.

③ 학문 전반에 걸쳐 기초를 쌓고 논리학을 창건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자 왕자 시절의 알렉산더 대왕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④ 하이든과 함께 18세기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음악의 천재.

⑥ 벨기에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 네로와 늙은 개 파트라슈의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를 그린 영국작가 매리 루이스 드 라 라메의 동화. 1975년 일본의 쿠로다 요시오 감독이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유명해졌다.

⑩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 등을 늘여주는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 유연성 유지 및 향상, 상해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⑫ 대가야 520년의 도읍지이자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태어나 활동한 곳으로, 대가야왕릉전시관 및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 등이 있다.

⑬ 지난 10월 20일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⑭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설가. 장편 '여자의 일생'은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낳은 걸작으로 평가되며 그 외에 '비곗덩어리', '진주목걸이' 등이 있다.

⑯ 미국 제44대 대통령

⑰ 에도시대(1603-1868)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일본의 숙박형태.

⑱ 창덕궁 내에 있는 조선시대 정원. 사적 제 122호로 지정됨.

지난호 정답

마	술	피	리		뮤				이
		타		오	즈	의	마	법	사
시	카	고		페			오		도
베		라	트	라	비	아	타		라
리		스			긴		이		던
아	베		자	산	어	보		링	컨
		샤	갈		게		이		
	차		치		인	도	차	이	나
꼭	두	각	시				돈		들
	리		장	화	홍	련			목

11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세정(남구 분포로) 박정순(수영구 구락로) 박종진(부산진구 마철로) 신금선(기장군 차성로) 장원호(동래구 연안로)
문학동네 도서	박미정(부산진구 월드컵대로) 양도건(해운대구 대천로) 이솔재(동래구 복천로) 정지윤(수영구 망미번영로) 하연희(강서구 공항대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송준영(남구 장고개로) 이상길(남구 분포로)
큰집 식사권	김보명(남구 황령대로) 박원방(강서구 신항남로) 박준효(영동구 번영길) 이현우(동래구 동래로) 표주연(동래구 연안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정주(서구 대신공원로) 노건희(금정구 범어사로) 신기화(연제구 중앙대로) 이애희(서구 보수대로) 최종숙(부산진구 엄광로)
빈센트 더치커피	노주원(남구 오륙도로) 이영일(중구 중구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 휘
서희태
MBC〈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

12.27.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유섬

소프라노
강혜정

테 너
김성진

테 너
이병삼

테 너
이인학

베이스
전승현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부산문화회관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 MBC 후원 | 수창건설 · 스타자동차 · 부산인제대학교백병원

예매 | 티켓링크 입장료 균일 2만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U.K.O 010-3863-3087

2015
WORLD
CLASSIC
DISCOVERY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예술감독 : **오충근** |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 : **양경아**(바이올린), **김유섭**(소프라노), **박대용**(바리톤) | 해설 : **류태형**

1월 24일 [러시아] / 4월 25일 [프랑스] /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클래식과 다이아몬드의 행운을 함께!

매회 공연시 추첨
- 굿모닝백이안과 - **VIP 눈건강 검진권**
-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루메니스2 또는 BBL+레블라이트**
- 에어부산 - **부산/김포 왕복 항공권**
- 해운대 그랜드호텔 - **디너 식사권**

1회~5회 모든 관람객 중 추첨
- 갤러리젬 - **1캐럿 다이아몬드**
- 굿모닝백이안과 - **VIP라식 또는 라섹시술권**
-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듀얼프락셀 또는 아이콘시술권**

티 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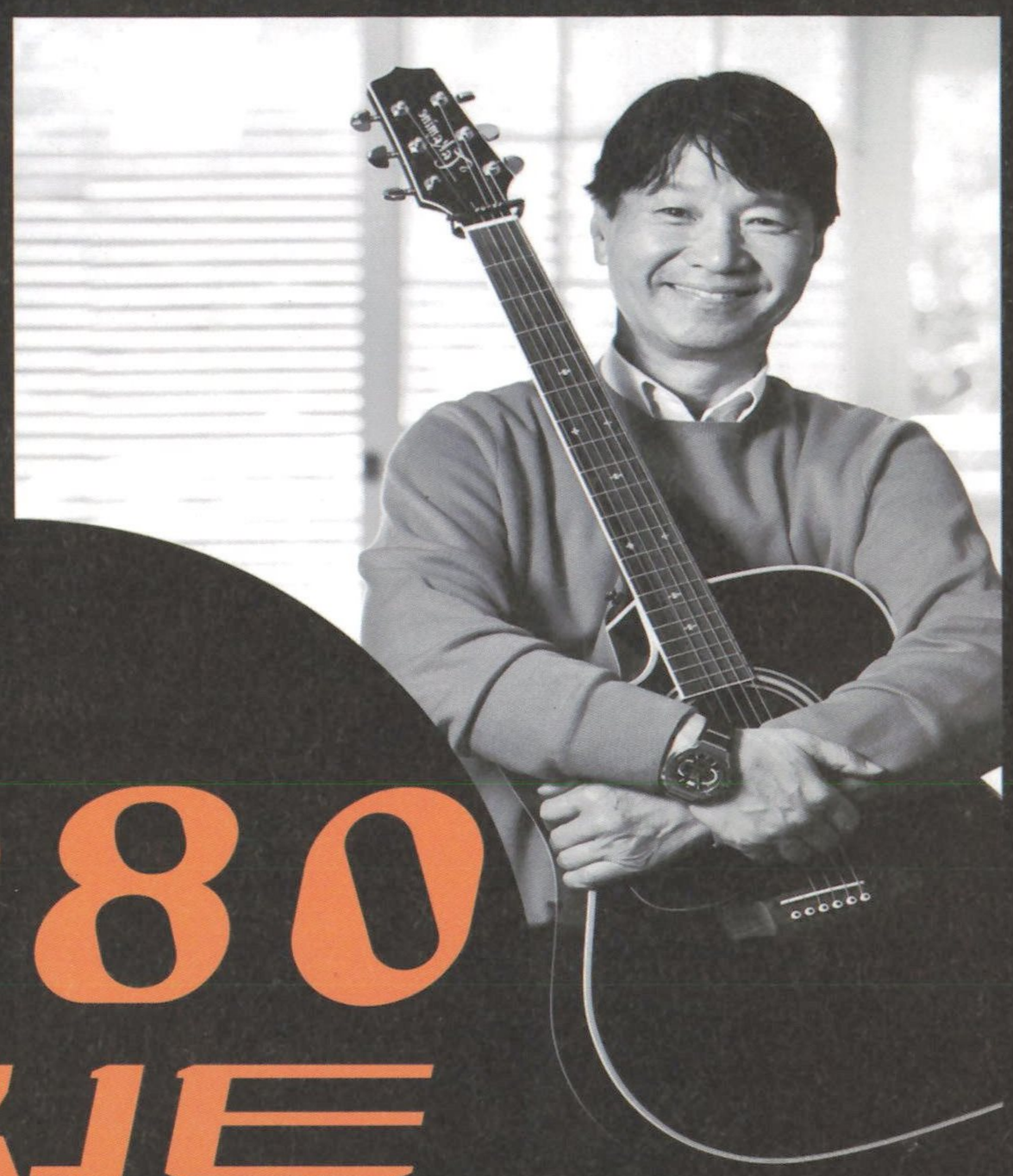
문 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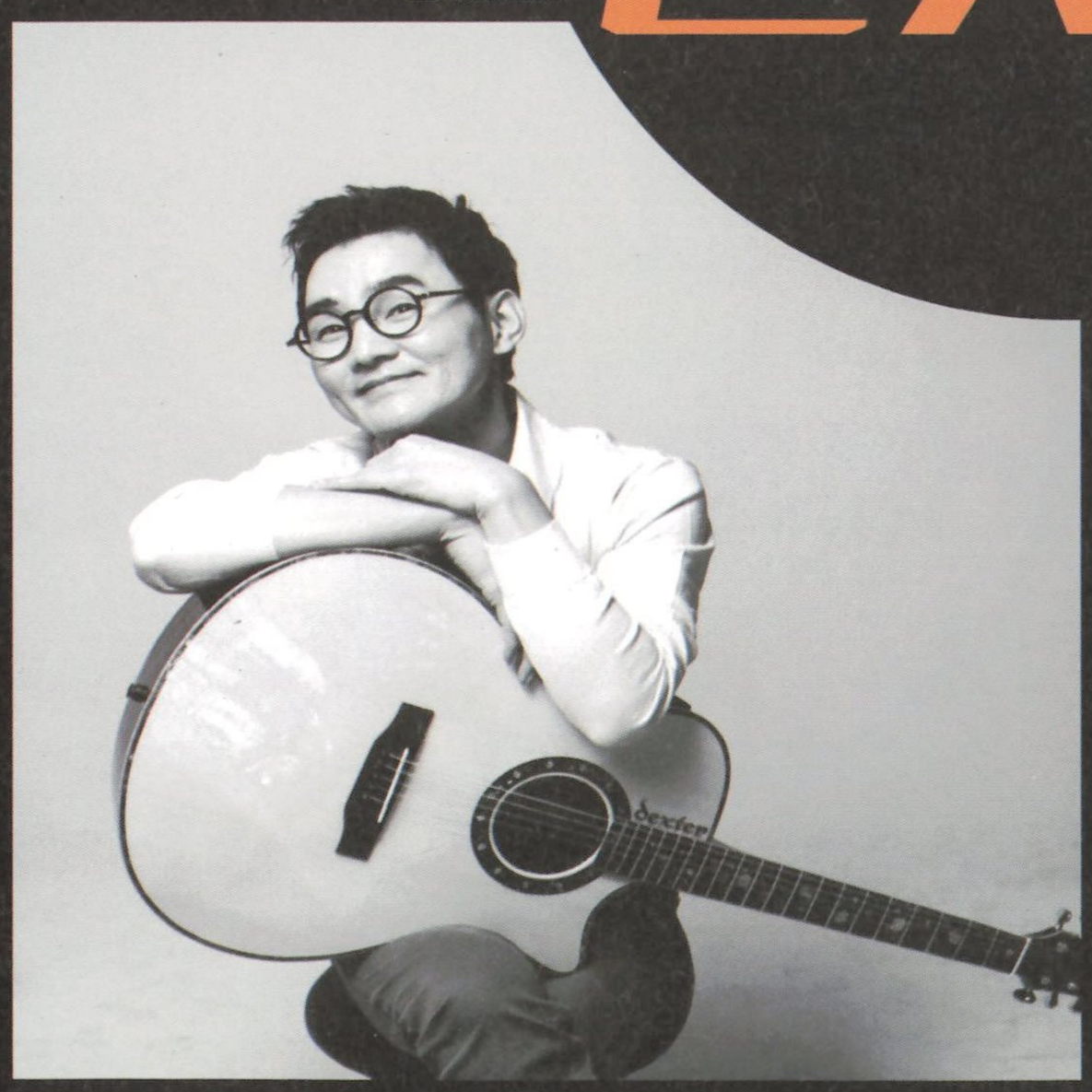
후 원 굿모닝백이안과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UNDAE GRAND HOTEL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윤형주 / 김세환 / 추가열 / 남궁옥분



7080 콘서트



2015. 12. 25 (금)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문화회관 제 작 (주)아우라 E&S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 의 051-607-6065(공연과) 051-607-3100(홍보팀)

셔틀버스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옐로인플라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꽃 상품 10% 할인
(일부상품 제외)

부산문화회관 입구 분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051)627-1253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10월 29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12/24일 오후 3:00,
6:00, 9:00, 12/25-26일 오후 2:00, 5:00, 8:00,
12/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셜록홈즈'

9월 17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룸넘버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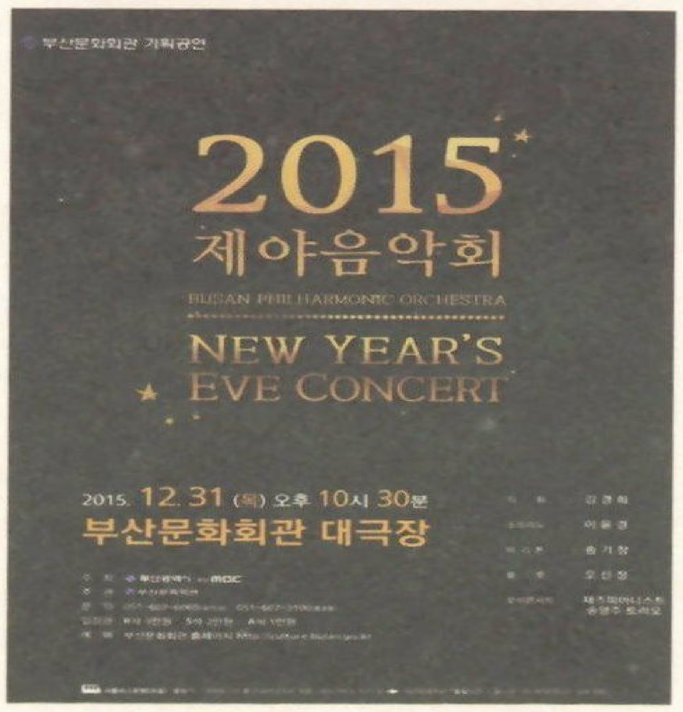
11월 5일(목)-2016년 2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12월 공연일정

2015 December 12

16-18	11:00 19:30	부산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
17-18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17	19:30	BS Singers 창단음악회 **중극장** 균일 2만원/우리아트(920-9545)
18	19:30	Constant Innovation Wind Orchestra 창단연주회 **중극장** 무료/박정우(010-4901-2141)
19	17:00 18:00 16:00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중극장** 무료/(사)희망을여는사람들(554-0832)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극장**
20	17:00 16:00 19:30	부산시립무용단 교류공연 '춤으로 갈무리하다' **대극장**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영어뮤지컬 '신데렐라' **중극장** 균일 2만원/꿈꾸는아이(010-7503-6564)
21	20:00 19:30 19:30	2015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 제4회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양라윤(010-3863-1300) 한영길 제3회 대금독주회 **소극장** 무료/한영길(010-3863-1028)
22	19:00 19:30 19:30	쥬빌리콰르텟과 함께하는 프리바이올린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균일 1만원/프리바이올린앙상블(010-6773-677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의 기적'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607-3146, 3108) 김명희의 세번째 거문고 '금향' **소극장** 초대/김명희(010-8987-4884)
23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5 송년음악회' **대극장** 1만원·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3, 3105)
24	20:00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소극장** 2만원·1만원/무대공감(623-0678)
25	19:00 16:00 20: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7080 콘서트' **대극장** 5만원·4만·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42, 6065) 극단 세진 '2015 피터 Peter' **소극장** 2만원·1만원/무대공감(623-0678)
26	11:00 16: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이탈리아' **대극장**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BSO(621-4577) 토요상설무대 K-Dance Company **소극장**
26-27	18:00	2015 클릭비 콘서트 '7-3=7' **중극장**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02-541-7110)
27	19:30 19: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오케스트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대극장** 균일 2만원/UKO오케스트라(010-3863-3087) 소녀들의 피리이야기 **소극장** 무료/여은혜(010-7197-8515)
28	19:30	2015 김복선 발레공연 **중극장** 균일1만원/김복선(200-7823)
29	19:30 19:30 19:30	부산다이나믹 심포닉밴드 2015 송년콘서트 '부산청년이여 일어나라' **대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3107) CTS부산방송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CTS부산방송(784-9988) 메디코러스 제3회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소극장** 초대/우리아트(920-9545)
30	18:30 19:30	이지댄스 광복 Showcase **중극장** 무료/이지댄스광복(256-9995) 김경옥 힐링무용 '눈 속에 핀 꽃' **소극장** 균일 1만원/김경옥(010-4996-2133)
31	22: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제야음악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10% Discount
헬로인플라워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 쿠폰소지자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셜록홈즈'
- 쿠폰소지자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룸넘버13'
- 쿠폰소지자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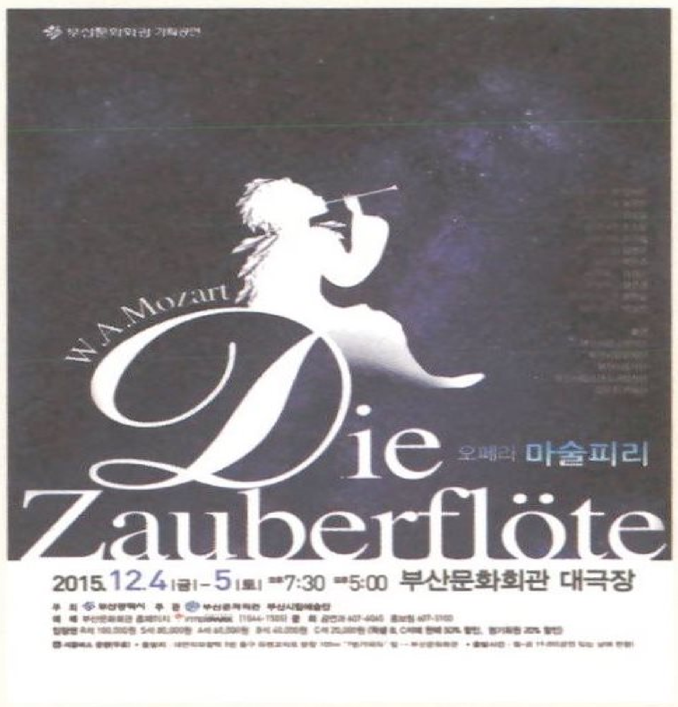
CULTURA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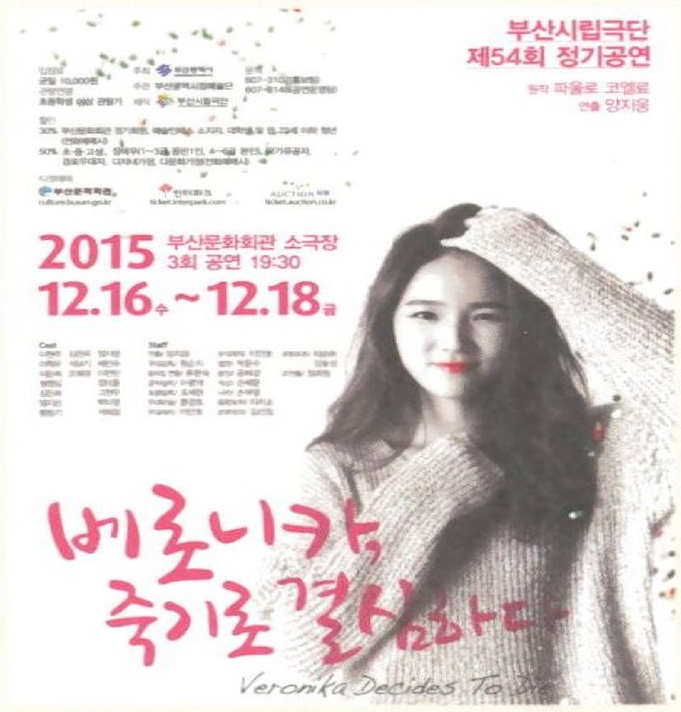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12월 공연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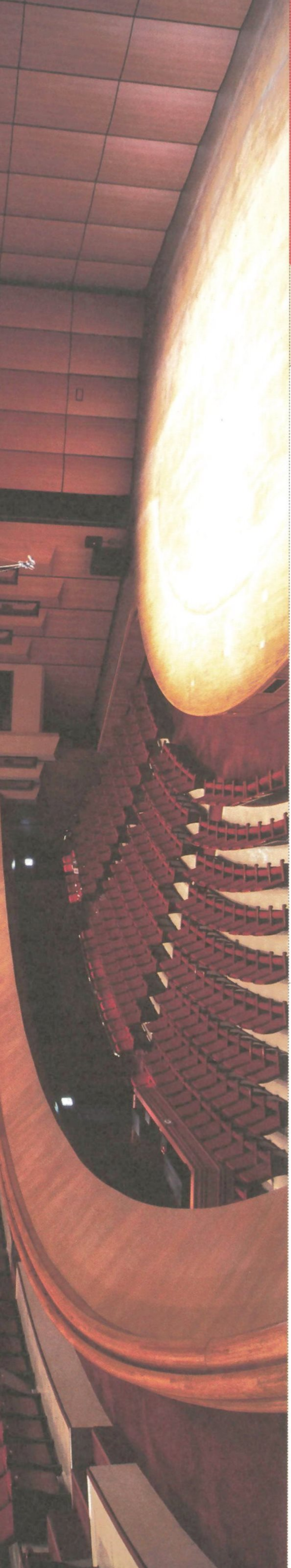
청정海 부산

2015 December 12

1	19:00	조희규 해금 독주회 **소극장** 무료/조희규(010-7740-4199)
2	19:30	ArtTalk Concert **중극장** 초대/서승우(010-5559-9120)
3	19:30	제1회 부산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부산시민합창단(200-1760)
	19:3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5 풍류 12기-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소극장**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54, 3107)
4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오페라 '마술피리' **대극장** R석 10만원·S석 8만원·A석 6만원·B석 4만원·C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19:30	2015 좋은이웃 콘서트 **중극장** 균일 8천원/(사)굿네이버스(711-5670)
	11:00	2015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축제 **소극장**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3~4)
5	17: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오페라 '마술피리' **대극장**
	17:00	겨울나그네-배신 & 고통 & 방황 그리고 희망 **중극장** 균일2만원/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소극장**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6	18:00	위드스트링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위드스트링앙상블(010-7565-0280)
	17:00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초대/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010-6507-4929)
7	19:30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제3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대극장** 초대(KNN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KNN(1800-2575)
	19:30	육은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균일 2만원/육은화(010-5661-3086)
7-8	19:30	정신혜무용단 프로젝트 2015 '춤·세대공감' **소극장** 정신혜무용단(999-6286)
8	10:15	성교육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
	11:20	**중극장** 균일 1만 5천원/극단 님비곰비(02-882-9001)
9	19:30	제31회 장정윤 현대무용공연 **중극장** 초대/장정윤(200-7822)
10	19:30	프로젝트 앙상블 아베크 **소극장** 균일 2만원/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11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대극장** 9만원·7만원·5만원·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Ⅳ 11시에 만나요! '리골레토'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 3106)
	11:00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박종화 건반 위의 이야기' **소극장** 균일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
12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대극장**
	17:00	선한아버지합창단 창단연주회 '만남' **중극장** 초대/김석중(010-3779-9188)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소극장**
13	17:00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제2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정원영(010-3870-9706)
14	20:00	CTS 부산방송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중극장** 초대/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010-7900-2010)
15	11:00	부산시립무용단 2015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19:30	KAWAI와 함께하는 초청연주회 **소극장** 초대/조혜영(010-8515-2525)
16	10:30	부산시립무용단 2015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대극장** 초대/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19:30	2015 부산솔리스트앙상블 **대극장** 균일 3만원/부산일보(461-4434~8)
	19:00	제5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중극장** 무료/김강규(010-8496-0691)







20 %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48534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함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팔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1월 테마여행 신청

보내는 사람

테마여행지 추천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48534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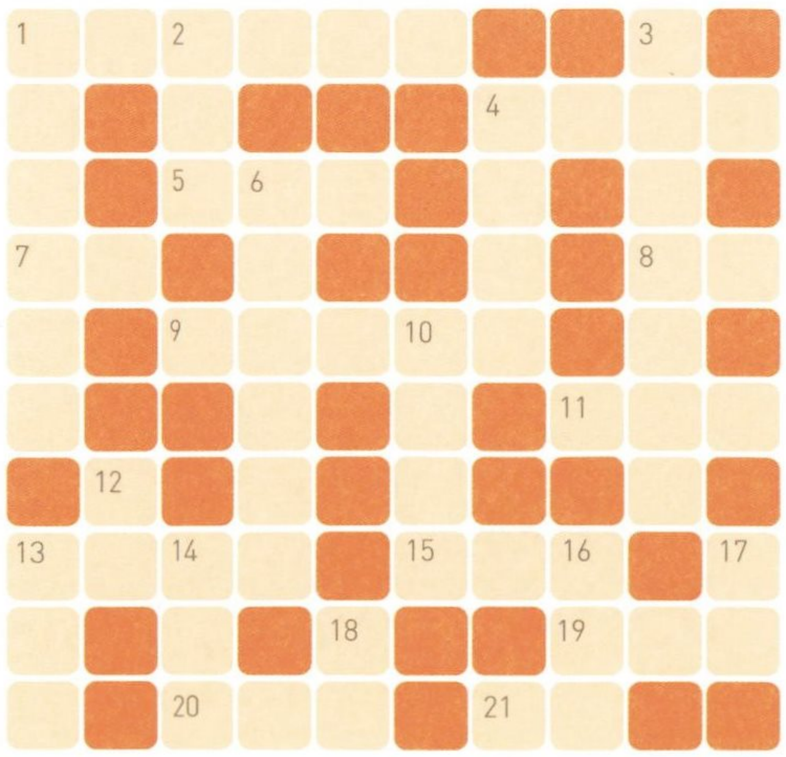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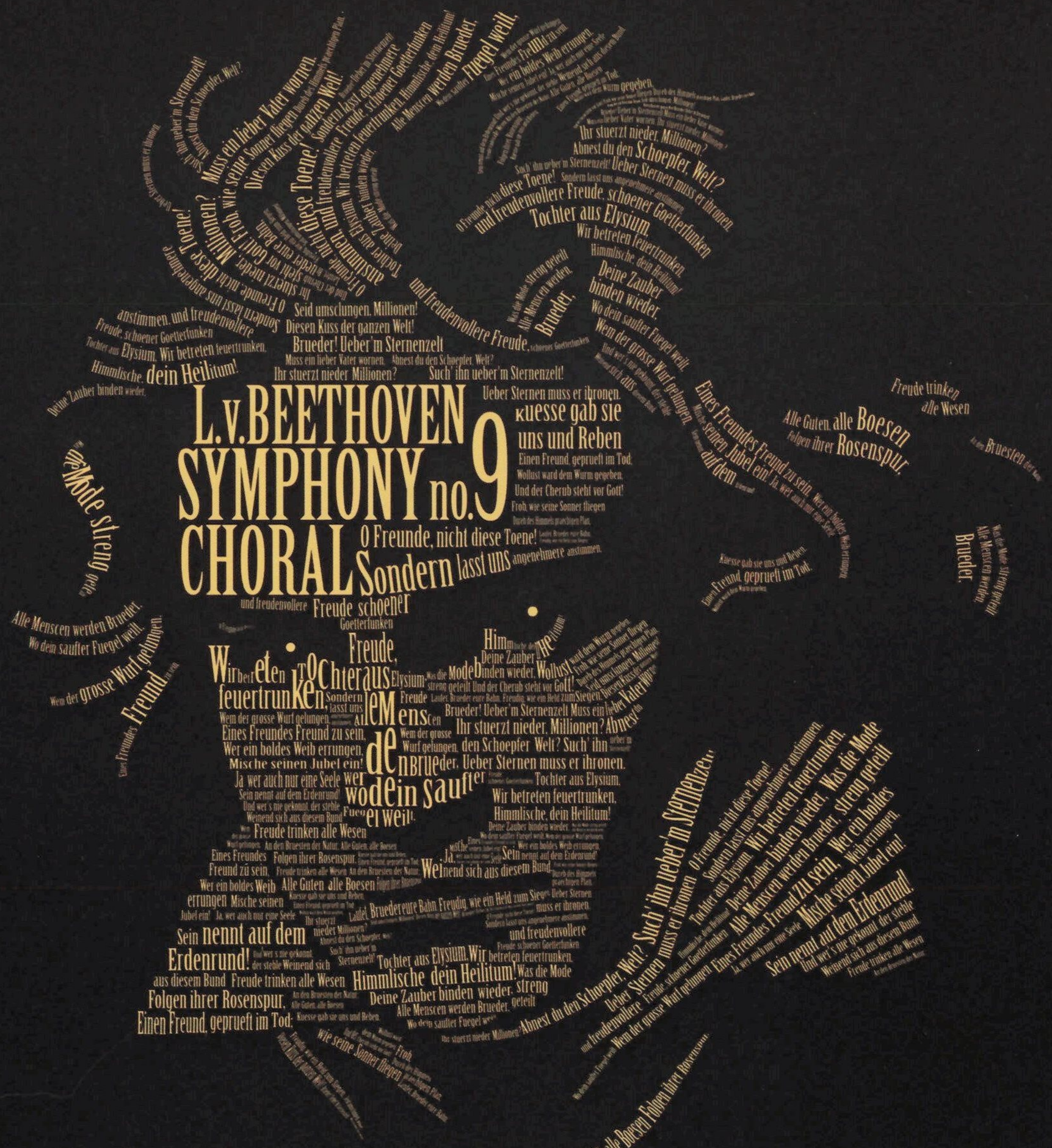
3.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 MBC 창사56주년기념

2015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L.v.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 지휘 리 신차오 ◆

◆ 소프라노 송 위엔밍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 테너 위 하오레이 ◆ 바리톤 제상철 ◆

◆ 부산시립교향악단 ◆ 복건성가무극원 푸젠심포니오케스트라 ◆ 부산시립합창단 ◆ 울산시립합창단 ◆ 김해시립합창단 ◆

2015.12.17(목)-18(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주관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051-607-6066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2015. 12. 31 (목) 오후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 휘	김경희
소프라노	이윤경
바리톤	송기창
플 룻	오신정
로비콘서트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MBC

주 관 부산문화회관

문 의 051-607-6065(공연과) 051-607-3100(홍보팀)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셔틀버스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본 자료는 (재)부산문화회관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